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장정등

二十六

❶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 설악산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장정룡

차례

책을 내며
산과 사람 사이 사잇길

1장. 문헌으로 돌아보는 설악 기행

1.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 11
2.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 43

2장. 전설과 풍광으로 돌아본 설악산

1.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 69
2. 설악산,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 95

3장.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1. 설악산 전설과 개발사 그리고 기행문 ● 103
2. 속초지역 아리랑의 전승 맥락과 특성 분석 ● 151
3. 설악산 심폐마니 연구 ● 173

영인본 -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원문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 204
2.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 223
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 230

책을 내며

속초문화원은 그동안 지역문화의 원형을 밝혀내고 현재적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속초의 다양한 공간에서 파생한 역사의 흔적과 문화적 의미는 속초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도시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 년에 한번 발간하는 향토사 안내서는 우리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향토사안내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기왕에 밝혀낸 향토문화의 원형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획안의 주제를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원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밝혀온 문화원형을 모아두면 그것이 콘텐츠로서 가치를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로 ‘설악산’을 선택한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이 속초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속학자이자 우리 지역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설악산 글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장정룡 교수는 자연유산으로서의 설악산을 넘어 사람과 조화를 이룬 설악산의 놀라운 면모를 치열한 탐구정신과 애정어린 열정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중심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까닭에 한권의 책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함은 아쉬운 일입니다. 올해는 전문편집인을 선정하여 장정룡교수의 열정을 빛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속초 고유의 문화콘텐츠가 도시경쟁력이고, 미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설악산의 다양한 모습이 조명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정룡교수를 비롯하여 책자 발간에 노력하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천십육년 눈오는 날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산과 사람사이 사잇길

오랫동안 가슴 속에 설악이 자리 잡고 있다. 은자(隱者)의 산이라는 평가와 같이 설악은 내 속에 은밀한 속삭임으로 말하고 있다. 설악은 어머니의 품이다. 그리움의 원천이기도 하고, 가슴 찡한 명징(明澄)의 상징이다.

설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설악을 알아야 했다. 산이름, 산이야기, 산사람들, 산의 노래. 그것을 문화,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명산이라는 거창함을 떠나서 익숙한 설악의 바람소리, 설악의 물소리, 설악의 전설에 귀기우리고자 하였다.

사실 낮은 목소리로 아련한 음성으로 오랫동안 소통해온 설악이다. 사랑보다는 아낌, 감동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함께 지내왔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어려서부터 설악산 아래서 살았기에 내밀한 계곡과 늪름한 산자락, 수정같이 맑은 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나의 소소한 감정과 내칠 수 없는 끈끈한 생각들을 표출하였다. 사계절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은 천변만화다. 끊임없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되 설악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지풍광은 늘 아름답고 소중하다. 금강이 일 만 이 천봉이라면 설악은 일 만 이 천폭이라고 한다. 산과 물이 어울려 세상에 없는 폭포를 이루었으니, 설악은 가히 금강과 쌍벽이다.

이 책에서는 설악을 다녀간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행문을 비롯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탐승적 관점에서 피력한 글, 산삼을 쫓는 설악산 심메마니도 찾아보았다. 울산바위 전설의 숨겨진 수수께끼도 풀고자 했다. 설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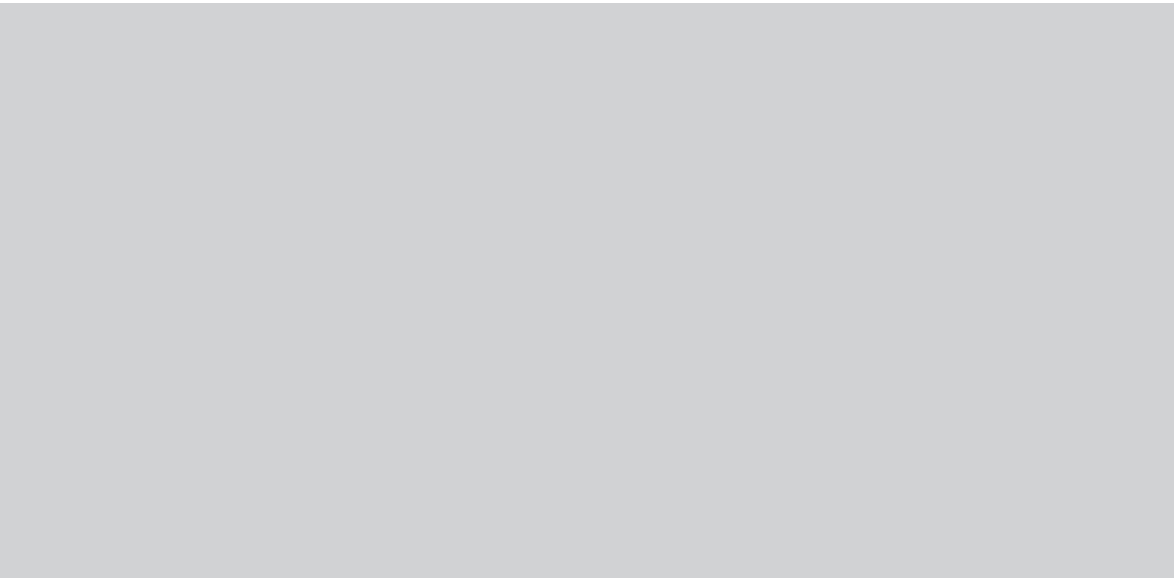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애를 쓴 개척자의 이야기도 소개하였다. 질곡의 시대, 설악산 꼭대기에 초가집을 짓고 감자밥을 먹는다는 설악산아리랑은 고난의 고개를 넘어온 시대적 영탄이기도 하다. 설악산을 노래한 가요와 설악산을 문화콘텐츠로 접근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옷을 입힌 분들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설악의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다. 내설악, 외설악으로 나누듯이 이 글들은 더 깊이 있는 걸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잇길에서 주마간산격으로 보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간 썼던 글과 새로 몇 편을 모아서 세상에 내놓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독자들은 내가 설악을 노래하고 말하고 그리고 기록하고자 한 작은 소망을 이 책에 담았다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한다. 설악의 원근은 늘 내 삶의 거리로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리고 산과 그곳 사람의 이야기는 연구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나는 설악사랑의 첫마음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용을 무릅쓰고 한 권의 책에 미진한 사랑을 담고자 했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속초문화원과 편집자 연선에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천십육년 십이월 연구실에서
장 정 룡



洞洞中元無分明路逕澗左右都是巖石大者磐陀
 穹窿小者縱橫廉利往往無着足處入洞絕少登輿
 便衣草鞋跳溪爬峻過吾處輒拭汗定喘連以生
 葛粉糜食調澗水沃午則水簾洞僧言自玄龜至
 此為四十里自五歲前路處至此亦可二十里
 量其遠未必至是而嶮辛殆甚於平道百里行
 入山後水石峯巒之奇勝不可殫記所謂頭陀鶴
 巖廣石槽淵皆是偶有稱奇故記之其外此類甚多
 漫然無名雖欲記不可得自分路處峯勢石色稍稍
 覺異至水簾四壁押天自水底至山頂似用一箇大

1장

문헌으로 돌아보는 설악 기행

1.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2.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꽃과 구름 사진제공·속초시청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은 모두 산이다.”
정범조(丁範祖), 「설악기(雪嶽記)」

1.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고찰



1. 머리말

산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준다. 그리고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하였다. 이렇게 산은 사람과 말 없이 친근한 벗이 되고 때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나는 어려서 설악산 아랫마을에 살았다. 그곳에서 내 키를 훌쩍 넘는 눈다운 눈을 맞아 보았고, 한겨울에 마을로 내려온 산양도 보았고, 설화(雪花)의 경관에 흠뻑 빠져본 적도 있었다. 산악인은 물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이라고 평하니 설악산 아랫마을에 살았던 나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할 것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1708m에 달하여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 다음 가는 높은 산이며, 연중 5~6개월간 눈이 쌓여 있다. 전체면적 354.6km²의 경관적 특징인 웅장하고 다채로운 모습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관입(貫入)과 이에 수반되는 암질, 구조상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差別侵蝕)의 결과다.

설악경관의 백미는 무엇보다 가을 단풍과 겨울 백설이다. 1966년부터 산

악등반대회로 시작된 가을철 설악문화제는 신라 때부터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려 행했던 국가급 봉정산제(封定山祭)의 소사(小祀)제의를 계승한 것이다.¹⁾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겨울철 설악눈꽃축제가 2008년에 폐지되었으나 명산 설악의 전통을 계승한 겨울 산 눈꽃과 얼음축제로 되살려 특화함이 마땅하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겨울 설악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그 명칭 자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설화인 눈꽃, 얼음산 빙벽, 겨울산 행동반, 얼음조각대회 등으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지닌다.

설악의 겨울눈꽃축제가 대관령이나 태백산 눈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대표성을 지닌 겨울축제로 환생한다면 봄설악은 산채와 들꽃, 여름설악은 시원한 계곡물, 가을 설악은 만산홍엽의 단풍, 겨울 설악은 백설과 솜다리꽃을 주제로 한 사계절축제화가 가능하다. 사실상 춘하추동의 설악은 천변만화(千變萬化)와 천태만상(千態萬象)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속초는 청정바다, 영감이 깃든 호수, 화이트 설악산이라는 ‘초이스-속초(CHOICE-SOKCHO)’의 선택받은 무한하고 강력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으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

1969년 2월 14일 한국산악회 적설기 설악산 훈련등반대 10명이 죽음의 계곡에서 조난 당했던 당시에 나는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촌 설악동에 살았다. 많은 취재진과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묵으면서 잠깐이지만 큰 귀가 인상적이었던 노산 이은상, 국어학자 심악 이송녕 선생, 부친과 함께 설악 개발기에 앞장섰던 이달영, 이대성, 의사 이기섭 박사, 사진가 최구현 작가도 만나보았다.²⁾

1) 장정몽, 『속초시의 축제』, 『강원도 축제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6, 135~154쪽, 이 글에서 필자는 속초시 축제를 전통지향형축제, 통일지향형축제, 국제지향형축제로 나눈바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설악눈꽃축제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작한 불 축제를 비롯하여 눈외호불꽃놀이와 실랑민주제를 포함한 속초관광발전을 위한 4계절특성화축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崔九鉉, 『雪嶽山觀光叢書』, 雪岳觀光協會, 1958, 필자 소장의 이 흑백사진집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훗날 우연한 기회에 노산 선생의 「설악행각」을 읽으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간 유년기 설악시절이 되살아났다.³⁾ 노산처럼 좋은 유산록을 쓰지는 못했지만, 어른들과 함께 대청봉을 수시로 넘었고, 계조암과 양폭산장도 자주 갔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설악에 대한 관심은 관광안내자로 입담 좋은 유만석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을 만나서 설악산 전설을 수집했다.⁴⁾ 그리고 전달재라는 채삼인을 만나 설악산 심메마니 풍습을 살펴보고,⁵⁾ 울산바위 전설도 새로운 시각으로 천착해보았다.⁶⁾ 이번 기회에 조선시대 설악산기행문을 집필하니 권금성을 바라보고 쌍천물에 먹을 감던 지난 세월, 그 감회가 새롭다. 그간 설악산 시문에 대한 단편적인 글이 나왔으나 전반적인 연구는 금강산 등에 비하면 희소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설악산에 대한 자연생태적 연구 뿐 아니라 구전설화, 한시(漢詩), 소설, 수필, 사진, 그림, 가요 등 문예미학적 관점에서 설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⁷⁾

1965년 11월 5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은 1970년 국립공원이 되었고, 1982년 8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금강산에 비해 규모나 명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3) 李殷相, 『雪岳行脚』, 『鷲山文選』, 永昌書館, 1947

4) 장정룡 외,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5) 장정룡, 『설악산 심메마니연구』, 『강릉어문학』 7집, 강릉대국문과, 1992

6)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속초문화』 제24호, 2008, 72-92쪽

7) 엄경선,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 지역이야기』, 『설악신문』, 934호, 2009.11.30 14면 “1975년 6월 당시 굴지의 음반 사였던 지구레코드에서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하춘화가 부른 ‘속초에 심은 사랑’ ‘설악산 메아리’를 새 음반으로 내놓았다. ‘속초에 심은 사랑’은 속초시의 고향 심기운동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하춘화가 단독으로 불렀으며, ‘설악산 메아리’는 ‘잘했군 잘했어’ 다정한 부부에 이은 후속타를 노려 하춘화, 고봉산이 콤비로 불렀다.” 필자가 소장한 ‘설악산메아리’(김령인 작사, 고봉산 작곡, 하춘화 고봉산 노래)음반에 실린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음반의 뒷면에는 속초항구와 혼들바위를 미는 승려 사진이 들어 있다. “1. 흰구름 덮인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 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2.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쿵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 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면,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1984년 남궁옥분 도 ‘설악산’(오세은 작사작곡)이라는 노래를 취입했다. 가사 중에는 “설악산 설악산 오 설악산, 나는 좋아 설악산이 나는 좋아, 아 그대 품속으로”라고 하였고 대청봉, 한계령 오색약수, 백담사 등 내설악을 주요 내용으로 넣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설악산과 금강산은 가깝고도 먼 운명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과 풍치를 갖고 있기에 굳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작의적으로 비교하거나 상하를 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⁸⁾

설악을 ‘웃을 입은 금강’이라 하거나,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풍악이 어떠하냐고 물었다는 시조도 결국은 금강산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⁹⁾

근래 들어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관광하자는 견해가 나오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악은 설악이다. 송강이 놀라서 내뱉었다는 퍼닝(punning:언어유희)처럼 설악은 설악(서락)이지 벼락이 아니다.¹⁰⁾ 설악기행문이 금강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인다고 해서 설악이 금강의 미에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73년부터 설악에 입산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규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설악산은 돌들과 계곡과 수목의 조화로운 ‘합창 교향곡’이다. 그것은 대자연과의 조화이며 질서이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특히 그 다양한 변화 속에 있다. 막히는가 하면 터지고, 오밀조밀한가 하면 장대하고, 감졌다 풀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철따라 변화하는 오묘한 색채와 형상들의 조화는 신공(神工)이라 불려 마땅하리라”고 극찬했다.¹¹⁾

8) 金迪東,『全鮮名勝古蹟』,東明社, 1929, 257쪽 “麟蹄君, 雪嶽山…泉石絶勝하고 峯巒壯奇하야 與金剛으로 上下云이라”

9) 趙明履 “雪嶽山 가는 길에 峯骨山 중을 만나, 중드리 무른 말이 楓岳이 언더트리니, 이스이 蓮혀 서리치니 때마차다 ㅎ 드라” 조명리는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자는 仲禮, 호는 道泉 滄州 蘆江,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文憲이다. 유창돈, 『고서조신석』, 동국문화사, 1959, 348~349쪽

10) “송강 정철은 설악에서 역적이 나타난다 하여 봉경암에 穴을 지르려고 설악산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정철은 설악산을 평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여 후세에 흥미로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다. ‘雪岳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썩境이며, 鳳頂이 아니라 雞頂이라’라고 말하며 매우 고생을 했다고 한다. 즉 설악산에 들어서자 천지가 진동하고 소낙비가 내리고 큰 雷聲이 온 몸을 삼킬 듯이 으르릉 거리자 혼자서 답답하여 내뱉은 말이라고 한다.” 황호근, 『국립공원 설악산』, 통문관, 1973, 47쪽, 필자가 수집한 송강정철과 설악산에 얽힌 전설로는 ‘계조암과 송강 정철’ ‘울산바위와 송강정철’이 있다. 장정룡,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119쪽 참조

11) 成東奎, 『雪岳의 秘境』, 아카데미서적, 1988, 머리말

설악의 진경산수를 보여준 문봉선 교수는 “만경대를 그리려고 며칠간 양쪽에서 머물기도 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광경이나 생각이 내 그림을 바꾸어 놓았다. 아침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해질녘에 보이는 모습이 달랐다. 짙은 먹으로만 그려보기도 했고 붓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 골격만 그려보기도 했으며 운무를 쫓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서술했다.¹²⁾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사계의 설악산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논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설악을 탐승하고 그 감상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수필을 음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수필(隨筆)은 이른바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한가한 마음에서 처마에 떨어지는 낙숫물로 먹을 갈고 편지를 잇대어 수의수필(隨意隨筆)로 여유롭게 쓴 글이다.¹³⁾ 고전수필의 형식에 기(記) 록(錄) 문(聞) 화(話) 담(談) 필(筆)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상황에 맞는 글을 쓰는 무형식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기행문은 감동을 주는 수필문학의 한 장르로서 뿐 아니라 파한(破閑)을 넘어 지리와 풍속, 전설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연구 자료다. 또한 낮은 곳에서 높은 이상을, 지류에서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탐승의 경지는 산악기행만이 갖는 높고 깊은 가치다.

설악기행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조선시대 문인 삼연 김창흡과 내재 홍태유가 맺은 인연이 묘하다. 첫 번째 인연은 같은 해인 1705년에 설악산을 다녀와서 쓴 최초의 설악기행문이란 점이다. 김창흡은 52세, 홍태유는 33세에 설악산을 다녀온 것이나,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른 문체인 일기체와 감상문으로 쓴 두 선비의 다른 시각이 여실히 나타난다. 두 번째 인연은 설악산에 은둔했던 김창흡이 나이는 아래지만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홍태유의 시문들을 산정(刪定)했다는 점이다. 삼연은 홍태유의 세 아

12) 문봉선, 『설악산과 나 그리고...』, 『설악산』, 학교재, 1996, 130쪽

13) 李齊賢, 『樸翁稗說』, 仲愍序 “지정 임오년(1342) 여름이다...버루를 꺼내어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받아 먹을 갈았다. 그리고 평소에 벗들에게서 받은 편지 조각을 이어서 그 뒷면에 여러 가지를 적고 그 끝에 책 이름을 역용패설이라고 붙였다.”

들이 권유하여 내재의 시와 설악산에 대한 글들을 보고, 높은 문학성을 칭찬하였다. 이처럼 김창흡과 홍태유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설악산이라는 자연이 맺어준 인연이 특별하다. 내외설악을 죽망망혜(竹杖芒鞋)의 모습으로 교감하며 돌아다니던 뛰어난 와유록(臥遊錄)은 이정소, 이복원, 정범조, 김금원의 글이 더 있다. 본고에서는 설악을 찾았던 선비들이 1700년대에 작성한 기행문 가운데 유산(遊山)과정과 경관미 서술을 탐색하고,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설악산의 유래와 팔기팔경

설악을 명악(名嶽)이요 영악(靈嶽)이며¹⁴⁾ 또한仙境(仙境)이요 화경(畵境)이다.¹⁵⁾ 예로부터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형제라고 불려왔으며 금강과 설악이 골격은 닮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 평가하였다. 금강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하지 못한다,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평한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설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으며 고운 양자(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⁶⁾

설악산은 인제, 양양의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의 위에 생긴 일대승지입니다. 전일에는 인제 쪽은 한계산이라 하고 양양 쪽은 설악산이라 하여 일산(一山)에 이명(二名)이 있었지만은 본대 이유 있는 일 아남에 마땅히 유래가 먼 설악이란 한 이름으로 통일할 것이겠지요. 설

14) 黃涇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自序

15) 金錦園, 『湖東西洛記』, “人之稱名區勝景者 必曰仙景畵景”

16)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25쪽,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바꾸었다. (필자 주)

악산은 또한 커다란 石山덩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산에 비방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이 될 것입니다. 산세가 웅대하고 기봉이 무더기무더기 높이 빼어나고 골이 깊고 숲이 짙고 큰 소와 급한 여울과 맑은 시내와 긴 폭포가 여기저기 변화 있게 배치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홀연 기이함에 놀라고 홀연 시원함을 부르짖게 하는 점이 대체로 금강산과 같습니다. 탄탄히 짜인 상은 금강산이 승(勝)하다고 하겠지마는 너그러운 편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승하다고도 하겠지요. 금강산은 너무나 현로(顯露)하여서 마치 노방(路傍)에서 술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이 있음에 비하여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되 고은 양자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

근래에 교통이 편리해짐과 함께 금강산의 속악화(俗惡化)가 점점 줄달음질을 할수록 우리의 설악산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깊어감이 또한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참으로 산수의 사이에 몸을 맡기려 하던 이는 김매월당, 김삼연 네와 같이 그윽한 집을 다 이 산중에 얹고 지낸 것이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누가 나으나 못하나 하는 문제는 얼른 대답하기 어렵고 또 아무래도 금강산이 나으리라 함이 보통이겠지마는 설악산에는 분명히 금강산에서 볼 수 없는 경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산의 입구인 갈역(葛驛:박성원의 한설록에는 가역(加歷)이라 하였다)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70리 길이의 긴 계곡에 바위벼랑과 돌바닥이 깊은 골로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데리고 굽이굽이 갖은 재주를 부려서 토막토막 소도 만들고 폭포도 드리우는 일대(一大) 필름은 금강산은 고사하고 조선의 어느 명산에고 다시없는 장관일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는 청룡담, 황룡담, 제폭, 황장폭 무엇무엇하지마는 온통 합하여서는 곡백담(曲百潭)이라고 부릅니다. 해주의 석담, 청주보은의 하양동, 안의의 서상동, 북상동 등을 다 한데 연결해도 그 길이나 그 기이함이나 다 설악의 곡백담을 따르지 못할 줄나는 생각합니다.

수렴동(水簾洞)이란 것이 금강산, 설악산에 다 있지만은 금강의 수렴은 오두막살이집 쪽 들창에 천발 쫓 된다 하면 설악의 수렴은 경회루 넓은 일면을 뒤덮어 가린 큰 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칠폭, 십이폭 등 무더기 폭포가 여기저기 많음도 한 특색이거니와 산성골짜구니로 솟아 떨어지는 대승폭포는 두 동강을 합하면 길이가 수백 척이어서 반도 안에서는 가장 긴 폭포가 됩니다. 이밖에 옥련(玉蓮)을 느껴 세운듯한 봉정과 석순을 둘러친듯한 오세와 같이 봉만(峯巒)과 동학(洞壑)의 유달리 기이한 것도 이루 손을 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설악의 경치를 낫낫이 세어보면 그 기장(奇壯)함이 결코 금강의 아래 들 것이 아니건마는 원체 이름이 높은 금강산에 눌러서 세상에 알리기는 금강산의 몇 백 천분지의 일도 되지 못함

은 아는 이로 보면 도리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큰 실상을 가지고 세상에 소문나지 아니한 것이 설악산 하나만은 아니겠지요.

혹자는 설악을 은자(隱者)의 산이라 했다.¹⁷⁾ 그만큼 금강에 비해 덜 알려졌다는 뜻도 되지만 설악은 유일하게 금강과 그 아름다움을 다룰 수 있으며, 그 명성은 생육신이며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과 5천여수의 시를 남긴 삼연 김창흡에 의해 더욱 높은 평가되고 있다.¹⁸⁾ 노산도 “창과를 잡아 다려 발밑에 깔고, 내로라 빼어 오른 설악산청봉, 매월이 놀던 데가 어디메던고, 텅그렁 오세암에 풍경이 운다”고 매월당에 대해서 언급했다.¹⁹⁾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와 속초시까지 포괄하는데 설악산맥 북쪽의 주능선을 경계로 양양방면 즉 동쪽을 외설악, 서쪽인 인제방면을 내설악이라 부르며 한계령 남쪽 장수대 주변을 내설악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의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이며 연중 5개월 동안 눈이 쌓여 있으며, 봄의 진달래, 초여름의 후박꽃과 아련한 신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으로 등산객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다.²⁰⁾

설악은 신라 때 처음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칭으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으로 불렸는데 그 어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가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 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

17) 洪泰猷, 『遊雪岳記』, 『耐齋集』 卷4. 記 “지금까지 많은 명산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금강산만이 이 설악산과 우위를 다룰 수 있고 다른 산은 견줄 바가 못 된다. 금강산은 그 아름다움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악산의 경치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아는 이가 드무니, 이 산은 산 가운데 隱者이다. 내가 세세히 설악의 경치를 적은 것은 고향에 돌아가 친우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요, 또 절경을 찾아 유람하려는 이들에게도 알려주려는 뜻에서이다.”

18) 金錦園(1817년경-1847년이후), 『湖東西洛記』, “설악에는 옛날 김삼연의 영시암과 김청한의 오세암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19)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 32쪽

20) 손경석, 『한국의 산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202쪽

다.²¹⁾ 둘째는 암석의 색깔이 눈 같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고²²⁾ 셋째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슬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²³⁾

조선중기 이만부(李萬敷:1664~1732)의 『지행록(地行錄)』에 의하면 첫째와 둘째 유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설악산은 산이 매우 높아 음력 8월(중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이듬해 음력 5월(여름)에 가서야 눈이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 이른다. 또 그 바위 봉우리의 돌 빛이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도 또한 설악이라 부른다”고 하였다.²⁴⁾ 따라서 설악 명칭의 유래는 백설과 관련된 것, 암석과 관련된 것,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포함한 명칭으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눈 설(雪)자를 사용한 ‘설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설악산과 관련된 두 권의 서명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노산 이은상의 『산찾아 몰따라』(박영사, 1966년 초판, 1975년 3판 발행)이고, 다른 하나는 황호근의 『국립공원 설악산』(통문관, 1973년)이다. 노산의 이 책은 동아일보에 1933년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7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그의 설악산 기행에는 심마니, 포수 등 10여명이 동행하였다. 30세의 젊은 시인이자 동아일보 기자출신이며 산악인인 노산 이은상은 설악행각 1회 ‘행각 전야의 등하(行脚 前夜의 燈下)에서’라는 제목으로 설악행각을 쓴 동기를 밝혔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설악은 우리 옛 조상들의 오랜 숭배를 입어온 신령한 산, 거룩한 지역이라 후세에 끼쳐진 한 자손이 찾아가 그 영적을 더듬고 활력을 얻어 조선민족정신을 재인식하자,

2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산천조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지었다.”(在府西北五十里 巔山極高峻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22) 金錦園, 『湖東西洛記』, “설악산을 찾으니 돌들은 불췌불췌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은 희기가 눈 같이 설악이라 이름했다.”(訪雪岳山 石勢連天 峯巒聳列 石白如雪 故名雪岳也) 김금원은 원주 태생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4세 때인 1830년 봄 3월에 남장을 하고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규당학사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으며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경에서 박죽서, 김운초, 김경춘 등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 1850년에 유명한 여류기행문인 『호동서락기』를 썼다.(필자 주)

23) 李殷相, 『雪岳行脚』, 『鷺山文選』, 永昌書館, 1958, 165쪽 “이 설악의 ‘설’이란 것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슬’의 음역인 것임만은 介疑할 것 없는 일이라 봅니다”

24) 김윤우, 『설악산의 산수와 명승고적』, 『山書』 제15집, 한국산서회, 2004, 20쪽

조선민족 신념을 재수립하자, 조선민족문화를 재건설하자 하는 거기에 더 큰 깊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후에 『노산문선』에 수록되었지만, 새로 『산찾아 물따라』(1966년)를 묶어 내면서 “일제강점기의 검열기준으로 ‘설사 신문에는 그대로 넘겨준 글이라도 단행본에는 옮겨 신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군데군데 삭제를 당한 곳이 많았다. 그랬으나 이번에 이같이 새로 간행하게 되므로, 그 당시 이 글을 발표했던 동아일보 보관지에서 그 삭제된 구절을 찾아 그대로 베껴 내어 완전히 보충해 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 따라서 『노산문선』에 실리지 못했던 설악행각의 내용들이 『산찾아 물따라』에 오롯이 담겨지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설악산이 1933년 노산 이은상 신문연재로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가 온당하다.²⁶⁾

다음의 서명본인 황호근 『국립공원 설악산』은 사단법인 속초시관광협회 회장이었던 양권일이 전용갑에게 준 것으로 내표지에 ‘전용갑 선생 혜존 양권일(全瑢甲 先生 惠存 楊權一)’이라고 서명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양권일이 지우었던 황호근에게 설악산에 대한 책을 저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호근의 자서에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속초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선생의 물심양면에 걸친 뜨거운 희생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을 특별히 밝히고 감사를 드리는”것이라 하였다.

양권일 회장에게 이 책을 받은 전용갑 사진작가는 자신의 책 앞장 화보에 “사진 ‘○’표는 전용갑 촬영 기타 최구현 촬영(全瑢甲 撮影, 其他 崔九鉉 撮影)”이라고 직접 써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전용갑 선생의 소장본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필자의 수중에 들어옴에 따라 소개를 하게 된 것도 선생의 큰 인연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 수록된 컬러사진 40장 가운데 전용갑이 붉은색 볼펜으로 ‘○’표를 한 사진은 향성사의 탑, 신흥사전경, 귀면암, 비전대, 양폭, 천당폭포, 권금성 케이블카, 금강굴, 금강문, 선녀봉의 웅자,

25) 이은상,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년 5쪽, 머리말은 1966년 10월 3일 개천절에 노산 이은상이 썼다.

26) 임경선, 「그 시절 설악에는 무슨 일이,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지역이야기⑥」, 『설악신문』 905호, 2009. 5. 4 14쪽

백담사의 전경, 한계령의 108계단, 12선녀탕, 백담산장, 속초항 출어, 영랑호, 속초시 전경, 전설이 깃든 하조대 등으로 19장이다.

따라서 최구현이 촬영한 사진은 노루목 고개, 신흥사 부도, 울산암, 흔들바위, 높이 솟은 미륵봉의 웅자, 천불동계곡, 천화대, 진태봉의 운해, 비룡교,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장수대, 대승폭포, 속초항의 일출, 명태덕장, 속초해수욕장, 옥색옥녀탕, 의상대, 낙산사, 흥련암, 낙산해수욕장 등 21장이다. 1970년대 속초의 사진작가로 최구현과 전용갑이 활약했으며 황호근의 책자에 수록된 사진도 함께 작업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황호근과 양권일은 설악산의 팔기팔경을 정리하였다. “설악산에는 기괴한 점이 많은 산이라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그 이치를 생각해도 풀 수 없는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조화로 이루어졌는지 천만년의 비밀이 간직된 채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 기괴한 점을 양권일 선생과 함께 해석하고 정리하니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나 되므로 여기에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설악산의 풍경 가운데 특히 손꼽을 수 있는 풍경 가운데 유독 팔경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풍경조성에 절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다. 필자는 양권일 선생과 며칠을 두고 옛 선인들의 시구나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이다”라 하였다.²⁷⁾

설악산의 팔기는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기괴한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생각하던 신기한 것이라 하였고, 설악산의 팔경은 여덟 가지 좋은 풍경의 말한 것이라 하였다. 필자가 팔기와 팔경 내용을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악산의 팔기(八奇)

- ① 천후지동(天吼地動): 여름철 비올 때 하늘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듯 지축이 흔들리는 것

27) 黃近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59~65쪽

- ② 거암동석(巨巖動石): 큰 집 채만한 바위가 쉽게 움직이는 설악산 흔들바위의 신기한 것
- ③ 전석동혈(轉石洞穴): 계조암같이 바위가 바위와 서로 맞대어 자연굴을 만든 기이한 것
- ④ 백두구혈(百斗甌穴): 내설악 외가평에서 백담사 구혈은 콩 백말을 담은 구멍으로 기괴한 것
- ⑤ 수직절리(垂直節理): 천불동 골짜기 봉우리가 수직으로 갈라져서 온갖 형상을 하는 기이한 것
- ⑥ 유다탕폭(有多盪瀑): 설악산에 탕이 많은데 모든 물체가 탕에 빠지면 탕벽에 붙는 기이한 것
- ⑦ 금강유혈(金剛有穴): 미륵봉의 금강굴과 같이 큰 석산에 큰 구멍이 뚫린 신기롭고 기이한 것
- ⑧ 동계지설(冬季遲雪): 과거에는 늦가을부터 눈이 내렸지만 이제는 정월이나 2월에 내리는 것

○ 설악산의 팔경(八景)

- ① 용비승천(龍飛昇天): 설악산 폭포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
- ② 운악무해(雲嶽霧海): 여름철 봉우리마다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모습
- ③ 칠색유홍(七色有虹): 폭포에서 생기는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일곱 색 무지가 펼쳐진 모습
- ④ 개화설경(開花雪景): 겨울산이 눈꽃으로 덮이는데 나무와 기암절벽의 눈꽃들이 묘경을 이룬 모습
- ⑤ 홍해황엽(紅海黃葉): 가을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수를 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모습
- ⑥ 춘만척족(春滿躑躅): 봄의 대청봉에는 철쭉과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온 산에 가득하여 아름다운 모습
- ⑦ 월야선봉(月夜仙峰): 가을 밤하늘이 밝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 괴봉들의 선녀 같은 모습
- ⑧ 만산향훈(滿山香薰): 봄에 눈향나무가 피어 그 향기가 바람 따라 온 산에 가득하여 향기에 취한 모습

설악산 팔경은 이처럼 사람들이 계절과 자연을 탐닉하며 그 경관을 읊은 것으로, 천지수(天·地·水) 삼원(三元)과 오행의 절경을 합친 도교적인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이다. 따라서 그 팔경은 원경(元景) 시경(始景) 현경(玄景) 영경(靈景) 진경(眞景) 명경(明景) 통경(洞景) 청경(淸景)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²⁸⁾ 이에 따라 1973년에 간행된 설악산 책자는 필자인 황호근과 책을 쓰도록 독려한 속초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사진작가 최구현과 전용갑이 공동으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악만이 갖는 팔기와 팔경을 골라낸 것도 선각자의 혜안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설악을 찾은 것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듯하다. 이미 이름난 금강과 유일하게 우위를 논할 수 있는 설악산을 가기 위해, 평평한 길에서는 말도 타고, 가마도 타고 가다가 험한 돌길이 나오면 신발을 챙겨서 걸었다. 그렇게 다녀온 설악에 대한 감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설악을 찾는 이들에게 그 감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려한 문체로 한문기행수필을 남겼다. 다행스럽게 그들의 문집에 담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다.

III.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개관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1705)

김창흡(金昌翕:1653~1722) 선생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낙송자(洛誦子),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의 둘째 아들로 이단상(李端相)에게 배웠다. 1673(현종 14)년에 진사가 되었고, 1684년 장악원주부에 임명되었

28)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189쪽

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1689(숙종 15)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珍島)의 유배지에서 죽자 형 창집, 창협과 함께 영평(永平)에 숨어 살았다. 1721년 집의, 다음해 세제시강원진선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성리학에 뛰어나 형과 함께 율곡 이후 대학자라 칭했는데, 신임사화로 형이 유배지에서 죽자 크게 상심하였고 지병이 악화되어 그 해에 죽었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양주의 석실서원, 울진의 신계사, 강릉의 호해정 영당 등에 재향되었다. 문집에 『삼연집』, 저서에 『심양일기』, 『문취』, 편서에 『안동김씨세보』가 있다.

25세 때 처음 설악산과 만났던 삼연의 만년기는 설악산 은거기간으로 54세부터 59세까지 만 5년이다. 벽운정사에 거처하다 1708년 화재가 나자 1709년 다시 영시암(永矢菴)을 짓고 머물렀다. 삼연은 설악에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비선대 시 한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瓊臺俯金潭(경대 같은 맑은 물 굽어보니)
右扇排青峰(부채 같은 청봉이 그 곳에 펼쳐졌네)
融時備衆妙(이곳이 생길 때에 묘리(妙理)를 갖추었던가)
豈惟勢奇壯(그 세(勢)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²⁹⁾

삼연은 열 가지의 즐거움을 논했는데 그 가운데 ‘산천을 두루 돌아 말과 종도 지쳤지만 안장에 걸터앉아 길가며 읊은 게 작품이 되어 한 주머니 가득할 때(경력산천 마돈복태 거안행음 유작성낭(經歷山川 馬頓僕怠 據鞍行吟 有作成囊))’ ‘세모의 산속 절에서 눈보라 훑날릴 때 밤은 춥고 스님을 잠들어 혼자 앉아 책을 읽을 때(애사세모 풍선교산 야한쾌안 고좌독서(崖寺歲暮 風霰交山 夜寒僧眠 孤坐讀書))’가 들어 있다.³⁰⁾

29) 崔承洵, 『太白의 詩文』, 江原文化叢書 11, 강원일보사, 1977, 155쪽 “그는 비선대의 맑은 물을 굽어보고 그 물에 잠긴 奇壯한 경관을 본 것이 아니라 물밑에 잠겨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우주의 묘리를 한데 모으려는 것도 기발한 상이거니와 낙구에 여운을 남겨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은 더욱 이곳의 경승도 살렸고 문장의 운치도 더하였다.”

30) 『三淵集』拾遺卷之 24, ‘藝園十趣’
설악을 주유(周遊)하며 시 쓰고 홀로 글 읽던 설악산 시인의 삼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속초시 노학동 동사무소 앞 길가에는 1982년 속초문화원에서 세운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가 있다. 비문내용에는 “그의 가문이 권문세가였기에 당쟁의 상처도 컸다. 장희빈과 얽힌 기사환국에 부는 송시열과 함께 사사(賜死)되고 중백부(仲伯父) 또한 적소에서 죽는 등으로 처참한 가난(家難)을 당하였다.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시인이었던 삼연 선생은 끔찍한 환해풍파가 싫어 내설악에 들어와 영시암을 어리다 물소리 술바람으로 흥락을 씻으면서도 문득 외설악의 웅자와 동해의 창파가 그리우면 속초에 자주 와서 향사들과 어울려 시회주를 즐겼다. 삼연이 간지 사반천여년 산천은 변하였으나 그 정이 그리워 그의 비폭층담과 소야팔경을 새겨두고 그를 추념코자 한다.”고 적었다.

김창흡이 지었다는 소야팔경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척산, 노리를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소야 뜰의 경관을 노래한 것으로 청호마경(靑湖磨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온정조하(溫井朝霞), 논산조양(論山朝陽), 청대화병(靑垞畫屏), 노동명월(蘆洞明月), 이동백설(梨洞白雪), 도원홍우(桃源紅雨), 척산야침(尺山夜砧) 등이다.³¹⁾ 『삼연집』은 72권 36책으로 삼연은 5천여수의 시를 남겼다. 삼연의 기행문 「설악일기」는 1705년 8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록한 내용이다.

2. 홍태유의 「유설악기(游雪岳記)」, (1705)

홍태유(洪泰猷:1672~1715) 선생은 조선 숙종 때의 성리학자로서 본관은 남양, 자는 백형(伯亨), 호는 내재(耐齋)다. 주부(主簿)벼슬을 했던 홍치상(洪致祥)의 아들로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화를 당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과 저술에만 힘을 썼다. 문학재능이 뛰어난 문장은

31) 「道川面 面勢一覽」大正十五年度, 1926 '所野八景 起源'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도천면 통치자료이나 당시의 문화재나 고적, 명소전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익훈 전 교장님이 소장하신 자료를 빌려 필자가 쓴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에 영인 수록하였다. 면세일람이 나올 당시 도천면 기성회회장은 박상희였다. 그는 이후 1929년부터 12년간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 인물 사」, 마음살림, 2009, 163 '속초번영의 주역, 속초읍장 박상희'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 시는 두보(杜甫)를 본받았다고 한다. 영조 때 지평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인심(仁心)을 바탕으로 한 덕정(德政)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시문집으로 『내재집(耐齋集)』 5권이 있다. 시는 평담전아(平淡典雅)하였으며 시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송나라 사람의 시를 좋아하다가 두보의 시에 침장하였고 만년에는 당나라 시인 귀잠과 잠삼의 시체를 좋아했다. 삼연 김창흡이 그를 크게 칭찬할 정도로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내재는 경기도 여주의 이호(梨湖)에 ‘내재’라는 집을 짓고 살았으며 1705(숙종35)년 설악산, 한계사 일대를 유람했다. 저자는 가문의 불행을 겪은 뒤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산천유람을 즐겼으며 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44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남에 따라 미처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지 못했다. 1715년에 기세한 후 아들들이 초고를 바탕으로 유문을 수집 편차한 뒤 당대의 명인들에게 보였는데 먼저 김창흡의 산정(刪定)을 받고 다음에 이병연, 이덕수에게 산정 받아 5권 3책의 책자를 간행하였다.

책자의 간행은 1730(영조6)년 저자의 종숙부이자 당시 영의정 홍치중의 도움을 받아 운각활자로 냈으며 이선현과 이덕수가 서문을 썼다. 이후 1754년 아들 홍익삼이 경주 부윤에 제수되자 저자에게 이조참판이 추증된 뒤 문집이 다시 발간되었다. 아들 홍익삼은 운각활자로 문집을 초간한 후 부록문자를 구성하는 등 중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저자의 재종제 홍진유가 지은 유사에다 홍익삼이 1754년 추증사실을 추기하였고, 1747년 경 윤봉조에게 행장을 받고 이제가 지은 묘갈명에 윤심형의 추기를 받고 1739년경 이덕수에게 묘지명을 받았다. 이 중간본은 홍익삼이 경주부윤으로 있던 1754년과 이듬해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하는 규장각 중간본 원본은 1755년경 목판이다. 『내재집』 권1~2는 시로서 220여수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고, 권3은 서(書) 서(序), 권4는 기(記) 제후(題後) 잡저(雜著) 권5는 논(論) 묘지(墓誌) 행장(行狀) 애사(哀辭) 제문(祭文), 부록은 유사 행장 묘갈명 묘지명이다. 「유설악기(遊雪嶽記)」는 『내재집』

권4에 수록되어 있다.

홍태유의 설악산 기행은 인제현에서 동북쪽의 삼차령을 넘고, 곡백담 하류, 난계역을 거쳐 곡백담에 이르렀다. 봉정암을 보았고 유홍굴의 오른쪽으로 들어가 십이폭동과 폐문암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30리를 더 들어가 심원사와 삼연정사의 직서루를 거쳐 유홍굴에 도달했다. 거기서부터 돌길을 힘들게 올라 십이폭동을 보고, 남쪽 절벽을 타고 봉정암에 이르렀다. 폐문암 오른쪽으로 고개를 넘어 오세암에 이르렀다.

홍태유는 이렇게 인제지역의 내설악 명승을 돌아봤는데, 유홍굴에 대해서는 울곡 이이가 과거시험의 시관을 있을 때, 급제자로 뽑았던 유홍(유홍:1524~1594)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언급하였다. 유홍은 1557년에 강원도 암행어사를 역임했고 임진왜란 때에는 강원도와 함경도로 세자를 시종하였고 도체찰사를 맡았으므로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홍태유는 이처럼 설악을 아껴서 친우들에게 자랑하고, 절경을 찾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행문을 썼던 것이다.

3. 이정소의 「유설악록(遊雪岳錄)」, (1733)

이정소(李廷燾:1674~1736)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여장(汝章), 호는 춘파(春坡)이며 강화출신이다. 좌랑 상휴의 아들로 1696년 진사가 되고 1714(숙종 40)년 증광시 갑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715(숙종 41)년 식년시 을과에 장원하였다. 노론으로 벼슬은 지평과 정언에 올랐다. 1721년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의 후손이 없자 노론의 4대신과 함께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소론파의 항소와 신임사화가 일어나 영해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 연잉군이 영조로 즉위하자 풀려나와 승지,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문집으로 필사본인 『춘파만록(春坡漫錄)』이 있다. 이 책은 동유록, 후동유록, 유설악록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유설악록은 외설악기행문으로 와선대, 비선대, 금강봉, 계조암, 천후산 등이 언급되었다.

4.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1753)

이복원(李福源:1719~1729) 선생은 조선후기 학자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연안, 호는 쌍계(雙溪), 자는 수지(綏之),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6대조는 대제학 월사 이정구, 5대조는 대제학 백주 이명한, 고조부는 이만상으로 3대 대제학으로 유명한 대제학 청호 이일상의 셋째 아우다. 증조부는 군수 이봉조, 조부는 관찰사 이정신, 아버지는 예조판서 이철보(李喆輔), 어머니는 예산현감 박필순의 따님이며, 아들은 영의정 이시수(李時秀)와 대제학을 역임한 극옹(屨翁) 이만수(李晩秀)를 둔 명문가다.

쌍계 이복원은 1738(영조 14)년 사마시, 1754(영조 30)년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대사간, 대사헌, 1772년 대제학, 1775년 형조판서를 거쳐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1780(정조 4)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형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판중추부사, 원자보양관, 세자부, 영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1783년에는 문안사, 1790년에는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문장에 능하여 영조의 시책문을 짓고 정조가 『명의록』을 지을 때 찬집당상을 맡았으며, 왕실의 『쟁쟁록』 편찬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일성록』, 『대전회통』의 서문을 썼다. 저서로 『천령향함이지락(千齡享含飴之樂)』, 『쌍계유고(雙溪遺稿)』가 있다. 관직에 있는 동안 몸가짐에 엄격하여 마치 벼슬이 없는 선비처럼 포의를 걸치고 근신하는 생활로 일생을 보내 유상(儒相)이라 불렸다. 문형이 된 후에 정조 임금의 자신이 세운 규장각의 문헌편찬 작업과 왕실의 기록을 전적으로 맡겼으며 “마음속에 쌓인 덕망이 밖으로 맑게 비치니, 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진 재상이로다.”라고 말했다. 또한 쌍계의 죽음을 맞이하고 쓴 사제문(賜祭文)에서 정조는 “몸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사람들로부터는 시비가 없었고, 항상 맑고 검소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견고하였도다.”라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를 ‘포의(布衣)의 대제학’이라 일컬었으며, 집안은 국조문원가(國朝文苑家)라 하였다.

신흥사에는 영조 때 신흥사를 증창한 용암체조(龍岩體照)대사의 용암 대선사비가 있는데, 당시 좌의정을 지낸 쌍계가 비문을 짓고 표암 강세황이 글씨를 썼다. 20세에 첫째 부인인 과평윤 씨를 잃고 재취한 순흥안 씨 부인과 18년을 살았지만 둘째 부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고 쓴 제문은 조선 선비가 아내를 잃고 애통한 심사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마치 흩날리는 꽃잎이나 버들강아지와도 같아 정처 없이 흩어지고 떨어지니 그 사이에 한번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수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내 할 일을 다 했는지 생각하면 유감이 있구려. 이것이 내가 못내 후회하고 한스러워, 시간이 흘러도 그 한이 풀리지 않는 이유라오”라고 슬퍼하였다.

쌍계가 강원도 양구현감 재임시기인 1753(영조29)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양구 관아에서 출발하여 수렴동을 거쳐 쌍폭, 봉정암, 가야동굴, 오세암, 영시암 등을 유람하고 양구현 관아로 돌아온 내설악 기행문이다. 매월당 김시습과 오세암에 대한 언급과 주지 설정과의 대화가 들어 있으며 영시암과 삼연거사에 대한 기록도 하여 설악과 매월, 삼연의 인연을 중시하였다. 기행문의 끝에는 양구현의 가뭄으로 인해 보리들이 말라 시들고 근심스런 안색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어진 목민관의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기행문은 『쌍계유고(雙溪遺稿)』제10권에 수록된 것으로 장편에 속한다.

5.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1779)

정범조(丁範祖:1723~1801)는 조선후기의 남인계 문신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정시한(丁時翰:1625~1707)의 현손이자,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친척이다. 37세인 1759년 진사시에, 1763(영조39)년 증광문과에 갑과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고, 1768년 지평·정언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773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1776년인 56세 풍기군수와 공

조참의를 거쳐 1778년 병조참의 동년 7월에 양양부사를 제수 받아 8월에 부임하였다. 당시는 대흥년이라 양양주민이 새로 경작한 밭의 세금과 어민의 봉납을 면제하였다.

양양부사에 재직하면서 이듬해인 1779년 3월 설악산을 유람하고 「설악기(雪岳記)」를 썼으며 4월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1785(정조9)년 이후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한성부우윤, 대사헌, 개성부유수,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거쳐 1799년에 예문관제학, 1800(순조즉위)년 실록지사로서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문집에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이 전한다. 1867년에 간행한 『해좌집(海左集)』 39권 19책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설악기(雪岳記)」는 권23 기(記)에 들어 있다.

『해좌집(海左集)』 권6과 권7에는 양양 낙산사, 현산요, 동해묘, 낙산사, 의상대, 관음굴, 죽도, 영랑호, 선유담, 청간정, 신흥사, 비선대, 천후산, 계조암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정범조는 시와 문장에 뛰어나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정조가 당대 문학의 제일인자로 평가할 정도였으며 시풍은 풍아화평(風雅和平)하였고, 각지 명승고적에 대한 감회를 적은 것이 많다. 이덕무가 『청비록』에서 평한 것과 같이 정범조는 석북 신광수와 이름을 나란히 한 작가로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작품을 썼다고 평한다.³²⁾

정범조는 조선 정조연간에 여러 관직을 거치며 남인을 이끌었는데 1794년 지돈녕부사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796년 친척인 정약용이 원주 법천동 우담에 ‘청시야(淸時野)’라는 초당을 찾았다. 현계산 탄천의 우담에 살던 정범조는 ‘맑은 세상이기애 초야에서 늙으려 한다는 뜻’을 담아 초당을 지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청시야초당기(淸時野草堂記)」에서 “공이 처신하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대개 마음에 스스로 얻은 것이 있어 그런 것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초야에 묻혀 사는 것

32)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326쪽

도 도가 있으니, 맑은 시대가 아니면 초야에 묻혀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IV.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내용과 일정

설악기행문 5편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외설악 기행문인 이정소의 『유설악록(遊雪岳錄)』(1733)과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1779) 등 두 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³⁾ 이외의 기행문은 수집 되는대로 추후에 보충하여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이정소, 『춘파만록(春坡漫錄)』, 『유설악록(遊雪岳錄)』, (1733)

〈내용〉9월 11일 재미일 맑음. 양양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간성군수 조탁(趙擇)이 영공(令公)을 겸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14일 모임이 있으므로 설악산의 완연한 가을 경치도 볼 욕심에 진사 민태수(閔台叟)와 동행하여 길을 나서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산관(洞山館)에서 묵었다. 12(갑신)일 맑음, 상운역을 떠나 양양부에 들러 승지 이휘진의 애려(哀廬:상을 당한 사람의 임시거처)에 들러 만나고 저녁에 낙산사에서 묵었다. 13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태수와 함께 이화정에 나와 앉아 멀리 대해의 동쪽을 바라보니, 한줄기 붉은 오색구름이 가로로 퍼져 언덕을 잠깐 비추고 흩어지더니, 커다란 태양이 날아올라 만 가닥 금빛을 위아래로 쏘아 비추니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곳을 유람하러 온 관리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

33) 이정소 지음, 임영란 옮김 『유설악록(遊雪岳錄)』,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14~17쪽
정범조 지음, 심경호 옮김 『설악기(雪岳記)』,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96~306쪽

러한 장관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기가 청명한 것이 신의 도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아침을 먹은 후 출발하여 바닷가를 따라 10여리를 가서 강선 역에 도달하고 또 20여리를 가서 신흥사(新興寺) 동구에 도착하니 신흥사에 기거하는 스님 여덟아홉 명이 절에서 나와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관사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 큰 내를 건너니, 지나치는 양쪽 가로 석봉들이 빼어나게 나와 층을 이룬 것이 신기하고 꺾이하여 가히 장관이다. 남쪽을 보니 한 줄기 폭포가 모든 봉우리의 머리처럼 하늘에 걸려 마치 필련(匹練:하얗게 바랜 한 필의 백포)처럼 아래를 드리우고 있다. 여름에는 이 두 폭포의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고 물길의 모양은 눈과 같은데, 지금은 물 떨어지는 것이 졸졸 흐르기를 면치 못한다고 스님이 말한다.

향성사(香聲寺) 옛 터를 지나니 5층탑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옛날 큰 사찰의 폐허인데 기 백여 년이 된 것”이라 하였다. 산세가 부드럽고 수목이 울창한 길을 따라 사찰누각에 이르니 누각의 곁이 쇠락하고 편액이 남아 스러져 망가져 있고 주목 또한 다행을 면치 못하였다. 늙은 스님 10여명이 와서 둘러앉았는데 내가 “설악 한 자락에도 많은 명승이 있군요.”라고 말하였다. 대개 나의 말에 덧붙여 말하였는데 이 절의 북쪽에는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아래에 석굴이 있고 그 석굴에는 계조암(繼祖庵)이 있다 한다. 이 절의 남쪽에는 식당암(食堂岩)이 있고 그 바위 아래가 와선대(臥仙臺)이고 그 위가 비선대(飛仙臺)인데, 만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견여(肩輿:두 사람이 어깨에 메는 가마)가 앞서 식당암을 향해 나아가니 구불구불 구비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발길마다 하얀 돌이 밟힌다. 또 한 골짜기를 넘으니 좌우에 단풍나무 숲의 붉고 푸른빛 사이로 햇빛이 파고 든다.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고 푸른계곡은 곧게 뻗어 와선대에 이어 있다. 와선대의 반석은 평평한 것이 위 아래로 층을 이루고 있다. 산의 바위는 대개 그 이름에 연유가 있게 마련인데 이곳은 근년에 세 글자가 새겨진 것이다.

나와 스님 일행이 바위 위에 둘러앉아 산에서 나온 과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산중의 별미를 맛보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멀리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일어나 또 수 십 보를 나아가며 더위잡고 땀 흘리며 기어올라 비선대에 이르렀다. 용맹스럽고 장대하게 구름 기둥처럼 양쪽 언덕에 서 있는 금강봉(金剛峰)은 하늘 밖까지 이를 듯 뻗어져 나온 것이, 옛날 이백의 시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서쪽에 있는 폭포의 물은 양쪽 봉우리 사이로 쏟아져 떨어지며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듯 한 소리를 내며 남쪽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 원류로 물의 기세가 웅장하니 이 서쪽 폭포가 더욱 기이하다. 남으로 보이는 여러 봉우리는 숲이 울창하고 깊으며 빼어나 숲 골짜기가 더욱 깊어 보이고 첩첩산중을 이루었는데, 스님이 이르길 “옛날 신라 말, 권씨와 김씨 두 성씨가 세속을 피해 이곳에서 머물렀던 까닭에 권금성(權金城)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말하였다.

가마를 돌려 천후산을 향하니 커다란 바위가 마치 돌부채처럼 하늘 높이 눈빛으로 하얗게 치솟아 있고 향기를 피우는 성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으니, 이곳이 가히 모든 금강의 경치 중 백미라 하겠다. 험난한 돌길을 열 걸음 걸어 아홉 꼭대기에 겨우 도착하니 아래에는 용암(龍岩)이 있고, 양안에 두 가닥나무로 다리를 놓아 가까스로 지팡이를 짚고 건너니 석문이 보이는데, 두 바위 사이에 기거하는 스님이 한 명 있어 앞서 나를 인도하여 굴 안으로 들어가니, 굴 안에 세 칸 남짓 계조암이 들어 앉아 있고, 암굴 위의 석문 밖에는 정암(庭岩)이 있는데 바위의 반쯤 높이의 용암에는 사람 오십 명은 죽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위의 단상에는 어른 키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 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다. 스님 말이 “원래 이 돌은 두 개였는데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고 한다. 굴 밖 서쪽 바위틈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 민태수와 함께 바위 위에 앉아 사면을 둘러보니 향로봉이 보이고, 그 남쪽에는 달마봉이 있고, 그 동쪽에는 남국사봉이 있고, 그 남쪽에는 천후산이 있고, 그 북쪽

으로 수려하고 준수하고 빼어난 나라의 명승들이 늘어섰다. 달마봉으로부터 천후산의 사이를 넘어 보이는 만리 창해는 그 광대한 모습이 그 옛날 소동파가 시로 읊었던 소위 '질풍 같은 세상에 홀로 선 깃털 같은 존재니 신전에 이르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였던 것과 같다.

절에 있는 스님 여럿이 와서 아되는데 그들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대사(頤大師)는 나와 동갑인데 매우 총명하고 도리를 알며 경문에 능하고 시율(詩律)이 빼어나니 그 실력이 가히 한문공(한유)을 능가할 정도이다. 석양은 산 위에 걸쳐 있고 새로 나온 달이 신흥사 위에 떠올라, 나와 이대사는 나란히 침상에 누웠다. 아침 동틀 무렵 가마가 양양부에 도착하고 군수가 이미 와 앉아 있어 동행하여 돌아왔으니 설악을 유람한 것은 단지 하루뿐이었다. 이를 글로써 기록하여둔다.

〈 일정 〉 춘파 이정소는 1733년 9월 11일 가을 경치를 보기 위해 양양에서 진사 민태수와 함께 설악 구경을 나섰다.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산관에서 묵었다. 12일 상운역을 떠나 낙산사에 묵은 다음날 13일부터 강선역을 거쳐 신흥사에 입구에 도착하였고, 이어 옛 향성사터의 5층탑을 보고, 식당암, 와선대, 비선대에 당도했다. 여기서 사방의 금강봉, 천후산, 향로봉, 달마봉, 국사봉 등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금강굴이라 부르는 금강봉에 대해서도 용맹스럽고 장대하다고 하였다. 휴식을 취한 후 일행은 가마를 돌려 내려와 돌부채처럼 생겼다고 한 천후산인 울산바위 아래 세 칸 남짓의 바위굴인 계조암을 보고, 흔들바위 등을 차례로 바쁘게 돌아보았다.

이정소의 전체 일정은 3일이 소요되었으나 설악기행은 하루만의 기록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권금성에 대한 전설이다. 권금성은 신라 말 권씨와 김씨가 이곳에 머물러서 불렀다고 하였으며 또한 흥미로운 것으로 어른 키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 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계조암 앞의 흔들바위를 지칭하는데 원래 이 돌은

두 개였으나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는 승려의 언급도 적었다. 굴 밖 서쪽 바위틈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정소의 일정은 지금도 외설악을 즐겨 찾는 비교적 단거리의 관광코스다. 270여 년 전 조선 선비가 걸었던 그 길을 가벼운 마음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신흥사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면 와선대와 비선대가 나타나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계조암과 울산바위가 그 모습 그대로 장관을 이룬다. 세월은 가고 인물이 떠나도 절경은 여전하다.

2. 정범조 『해좌집』, 권23, 記, 〈설악기, 1778〉

〈내용〉 1778(정조2)년 가을, 내가 양양의 임소로 가다가 북쪽으로 설악을 바라보니, 구름 가에 우뚝하여 아주 장대하였으나, 관리의 일정이 촉박하여 가서 놀 수가 없었다. 다음해 3월 상운(祥雲)의 승(丞) 장현경(張顯慶) 사옹(士膺), 고을의 선비 채재하 군과 약조하여 함께 출발하였다. 그리고 척질 신평도, 사위 유맹환, 아들 약형이 따랐다.

17(신축)일 신흥사에서 묵었다. 절의 주위에 천후(天吼) 달마(達摩) 토왕(土王)의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서 있다. 설악의 바깥 산들이다. 18(임인)일에 신흥사 승려 홍운에게 견여를 인도하게 해서 북쪽으로 비선동(飛仙洞)을 거쳐 들어갔다. 봉우리 모습과 물소리가 이미 정신과 혼백을 맑게 해준다. 고개를 올려 바라보니 깎아 세운 듯 절벽이 수백 심(尋)의 길이다. 견여를 내려서 오르는데, 벽은 모두 돌계단이다. 한 계단마다 한 번씩 숨을 몰아쉬면서 올랐다. 장사옹을 돌아보니 아직 아래쪽 계단에 있다. 그는 따라갈 수 없다고 절레절레한다. 마척령(馬脊嶺)을 오를 때 홀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안개와 비가 내려서, 사방이 다 막힌 듯 캄캄하였다. 홍운 승려는 “이것이 중 설악입니다. 날이 개면 설악 전체가 보일 겁니다.”라고 하였다.

어스름에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에서 옹위

하고 있으면서 삼엽하여 사람을 치려는 듯하다. 중간에 토혈이 뚫려 있어, 고즈넉하게 암자를 하나 들여 넣고 있다. 매월당 김시습이 일찍이 은둔한 곳이다. 암자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있는데, 매월당을 유학자로서 그려둔 형상과 불자로서 그려둔 형상이다. 나는 배회하며 추모하면서 서글픈 느낌에 사로잡혔다. 공은 스스로 오세동자라 하였으므로 이 암자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19(계묘)일에 왼쪽 기슭을 넘어 아래로 내려오다가, 길을 꺾어 오른쪽으로 향하여 큰 골짜기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산봉우리의 형세가 마척령보다 더 험준하다. 밧줄로 끌고 앞장 서서 가면, 뒤에서 미는 사람이 꼬옥 들러 붙어 10리를 간 후에 사자봉의 절정에 올랐다. 이것이 상 설악이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 있는 듯하고 연꽃이 핀 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솥 같고 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짜기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며, 질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놓은 듯한 빛깔이다. 사자봉의 동쪽은 조금 굽어 흘러가는 형세이다. 암자가 있어서 봉정(鳳頂)이라 한다. 전하는 말에 고승 봉정이 상주하였다고 한다. 사자봉 부터 아래로 내려가 벼랑을 따라 남쪽으로 갔는데, 벼랑이 좁아 가까스로 발을 디딜 정도였다. 발을 내디디는 곳은 낙엽이 쌓이고 바위가 무너져 있고 나무가 가로누워 있어서 별별 떨어져 건너갈 수가 없다. 왼편 오른편 산들은 모두 기이한 봉우리들로, 수목의 숲 위로 불쭉불쭉 솟아나 있다.

물은 뒤쪽 산에서부터 나와 골짜기를 두루 덮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골짜기는 모두 돌이어서, 맑고 밝기가 마치 눈과 같다. 그 위로 물이 덮어 흐른다. 바위가 었드려 있다가 솟아나고 움푹 파였다가 불룩 튀어나고 좁았다가 넓어지고는 하는데, 그 형세는 모두 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대개 폭포를 이룬 것이 열서너 개인데, 쌍폭이 특히 기이하다. 못을 이루고 보를 이루고 만류(漫流:홍건한 물이름)를 이룬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수렴(水簾)이라 일컫는 것이 가장 기이하다. 이런 것을 종일 보다가 영시암에 들어갔다. 이 암자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이름

지는 것으로, 그가 일찍이 이곳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봉우리와 골짜기 그
윽하고도 기이하며, 흙이 있어서 작물을 심을 수가 있다. 아름다운 수풀과
무성한 나무들이 많고 밤새도록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20(갑진)일에 물을 건너서 남쪽 골짜기 속으로 갔다. 계곡의 시내는 나무
와 바위가 뽀족뽀족 솟아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다. 조금 올라가자 바
위가 모두 흰색이더니, 홀연 보랏빛 붉은빛으로 변하여 수면에 너른하게
그 빛이 서린다. 왼쪽에는 석벽이 감벽의 색으로 서있고 물이 그 가운데로
갈라져 나오며 쏟아져서는 팔팔 소리를 냈다. 앞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아
주 험준하다. 견여에 찰싹 엮으려서 올라갔다. 좌측 기슭을 따라서 아래로
백 걸음을 내려가자 앞에 석벽이 수십 심(尋:1심은 8척)의 높이로 우뚝 서
서 마주한다. 색은 깨끗한 푸른빛이다.

폭포가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나는 듯이 쏟아져 내려, 영롱하기가 흰
무지개와 같았다. 바람이 잠깐 잡아채자 가운데가 끊어져서 아지랑이며
눈이 되어, 가볍게 훌훌 날려 허공에 가득하게 되고 남은 물보라가 때때로
웃으로 날려 들어왔다. 종자에게 피리를 불게 하여 폭포소리와 서로 응답
하게 하니, 맑고 명랑한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렸다. 이것이 바로 한계(寒溪)
폭포이다. 내가 흥운에게 “이런 것이 또 있는가?”물었더니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풍악(금강산)의 구룡폭포보다도 훨씬 장관이다. 동남방은 숲과 골
짜기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五色嶺)인데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
증에 좋다고 한다. 수석이 많아서, 바라보니 그윽하고 괴이하였으나, 날이
늦어 끝까지 가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넘어 돌아와 백담사(百潭寺)에 이
르러 묵었다.

21(을사)일에 북쪽으로 가서 비선동(飛仙洞) 뒷산을 따라 내려갔다. 산
이 허공에 매달린 듯 급하다. 바위가 온통 뒤엎히고 구멍이 많아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곧바로 자빠져서 죽을 것만 같다. 남쪽으로 마척령 등 여러
봉우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라보노라니, 하나하나 모두 구름 가
에 있다. 어떻게 나를 그 꼭대기에 올려두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
다. 신흥사(神興寺)에서 묵고, 22(병오)일에 돌아왔다.

〈 일정 〉 정범조의 「설악기행문」은 1778년 3월 17일 신흥사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21일 다시 신흥사에 돌아온 다음날 22일 마쳤다. 일행은 장현경, 채재하, 그리고 친척 등 5명, 신흥사 승려 홍운, 가마꾼들이 동행하였다. 따라서 10여명 정도가 함께 내설악을 돌아보았다. 그의 일정은 신흥사에서 오세암까지 40리, 오세암에서 사자봉까지 40리, 사자봉에서 영시암까지 40리, 영시암에서 한계령까지 30리, 한계령에서 백담사까지 30리, 백담사에서 신흥사까지 40리의 거리다. 전체 도보로 걸어서 돌아온 거리는 220리였으며 견여(肩輿)로는 단지 40리 정도만 갈 수 있다 하였다. 봉정암은 고승 봉정이 있었다 하고, 영시암은 삼연 김창흡이 지었다고 적었으며 수렴동을 절경으로 꼽았다. 오색령에는 약수인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증에 좋다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오색약수의 명성이 이어진다.

정범조는 사자봉을 최고로 쳤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있는 듯하고 연꽃이 핀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술 같고 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짜기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며, 질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 놓은듯 한 빛깔이다”라 하였다. 말년에 양양부사를 했던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 선생도 양양에 대한 글 한줄 남기지 못했으나, 정범조 양양부사는 설악기행을 남겨 후대의 귀감이 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은둔하는 처사의 풍모를 지녀서 사람들은 그를 ‘산야인(山野人)’라 불렀다고 전한다. 험난한 벼슬길에 지쳤지만 경치 좋은 설악산을 곁에 둔 양양부사가 되자, 서슴없이 설악을 찾은 것도 그의 타고난 성품이기도 했으며, 시를 좋아하고, 문장을 통해 고적을 소개하고 싶은 심미안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두 편의 설악산 기행문을 살펴보았다. 기행수필의 특성상 개인적 감상이 주류를 이루지만, 비교적 일정이나 명승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여 현재의 길라잡이로도 도움이 되는 글이다. 이정소의 외설악기행과 정범조의 내설악기행문은 내외설악에 대한 선비들의 사랑이 짙게 배어나오는 문장이다. 산중의 미인이라는 설악을 오래 깊이 사랑한 인물이 하나 둘이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 가운데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과 삼연 김창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태유, 이정소, 정범조, 김금원 등도 있다.

설악을 기록한 근현대인물로는 육당 최남선을 비롯하여 1930년대부터 설악을 누비고 신문에 소개한 노산 이은상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설악산 개발에 앞장섰거나 이를 사진으로 남긴 이달영, 이대성, 최구현, 유만석, 이기섭, 이기찬, 정형민, 이종우 씨 등이 떠오른다. 그리고 뒤를 이어 산악인 유창서, 사진가 성동규, 최낙민, 환경운동가 박그림 씨와 같이 설악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나의 부모는 평안도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였다. 당시 중앙시장 내의 평북여관 자리를 이기섭 박사에게 양도하고, 리어카에 우리를 태우고 1960년초 설악산으로 들어왔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 남겨진 사진을 보면 비선대, 계조암, 비룡폭포 등 흑백사진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영국왕실에서 지었다는 산장에서 뛰어놀았고, 틈만 나면 양폭산장으로 달려가 유만석 아저씨가 끓여주던 산당귀차도 마시고 구수한 전설도 들었다. 설악을 찾은 관광객에게 ‘여러분이 왔다 해서 와선대요 그런데 비가 와서 비선대다’라고 소개했다는 어떤 안내자의 설명도 대신 들려주었고, 설악산 이곳저곳의 바위이름과 전설도 지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설악산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창시자다. 반달가슴곰, 산양, 멧돼지, 산토끼, 하늘다람쥐, 솜다리꽃, 금강초롱, 열목어(곤돌매기), 여름치 이들은 나의 유년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처럼

항상 주위를 맴돌던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집 주위로 눈길을 뚫고 산양이 내려왔는데 며칠 대나무 잎을 뜯어다 주어 보살핀 후 서울동물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1978년 6월 설악동 기존지구 강제철거가 마무리되면서 1960년부터 살았던 그곳을 우리는 떠났다. 뿔뿔이 흩어진 친구처럼 설악에 대한 기억도 차츰 흐려져 갔다. 하지만 설악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에델바이스 솜다리꽃처럼 지금도 설악은 내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등허리에 우뚝 솟은 설악, 금강산과 제주도 관광 및 해외여행에 밀려나 명맥조차 잇기 힘든 설악관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독자적이며 창의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설악산만의 독창적 킬러콘텐츠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해야 한다. 심마니이야기, 울산바위와 권금성 이야기, 백담사이야기, 삼연과 매월당이야기, 설악의 비경과 유서 깊은 산악제의, 열목어,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등의 친자연과 친환경적 생태문화적 요소로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과 세계인의 감동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스위스라고 칭송하던 설악이 지금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내 걸음 방식으로 걷지 않고 남을 어설피게 흉내 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날로 쇠락해가는 설악관광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절여온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애기를 다시 꺼내야만 하고, 설악눈꽃축제도 부활해야 한다. 설악은 눈의 원조 산이며 신성한 정신적 영산이다. 또한 솜다리꽃으로 다시 된 고 이기섭 박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설악문화제를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선인들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들이 설악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설악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악권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에게 설악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설악기행을 다시 읽으면서 진교준의 <설악산 얘기>라

는 시를 다시 읊고 있다. “나는 산이 좋더라, 파란 하늘을 통째로 호흡하는, 나는 산이 좋더라,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나는 산이 좋더라, 영원한 휴식처럼 말이 없는, 나는 산이 좋더라, 꿈을 꾸는 듯 멀리 동해가 보이는,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

〈참고문헌〉

- 道川面 面勢一覽, 1926
 金迫東, 『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54
 李殷相, 『노산文選』, 永昌書館, 1958
 劉昌惇,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59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이은상, 『산찾아 몰따라』, 박영사, 1966
 『雪嶽山學術調査報告書』, 文教部 文化財管理局, 1967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張在憲 外, 『第一回 海外遠程 登攀訓練隊 雪嶽山遭難調査報告書』, 韓國山岳會, 1971
 秦敎俊, 『설악산 얘기』, 世紀出版社, 1972
 黃泓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손경석, 『한국의 산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李泰極·金永琪·李昇勳, 『太白의 詩文 上』, 江原日報社, 1977
 崔承洵, 『太白의 詩文 下』, 江原日報社, 1977
 崔喆 譯, 『東國山水記』, 德文出版社, 1977
 金在榮·金振, 『雪岳洞開發事業誌』, 江原道, 1981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雪嶽山學術調査報告書』, 江原道, 1984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成東奎, 『雪岳의 秘境』, 도서출판 이카데미서적, 1988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9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유창서 편, 『설악산 권금성산장 글 모음집』, 『바람이여 구름이여 설악이여』, 송암출판사, 199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손경석, 『설악산』, 대원사, 1993
 崔和秀, 『걸리紀行 雪嶽山』, 國際新聞, 1994
 함영덕 글 성동규 사진, 『설악의 물길 따라』, 백산출판사, 1995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海左集』, 瑞歌出版社, 1996
 鄭珉 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4』, 강원도편Ⅲ, 민창문화사, 1996
 임양재, 『한국의 자연탐험 설악산』,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문순화 외, 『설악산의 꽃』, 교학사, 1997
 『朝鮮時代 江原 女性 詩文集』, 강원도, 1998
 함영덕, 『정봉 가는 길』, 백산출판사, 1999

-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 박명희, 「조선후기 시론연구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흡을 중심으로」, 전남대박사논문, 1998
- 박그림, 『신양 똥을 먹는 사람』, 도서출판 명상, 2000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속초문화원, 2003
-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 蔡龍生, 「雪岳卷觀光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國家專門行政研修院 高位政策過程, 2004
-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학총서⑤』, 집문당, 2006
-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엄경선, 『설악에 핀 숨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8
-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속초문화 24호, 속초문화원, 2008
-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마음살림, 2009

2.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1. 머리말

명산 설악산 기행문은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설악산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 1920년대 영문으로 작성된 설악기행일기와 1960년대 국한문 혼용 설악동인계 문집을 찾아서 본고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자료는 나름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여러 장의 사진도 수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영남 지역주민들이 설악동인계를 조직하여 설악을 탐방하고 한시를 짓고 그것을 문집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도 다르고, 기술방식도 다르지만, 당시의 설악산 탐승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설악산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이 국적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한결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악은 팔기(八奇)와 팔경(八景)을 고루 갖추었고 다른 여타의 산과 달리 신성한 산이라는 이름으로 '솔뫼'로도 불렸다. 설악산 유산록은 조선시

대 김창흡의 설악일기(1705)를 비롯하여 홍태유의 유설악기(1705), 이정소의 유설악록(173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1753), 정범조의 설악기(1779) 등이 전하며 근대에 이르러 영국인 찰스헌트의 설악기행일기(1923), 이은상의 설악행각(1933), 설악동인계 시문집(1965), 이어문의 설악기행(1976), 이송녕의 명산 설악(1977) 등이 오늘날까지 설악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제, 설악산의 그 숨겨진 자태를 드러내어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의 여러 명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겠지만, 금강산에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설악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1920년대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1)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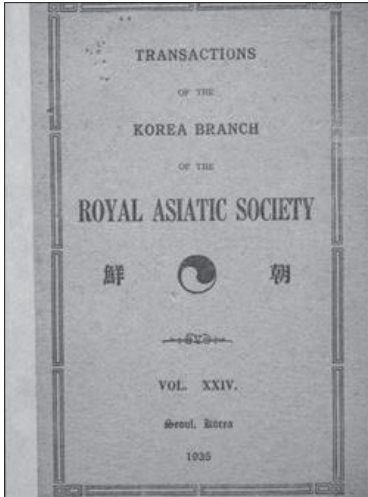
이 기행일기는 지금부터 90년 전 영국인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본격기행 수필문학 작품으로 평가된다. 1923년 찰스 헌트(Charles Hunt)가 쓴 이 글의 원제목은 (DIARY OF A TRIP TO SUL-AK SAN)이다. 1923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탐사한 설악산 경관을 9쪽 분량으로 기록하였으며, 신흥사, 건봉사, 오세암, 낙산사 등 흑백사진 9장을 수록한 사찰역사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설악권 지명을 영어, 한자, 한글, 한시문도 써놓는 등 외국인 수필로 연구가치가 높다. 예를 들면 ‘설악산’을 영어로 ‘The Sul-Ak Mountains’(雪嶽山, 설악산)로 표기하는 등 세심하게 기록하였다. 찰스 헌트는 영국인 선교사로서 설악권 불교사찰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록하였고, 설악산 마등령 등반길에서 절벽에 핀 에델바이스를 한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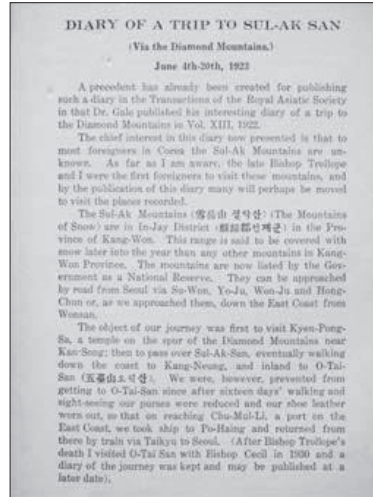
서 처음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악산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와 오세암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악권인 동해안 낙산사는 티벳과 달라이라마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설악산기행은 1934년 6월 4일 서울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정기연례회서 발표하였다. 1900년 창립된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발간, 『조선』제24호(1935년판)에 수록되었다.

2)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원문



『조선』 제24호 「설악기행일기」 표지



찰스헌트의 「설악일기」 영문

오전 9시 건봉사를 떠나 11시경 간성읍에 당도. 11시30분경 간성읍 출발, 해안을 따라 20리를 내내 철벽거리며 걸어서 오호리에 도착, 거기서 점심 먹고 3시에 다시 길을 떠나 20리를 걸어 새령 기슭의 행도원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여기서 숙박. 밤새 짙은 안개와 구름.

6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출발, 물기 머금은 구름 헤치고 해발 2,600

피트의 가파른 새령 길에 오르다. 막 피어나는 목련, 소합향(蘇合香, 대죽 나무속의 관목), 고광나무들 우거진 새령의 초목은 아름다웠다. 10시경 새령 정상에 당도. 새령 맞은 편 날씨는 무척 맑았다. 장회와 용대리를 지나 서울로 가는 길을 따라 가평으로 서서히 하산. 가평에서 점심 식사 후 왼쪽 방향으로 길을 잡아 백담 계곡을 향해 올라가는데 200야드 가량의 벼랑길에는 나무 말뚝이 박혀있었다. 25리를 올라 백담사 당도. 저녁에 또 다시 구름이 끼더니 밤중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났다. 사찰과 그 주변은 별로 볼 게 없었다. 최근에 개축된 것이라고 한다.

6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백담사 출발. 멋진 날이다. 아름다운 암자 영시암까지 곳곳에 연못(沼)이 자리한 그림 같은 골짜기를 지나다. 여든 살도 더 되어 보이는 노승이 홀로 거처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오르며 시내를 건너 원명암을 지나 1시경 오세암에 도착. 계곡에 '성모의 심장'(Coeur de Notre Dame)이 잔뜩 피어있는 걸 보았다.

오세암은 웅장한 해발 3,200피트의 원형 분지 속에 위치한 매력적인 암자인데 활력 넘치는 몇 명의 노승을 포함해 8~10명가량의 승려가 머물고 있다. 이층으로 된 오세암의 위층에는 불경 고전과 당나라 시인 두보의 전집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산과 산, 끝이 먼도날처럼 뽀족한 가파른 절벽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는 금강산의 마하연에서 보는 광경에 필적한다. 오세암의 기원은 오래전 다섯 살 난 아이가 여기 작은 암자에 주석하고 있던 한 승려가 원행을 나간 사이 이곳에 버려진 데에 기인한다. 심한 폭설 때문에 승려는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는 관음보살의 보살핌을 받았다. 노승이 돌아오자 관음보살은 파랑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다. 이곳은 1878년 재건되었다.

6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오세암 출발. 힘들게 암자 뒤편의 산등성이를 1,500피트나 올라 해발 4,700피트의 마등령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부터 무수한 절벽과 계곡을 넘어 멀리 동해바다까지 장엄한 자연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힘든 3시간의 산행. 바위 위에 핀 에텔바이스를 발견했다. 한국에서 본 최초의 에텔바이스다. 오후 1시 계곡 아래에 당도. (해발

약 1,500 피트) 그곳 작은 연못가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약 5리를 더 가 신흥사에 도착한 시간은 6시 무렵으로 우리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거울 같은 거대한 바위가 비치는 멋진 작은 못에서 목욕을 했다. 10~12명의 승려가 거처하고 있는 근사한 사찰 신흥사의 연원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된 것은 280년 전이다. 옛 절터는 길 아래쪽 5리 지점에 자리한 탑이 알려준다. 울산봉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풍광은 절경으로 정상의 암자 때문에라도 꼭 둘러봐야 한다.

극락보전이라는 이름의 신흥사 법당은 아주 멋진 오래된 건물로 벽에는 삼존불과 몇몇 이색적인 프레스코화가 있고 장서표와 일상 가구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대리석으로 만든 촛대와 향로도 있다. 뒤쪽에 입적한 주지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조사당을 마주하고 사무실이 딸린 멋진 강원이 있는데 30×60의 마루가 깔려있다. 경내에는 또 천왕이 안치된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신흥사와 그 주변은 훗날 다시 찾아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찰스헌트의 「설악기행일기」 내지

6월 15일 금요일 우수 1시 30분 신흥사를 떠나 계곡을 지나 물치 바닷가까지 걸었다. 약 30리 거리다. 도중에 도로를 지나 10리를 더 가 낙산사에 당도. 시간은 저녁 6시. 그곳에서 숙박. 낙산사는 해발 약 700 피트의 나무 우거진 오봉산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전에는 각각 출입문이 있는 한 면이 약 400 미터 가량 되는 성벽에 둘러싸여있었다. 붉은색 벽돌담 위에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내에는 3개의 주요 건물이 있는데, 모두 1890년경에 개축된 것이다.

원통보전(관음전): 이 법당에는 조각과 채색이 빼어난 위엄 넘치는 대형 보살상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다. 채색 옷을 입은 흰색이 관세음보살이고, 온통 금박자수가 된 불상이 Yeng-Chun 보살이다. 법당 벽에는 흰히 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영산전: 이곳에는 석가여래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그리고 16나한상과 함께 모셔져 있다.

용선전(龍船殿): 세조대왕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마당 앞쪽에 세조의 명에 의해 대형 마루가 깔린 '설선당(說禪堂)'이 있다.

이밖에도 경내에는 1469년 예조임금이 내린 멋진 음식의 종이 매달려 있는 대형 종각이 있다. 바다 쪽에 가까운 문이 대문이며, 사천왕을 모신 구천왕문 또한 바닷가 쪽에 있다. 우리가 잠을 잔 마루에는 성종의 친필 현판 2개와 숙종의 시가 걸려 있다.(하략)

III. 1960년대 설악동인계 내용과 시문

1) 설악동인계 내용과 특징

이 책은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설악산을 좋아한 경남 진양(현 진주시), 산청, 사천, 하동군 주민 40명이 조직한 계문집(契文集)이다. 전체 31쪽 국한문 혼용체 중서로 편집되어있으며 내용은 서문,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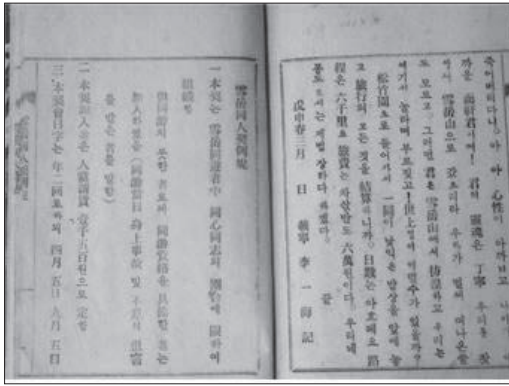
예규, 계안, 시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천하명산 설악산을 한마음 한뜻 즉 동심동지(同心同志)로 함께 즐겼던 경남주민들 가운데 동유자(同遊者)들이 동인계(同人契)를 조직하여 탐방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설악산을 찾아왔던 탐방기행문을 쓰고, 한시를 지으면서 설악산 명승지를 찾았던 행적 등을 기록하여, 설악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문집으로 간행하였다. 설악동인계 문집 내용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설악동인계예규(雪嶽同人契例規)
- 설악동인계안(雪嶽同人契案, 을사 1965년 3월 28일)
- 설악동유기행문(雪嶽同遊紀行文, 1968년 3월, 李一海)
-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 설악동인계안서(雪嶽同人契案序, 1967년 9월 9일 重九, 朴雨喜),

(1) 설악동인계 예규

- (1) 본계는 설악동유자중 동심동지의 단합에 한하여 조직함, 단 동유치 못한 자로써 동유자격을 구비한 자는 가입하였음(동유당일 신상사고 및 불의의 저해를 받은 자를 말함)
- (2) 본계가입금은 인당 신화 일천오백원으로 정함
- (3) 본계회 일자는 연 2회로 하되 4월, 5월, 9월 5일로 정함
- (4) 본계원은 동심동지라는 대근간을 망각 또는 이탈함이 없도록 노력책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상호부보함을 기함
- (5) 본계원중 만약 불법불의 배신행위를 감행하여 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시는 계안에서 그 명단을 삭출함과 동시 가입금을 원금으로 지급
- (6) 본계원 40명의 신가입은 절대불허함

(2) 설악동인계안



「설악동인계안」 내지

이수길, 하정식, 손창견, 이병렬, 박동철, 최규환, 이배현, 하동근, 정목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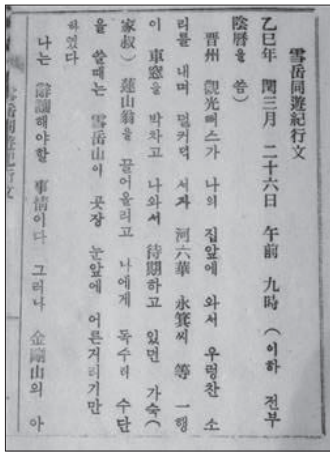
하중근, 이병목, 강제희, 박사중, 이수덕, 강용중, 강주혁, 박종임, 민인식, 하천진, 하해진, 한영황, 하영기, 이일해, 박우희, 이현용, 강조현, 이정옥, 정한영, 권천우, 박해중, 하영한, 이봉해, 손창도, 이상은, 강용근, 강영기, 이정한, 정해영, 진용문, 하성근,

이상의 설악동인계 특징을 언급하면 첫째로 지금부터 50여년 전인 1965년 동인계를 조직한 경남 진양, 산청, 하동군주민 40명이 음력 3월 26일부터 사흘간 설악산을 함께 탐방한 특별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전에 볼 수 없이 설악산동인계를 만들어 매년 4월, 5월, 9월 5일에 계모임을 했으며, 회비를 거둬 설악산을 찾았고, 설악산 답사기행문과 한시를 엮어 한권 문집을 만들었다. 일행들은 계규칙을 만들어 지키면서 설악산을 탐방하였다. 전해오는 금강산탐방기는 많으나 이처럼 타 지역의 40명 계원들이 설악산문집을 발간한 것은 전례가 없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로 설악산 탐방일정은 울산바위, 계조암, 비선대,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등이었으며, 당시에 케이블카를 달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탐방일정은 현재도 통상적인 관광코스로 알려진 곳이다.

2) 이일해, 「설악동유기행문」

을사년(1965) 윤3월 26일 오전 9시(이하 전부 음력을 씀) 진주 관광버스



「설악동유기행문」내지

가 나의 집앞에 와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덜커덕 서자 하육화, 영기씨 등 일행이 차창을 박차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가속 연산옹을 끌어올리고 나에게 독수리 수단을 쓸 때는 설악산이 곳장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하였다. 나는 사양해야할 사정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아우벌이 되는 명산 설악산의 신령이 불러일으킨 일행의 역센 때거지에 걸려든 이상 어떠한 사정도 통과되리는 만무하다. 청주 두병과 제육 한 남비로써 주어진 범절을 버젓이 딱근다음 차속 제19번

좌석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중략) 양양읍에서 오료(午料)를 하고 속초항에 이르니 속초는 설악산의 바깥 관문이다. 여태까지 해안선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치닫기만 하던 코오스를 서쪽으로 꺾어 뉘엿뉘엿 지는 해를 안고서 약 20리가량 돌발바 달리면서부터 명산에로가는 기분이 났다. 이윽고 설악산 품안에 포근히 안긴 우리들은 먼저 여관을 물색해가지고 여장을 맡긴 다음 안내원 한사람을 샀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명산을 보게 된다는 희열감 여기 저기서 눈시울을 튕구기시작하는 신비의 실마리와 부딪는 경이감 우리들의 감정은 착잡하였다. 행동도 수선스러웠다. 면모위에 샘솟는 경쾌한 기운을 자신은 몰라도 옆에서는 서로 서로 환희 볼 수 있었다. 다들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지팽이를 버티고 서서 잠시동안 눈을 꼭 감았다. 꼭 40하고 또 1년전의 일이다. 은사 해옹선생님이 금강산으로 가실때 서울까지 모시고 온 나는 노жат돈 한 몽치를 손에 쥐어주면서 따라가라고 권고하는 빙장 정지현에게 “좀더 수련을 해야지요. 아직은 금강산을 대할 재격이 못되오”하고 사각하였다. 그 당시의 나의 포부는 꽤 컸던 모양이다. 수련을 통해서 재격이 완성되는 날이면 금강산은 나의 금강산이거니하는 야심이 가슴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후우 금강산을 끝내 못 대하였고 앞으로도 영영 대할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 금강산을 겨누던 나의 재격은 이로서 판결난 셈이지마는 이제 설악산엘 왔으니 설악산을 대할 만한 재격은 충분해서란 말인가? 자인할까? 자인하면 만족해서 좋을까? 만족해서 좋다면 부끄러움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후우, 한발짜국 내 던다가 또 눈을 감았다. 산은 흙과 돌과 나무와 물을 합쳐서 된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돌이 조금 많거나 크고 높거나 괴이하게 생겼거나하며 물이 조금 맑고 푸르거나 떨어져서 폭포가 되거나 고여서 소가 되거나하면 명산이라 일컬어되 그것이 겹이나 홀이나 전부나 일부냐 하는데 명산의 품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악산은 얼핏 보아서 금강산의 아우 별이 되기에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설악산의 자랑은 동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선을 보이고 있는 전국 제일이란 토왕성폭포에 있다. 이 폭포 구경만 하면 설악산구경은 다 되는 셈이니 밥상국물에 술적심하는 격으로 우선 다른 일면부터 맛보기하고 새는 날 폭포구경으로써 끝맺음을 짓자! 내심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서는 눈을 뜨고 안내원의 뒤를 따랐다.

가는 곳은 울산바위, 조물주가 금강산을 지을 때 한 뿔 보겠다고 경상도 울산땅으로부터 굴러오던 도중 이 자리에서 잠깐 졸다가 금강산 지이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앉은 채 굳어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이 바위는 바위 하나가 곧 산 하나이다. 전설은 이 바위가 금강산의 그 무엇에 손색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전설이리라. 그럴싸하다. 그러나 빛깔이 문제다. 검다. 중국의 옛기록에는 검은 미인을 후비로 모시고 현처라고 부른 제왕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바위도 설악산의 현처노릇을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금강산 운운할 필요가 없잖을까. 왜? 전설과 같이 금강산에 갔더라면 정녕 낙제했을 테니 말이다.

울산바위 발치에는 수많은 선돌 누은돌이 있다. 다 굴직굴직하여 수천척의 넓이와 높이를 가졌다. 누은돌을 깔고 선 돌을 지고 이고 끼고 앉은 게 조암이 하도 청초한적하기에 잠시 쉬었다가 낙조를 띠고 여관으로 돌아와

서 저녁밥을 받았다. 이날 밤에 설악동인계를 짜서 계안초안 지어다 현재 자리를 같이한 19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썼다. 또 이번 놀이의 발론자로서 신병에 걸려 오지 못한 자와 약속에 나섰다가 사고로 인해 오지 못한 자는 비록 그 몸은 오지 못했을망정 그 신은 이미 왔다고 인정된다.

29일 아침 6시에 일행은 비선대를 찾아갔다. 나는 누워서 전송만하고, 조반후에는 예정대로의 토왕성폭포를 잡으려고 제가끔 백배의 용기를 동구었다. 백석탄을 건느고 중화루를 돌아서 비탈길로 오르는데 등녕쿨 풀뿌리 나뭇가지와 씨름을 해가면서 손도 발 발도 발 수마정 기었으나 안내원의 말 그대로 더 전진하지는 못하였다. 산 중턱의 절반가까이 올라선 듯 한데도 폭포는 동구에 비치던 정도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수천척으로 내리꽂아지른 제일 높은 돌봉우리의 꼭대기에서 흰 모시배 한 필을 걸어둔 것이 토왕성폭포다. 워낙 거리가 먼지라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게다가 하반신이 나무그늘에 숨었지마는 수량이 상당히 많고 높이가 천 3백척 가량으로 측정되었다.

옛날은 금강산에 짓눌려서 개발되지 못했고 오늘은 개발한다면서 손발이 돌지 않아서 늦어졌는데 어떻게 험준하던지 아직까지는 폭포를 가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안내원의 일러주는 말이다. 우리 발 밑에 제이폭포인 비룡폭포가 있다. 45척의 돌 흠대에 짚동부피의 물이 비스듬이 누워서 몸부림치며 미끄러지는 광경은 여간한 장관이 아니다. 비룡폭포 되기까지의 상류의물은 파(巴)자형의 돌산 등성이 선을 오이 쪼개듯 쪼개고 흘러나온다. 우리가 섰던 곳은 바로 그 서벽의 한쪽 비탈인데 두어장 올라서 보면 서벽 동벽의 간격은 긴장대 두 개를 이어서 걸칠만하다. 등성이 선의 남은 부분은 실낱처럼 가는 것이 그나마 넓혀 세윈 톱날같아서 사람이 발을 부칠수 없고 벽의 내면은 땅바닥까지 비스듬이 안으로 깎아서 백여척의 청동색 병풍을 맞 돌린 것 같아서 거기는 다람쥐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려고 보니 토왕성폭포는 어디로도 통로가 될 수 없다. 개척 한다지마는 무슨 재간으로 개척할고? 비룡폭포의 아랫목에는 우리가 섰던 곳까지 케이블카를 단다고 개인의 힘으로 기초공사를 하더라마는 토왕성폭포

는 케이블카도 못달테니 헬리콥트나 날릴까?

우리는 토왕성폭포를 잡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러나 만고불과의 신비체를 공중높이 세워놓고 사람더러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도 설악산이 아니고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토왕성폭포를 못잡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의 문명기구 따위로는 토왕성폭포의 모양도 옳게 따지 못하는 데 비교해서 우리 일행 중에는 토왕성폭포의 정신기백을 송두리째 옮겨올 만한 다시 말하자면 신비체를 따올만한 신비성적 기구를 지닌 이가 몇 명 사람있으니 아무리 따져도 토왕성폭포는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고 말리라. 자, 이만큼 되었으면 노래부르고 설악산과 작별해도 좋을게다. 11시 조금 못미쳐서 우리일행은 설악산의 멀리멀리 나누어주는 전송을 받으면서 속초항까지의 오던 코오스를 도로 밟았다. 속초명산 미역 몇 묶음씩 사서 차 뒷간에 실고 12시경 출발 북으로 약 10여리 달리니 청간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머리에 부딪친다(하략)

3)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1) 남주(南洲) 하종근(河宗根)

昔我東溟試華鋌 예전 내가 동쪽바다에서 지팡이를 시험하니
金剛無限斷人腸 금강산이 한없이 사람 창자를 끊어내는구나
忽驚雪嶽生秋夢 홀연히 설악에 놀라게 되니 가을 꿈 생기고
信是仙家第二鄉 믿나니 신선의 집이라는 두 번째 고향이라네

(2) 아석(我石) 이병목(李炳穆)

登臨仙侶坐峰鋌 아내와 함께 올라 뽕족한 정상에 앉아서
飽喫雲霞一洗腸 구름 안개를 잔뜩 먹고서 창자를 씻노라
快意人間過有得 시원한 뜻은 인간에게서 얻음에 지나치니
堪歎蹙蹙臥窮鄉 감탄으로 못난 이 몸 궁한 곳에 누웠도다

(3) 후송(後松) 강재희(姜在熙)

世路崎嶇逼劔鋌 세상길 기구하여 뾰족하고 좁은 산과 같아
勝游何處滌愁腸 좋은 곳 어디에나 떠돌아 수심을 씻었노라
幸得同人吟雪嶽 다행히 동인이 있어 설악을 읊고자 하면서
飄如招我入仙鄉 가볍게 나를 초청하니 신선세계로 들어가네

(4) 남정(南汀) 박사중(朴師鍾)

憑君大筆似鋒鋌 그대에게 의지해 큰 붓 지팡이삼고
摹寫靈山洗溷腸 영산을 본받아 더러운 창자를 씻네
縱有駕風乘輿日 바람을 타고 올라 해를 즐기노라니
那堪淮鼠望雲鄉 어찌 회수 쥐가 운향을 바라보리오

(5) 백하(柏下) 이수덕(李壽德)

峰峰矗矗似峰鋌 봉우리 돌 우거져 지팡이 닮았으니
對比何人不斷腸 어느 누군들 장이 끊어지지 않으리
幸共文星存一契 요행 문성군과 같은 모임이 있으니
茲遊無媿說吾鄉 이에 놀면서 내 고향을 설명하도다

(6) 놀와(訥窩) 강용중(姜瑢中)

峰如香稜劔成鋌 봉우리 뾰족하게 창끝과 같이도 솟아
瀑似九龍更斷腸 폭포는 구룡과 같아서 단장을 고치네
宗炳臥遊吾亦得 밝음쫓아 누워 놀다가 나 역시 얻으니
一時詩唱!江鄉 한순간에 시 부르니 강의 고향이라네

(7) 양천(養泉) 강수혁(姜洙赫)

聞道雪山似劔鋌 도를 듣는 설산은 지팡이 같이 솟았고
凌空峭直斷人腸 하늘 솟은 봉우리는 사람 창자를 끊네
幸今題詠群賢後 요행이 지금 문제는 여러 현자 뒤이니

如得清遊入醉鄉 맑게 놀다 취해서 고향에 들어가려하네

(8) 이강(尼岡) 박임종(朴任鍾)

掛空虹氣耀霜鋌 하늘에 걸린 무지개 차갑게도 빛나는데
聞說名山最斷腸 듣노니 명산은 단장이 최고라 말하노라
恨煞煉丹丹未熟 한스럽게 연단하다 단 아직 익지 않으니
璇風不許躡仙鄉 돌아오는 바람은 선향 밟기 허락치 않네

(9) 유백(幼柏) 민인식(閔仁植)

疊嶂連峰掩劔鋌 바위가 연이서 봉을 이루어 엄호하고
牛臄似又似羊腸 소가 반추하고 마치 양 창자와 같네
看來仙子多遺蹟 신선이 오는 것을 본 유적이 많으니
好是關東山水鄉 이 역시 관동은 영원한 산수향이라네

(10) 방헌(方軒) 하천진(河千鎭)

石骨稜稜束劔鋌 돌 들은 솟아나서 칼처럼 우뚝하고
玉流清可洗塵腸 옥류는 맑아서 티끌 창자도 씻노라
好是南風探勝客 이에 바로 남풍은 탐승객에 불어오니
坐來渾欲醉忘鄉 앉아서 취하고 고향마저 잊어버리네

(11) 태정(台亭) 하해진(河海鎭)

萬丈奇岩矗似鋌 만장이나 되는 기암절벽은 지팡이 같아서
遊人到此怯詩腸 노는 사람 도달하면 시 짓기 겁이 나니라
欲摸勝景難工筆 좋은 경치는 붓으로 묘사하기도 어려우니
比是關東第一鄉 비교하면 이게 바로 관동의 제일향이라네

(12) 관재(寬齋) 한영항(韓永滉)

十載風塵躡劔鋌 십년 세월 풍진에 뽕죽한 바위 솟았고

名山送汝滌愁腸 명산을 네게 보내서 수심을 씻는구나
歸來囊載詩千字 돌아오는 길 주머니에 시 천자를 품고
勝似錦衣還故鄉 의기양양함이 마치 금의환향과 같도다

(13) 육화(六華) 하영기(河永箕)

芒鞋弊盡雪山鋌 죽장망혜 설산을 찾은 지팡이가 헤졌고
滿眼烟霞欲斷腸 눈 가득한 안개는 사람 장을 끊는구나
一契同人存舊約 한 모임의 동인들과 옛 약속이 있으니
淸遊九日始還鄉 맑게 노닐다 구일만에 고향에 돌아오다

(14) 굴천(屈川) 이일해(李一海)

拂袖青峰躡劍鋌 소매자락 떨치듯 청봉은 칼끝같이 솟았고
星芒百尺生枯腸 별은 백척되어 마른 창자를 쥐어 짜누나
當時已結今時夢 당시에도 몸은 오늘날 꿈에 매였었으니
五載海雲深處鄉 5년 만에 해운이 먼 고향에 돌아가노라

(15) 낭헌(朗軒) 박우희(朴雨喜)

千峰便作割愁芒 천 봉우리 자연스레 수심을 돕는데
萬壑粧成錦繡腸 만개 골짜기는 비단폭을 이루었네
六鰲已霜蓬弱遠 여섯 자라섬 서리가 약간 몰들었고
襄陽山水擅南鄉 양양산수는 남쪽 고향을 전횡하네

(16) 연산(蓮山) 이현용(李鉉容)

翠壁千尋擁劔鋌 푸른 절벽은 칼끝같은 봉우리 옹호하고
紅泉百道下羊腸 붉은 온천은 여러 길 양처럼 갈려있네
停盃試向山靈問 잠시 멈춰 술한잔하며 산신령께 묻노니
此是仙鄉第幾鄉 이와 같은 선향은 몇 마을이나 있으리오

(17) 송봉(松峰) 강조헌(姜祖憲)

杳杳天涯雪嶽鉞 아득한 하늘가 설악의 칼끝 봉우리
何緣偏解剖吾腸 어떤 인연으로 내 창자를 해부했나
幸君携得文章筆 다행히 그대가 문장과 붓을 얻어서
滿寫瓊詩誦一鄉 맑게 묘사하며 제일향이라 암송하네

(18) 유당(攸堂) 이정옥(李楨玉)

一生如夢老鋤鉞 일생이 꿈과 같이 호미자루처럼 늙으니
論世那能不斷腸 세상을 논하자면 어찌 단장하지 않으리
幸得西隣同契友 요행이 서쪽 이웃 같은 계원을 얻어서
醉來提挈入仙鄉 취하여 손끌고 오르니 신선고향 들었네

(19) 호심(湖心) 권천우(權天佑)

聞道雪山似劍鉞 설산에서 도를 들으니 칼끝 봉우리 같았고
幾人登頓惱詩腸 몇 사람이 올라서 시의 내부를 정돈했다네
群仙勸我流霞釀 여러 신선들이 나를 권하여 노을 짓게 했고
醉望塵寰曠漠鄉 취하여 바라보니 티끌도 저무는 고향이로다

(20) 약산(若山) 박해종(朴海鍾)

雪嶽崢嶸險劍鉞 설악이 험하기로서 다투자면 최고이려니
遊人到此幾摧腸 나그네가 이곳에 도달하여 최고로 치네
幹脈遙遙鎮南國 산맥줄기는 요요하여 남쪽을 진수하였고
鍾靈長作太平鄉 산신령은 길게 태평세월을 노래하겠구려

(21) 양정(楊汀) 하영한(河永漢)

長吟海畔山如鉞 해안을 읊으려니 산은 뾰족한 지팡이 같고
不是愁人怕割腸 불시에 근심하여 창자를 자르는 것 같구나
一幅清溪飛作瀑 한 폭 맑은 시냇물 흐름은 빠르기 폭포같고

六時雷雨鬧東鄉 여섯시 천둥비가 동향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22) 강헌(江軒) 이봉해(李鵬海)

泉作練飛石作鋌 물은 명주실 이루고 돌들은 뾰족한데
名山眞有斷人腸 이름난 산은 진실로 단장의 아픔이네
莫云今我身留滯 지금 내 몸 머물러 있다 말하지 마오
早已神游海上鄉 다만 몸과 정신은 해상 고을에 있구려

(23) 우계(又溪) 손창수(孫滄壽)

雪嶽全峰似劍鋌 설악의 전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서
探來處處駭中腸 곳곳마다 탐승하면 창자 속과 같구려
廿四故人相擁坐 24명의 친구들이 서로 안장서 붙들고
長歌一曲忘歸鄉 노래 한 곡 부르니 돌아갈 길을 잊노라

(24) 추벽당(秋碧堂) 이상은(李商隱)

海上青峰似劍鋌 해상의 푸른 봉우리는 뾰족하기 칼날 같지만
聞名不見斷人腸 이름을 들을진대 단장하리라 생각지 못했네
詩聲酒味洞歡地 시짓는 소리와 술의 맛이 땅 위에 넘치나니
憶否義山病滯鄉 생각나니 의로운 산이 아니면 병든 고향이네

(25) 월강(月岡) 강용근(姜容根)

百疊高峰似劍鋌 온갖 바위 높은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
看看奇狀駭人腸 볼 때마다 기이한 형상 사람 놀라게 하네
世間寧有如斯處 세간에 이와 같은 곳 어디에 또 있겠는가
半日清游却忘鄉 반나절에 맑게 놀다가 돌아올 길을 잊었소

(26) 외인재(畏人齋) 강영기(姜泳基)

巨靈何日弄霜鋌 큰 산신령 서리 낀 산을 희롱하니

鏤此鴻濛脾腎腸 이것은 커다란 신장과 창자로구나
翠壁千頭飛一瀑 푸른 절벽 천여 개 폭포를 만들고
金剛未必獨仙鄉 금강산은 아직 홀로 선향이로구나

(27) 남천(南川) 이정환(李禎澣)

不怕危峰似劔鋌 위태로운 봉우리 뾰족한 칼날과 같고
自憐清瀑洗愁腸 스스로 가련히 맑은 폭포에 수심씻네
君詩不讓龍眠畫 그대의 시는 용면화를 사양하지 않아
寫盡烟霞山水鄉 안개를 그리기가 힘든 산수 고향이네

(28) 운현(芸軒) 정해영(鄭海永)

峭直峯峯似劔鋌 솟은 봉우리마다 뾰족한 칼날과 같아
遊人幾度割愁腸 나그네는 여러 번 수심을 헤아린다네
如何造物貪神秘 조물주는 땅의 신비를 품은 것 같아
設此荒寒辟遠鄉 이곳에 먼 피안의 고향을 만들었구나

(29) 남계(藍溪) 진용문(陳龍文)

聞道雪峯峭似鋌 설봉에서 도들으니 봉우리 지팡이같고
見來自足破愁腸 와서 스스로 만족해 수심을 깨어버리네
諸益同行吾獨否 여러 동행들과 더불어 내 홀로 아니니
而軒之故莫離鄉 이현의 고향으로 떠나는 고향 아니라네

(30) 이천(履泉) 하성근(河聖根)

倚天雪嶽懷寒鋌 하늘 의지한 설악의 찬 봉우리 늠름해
探勝人應欲斷腸 승지를 찾는 사람들의 애끓는 듯하노라
何幸諸公同結社 어찌 다행이 여러 분들과 모임을 맺어
往來容易此仙鄉 왕래하여 이 신선의 마을을 받아들이네

(31) 가정(柯亭) 이수철(李壽轍)

好事化翁弄利鋸 조화옹이 예리한 지팡이를 희롱하여
當年雕斲費心腸 당년에 조각하여 감동하도록 애썼네
銀河倒瀉三千丈 은하수가 흘러 흘러 삼천장 이르는데
劈破鴻濛廣漠鄉 쪼개 깨트린 넓이가 광활한 향리라네

(32) 근재(謹齋) 하정식(河禎植)

奇巖怪石翠生鋸 기이한 바위 괴이한 돌로 산을 만드니
雷雨多年鬧虛腸 뇌우로 술한 세월 가슴이 시끄럽다네
楓嶽不看看雪岳 풍악에서 보지 못한 것 설악에서 보니
關東眞個是仙鄉 관동에서는 참으로 최고의 선향이로다

(33) 안당(安堂) 손창견(孫滄見)

同人詩筆利於鋸 동인들 시 짓기 봉우리보다 예리하니
劈取名山貯胃腸 쪼개어 취한 명산 위장에 넣어버리네
一讀便如蘇病骨 한 번 읽으니 병든 몸 없애는 것 같고
深緣終覺在仙鄉 깊은 인연 다하니 선향임을 깨닫는다

(34) 농산(農汕) 이병열(李丙烈)

轟轟奇峰似劔鋸 우뚝한 기이한 봉우리 뽕족하고
回回石徑等羊腸 돌고도는 산길 양의 창자같다네
世間塵念都消盡 세간의 티끌생각이 모두 다하니
一上仙臺莫思鄉 천상 신선누대 고향생각 없구나

(35) 해서(解曙) 박동철(朴東喆)

骨立千峰似劔鋸 뼈같이 솟은 천 봉우리 칼날 같고
聞來先己割愁腸 듣고 와보니 수심을 잘라내는구나
床頭一霎同人夢 침상위 빗줄기 동인들의 꿈이려니

記在關東何處鄉 기억할진대 관동의 어느 고향이려나

(36) 남정(南汀) 최규환(崔圭環)

世途危似觸於鋌 세상길 위태로움은 뾰족한 산과 같으니
只好看山洗熱腸 다만 산 보기 좋아해 열띤 가슴 씻노라
悵悵東遊虛舊約 슬프지만 동쪽 나그네 옛 약속 노닐고
畫中仙景足仙鄉 그림 속의 신선경치는 신선 고향이로다

(37) 각포(覺圃) 이배현(李培鉉)

壁立諸峰作劔鋌 절벽이 여러 봉우리 앞에 칼날같고
清幽洞壑又羊腸 맑고 그윽한 계곡은 양의 창자같네
九天一瀑真奇絶 아홉 하늘 한 폭포는 참된 절경이라
從此游人欲忘鄉 이를 좇는 나그네 고향마저 잊노라

(38) 우당(愚堂) 하동근(河東根)

青峰直插勢如鋌 푸른 봉우리 곧게 솟구쳐 칼날 같으니
下有清流可洗腸 아래에서 맑게 흐르며 창자를 씻는구나
萬物精靈關別界 만물의 정령들은 다른 세상을 열었고
若爲移置置吾鄉 만약에 옮겨놓는다면 내 고향 가져가리

(39) 현사(玄史) 정묵규(鄭默珪)

萬馬奔馳列戟鋌 온갖 말 내달리듯 뾰족한 봉우리셨으니
東溟螯賊定摧腸 동쪽 바다 못된 이 마음을 바로잡았다
可憐一瀑三千丈 가련하도다 한 줄기 폭포는 삼천장이니
落地變成花雨鄉 이 땅에 떨어져 꽃비 향리를 만들었구나

IV. 맺음말

영국인 선교사 찰스 헛트는 겨우 지팡이하나 짚고 다닌 매우 불비한 등산장비를 갖춘 채 1923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힘든 설악산을 돌아보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남겼다.

현재까지 이것 이외의 외국인 설악산 기행문을 찾지 못한 탓에 찰스 헛트의 글은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 헛트가 설악권 일대의 불교유적지를 굳이 찾아 나선 이유는 단지 경치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로서 한국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사, 오세암, 건봉사, 낙산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보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등령 일대에서 돌 틈에 핀 에델바이스를 처음 본 소감도 기록하였다.

또한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천리길을 머다 앓고 설악을 찾기 위해 동인계를 조직한 경상남도 진해 인근 주민들의 열정 또한 설악사랑의 뜨거운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설악사랑을 동인계문집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절구시 39편은 설악의 자태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설악을 표현하길 선경(仙景)이요 선대(仙臺)요 선향(仙鄉)이라 표현하며 신선세계와 같은 설악에 심취하여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라 하였다.

설악산 아래에 태어나 자랐던 필자는 이 글들을 읽으며 감동했다. 나는 이들 처럼 좋은 기행문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악기행문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소임이라도 다하고자 서술하였다.

설악산은 속초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설악권 주민들만의 것도 아니다. 조물주의 위대한 창조물인 설악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둘러보는 관광대상지로서만이 아니라 산악자원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범고창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설악산과 에베레스트 등의 연구자들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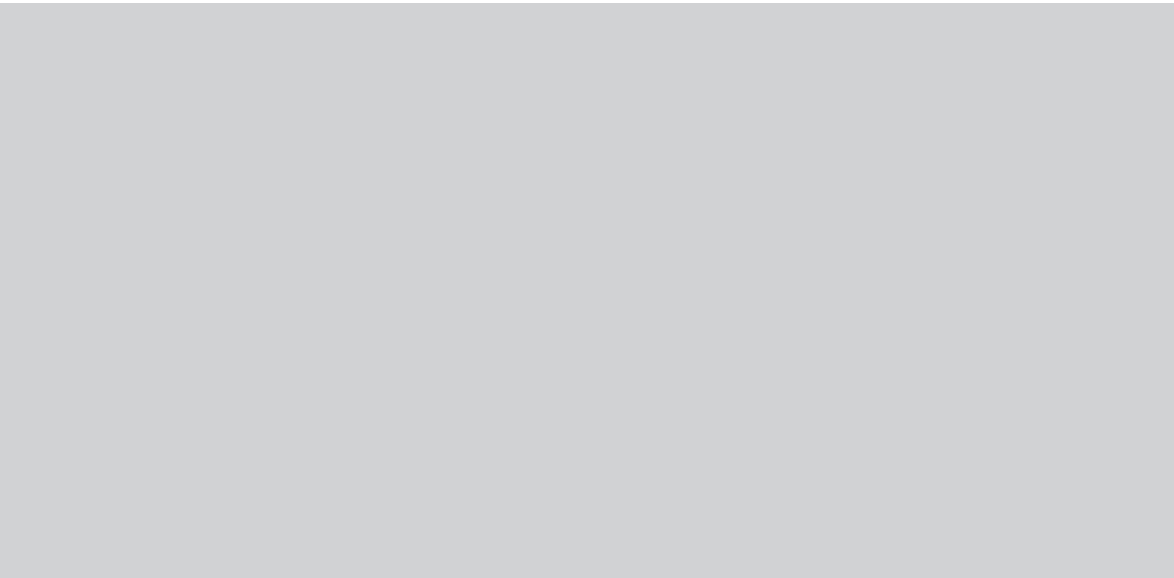
계 산악문화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관심을 끌고 학문적인 천착을 통해서 자연생물과 문화학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아울러 설악산박물관, 설악과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에서만 자생하는 에텔바이스 세계 꽃공원 같은 테마파크, 설악산아카이브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개발해야 한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승만으로 사실상 세계화하기는 힘들다. 설악산 골짜기의 숨겨진 시문학과 설화 이야기를 발굴하고, 설악산 관련 다양한 장르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화할 때 문화관광설악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은 금강산과 연계관광에 막연히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강산과 선명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 산악문화의 메카로서, 설악산 관련 조선시대 한시문과 기행문집의 국역작업도 서둘러야 하며 산악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생태, 민속, 회화, 연극, 무용, 사진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설악이야기-함께 가꾸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文益成, 「遊寒溪錄」, 『玉洞集』, 1575
 金壽增, 「寒溪山記」, 『谷雲集』, 1691
 金昌翁, 「雪岳日記」, 『三淵集拾遺』, 1705
 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1709
 金昌翁, 「遊鳳頂記」, 『三淵集拾遺』, 1711
 李福源, 雪嶽往還日記, 『雙溪遺稿』, 1753
 安錫傲, 「雪岳記」, 『雪橋集』, 1760
 丁範祖, 「雪嶽記」, 『海左先生文集』, 1779
 金夢華, 「遊雪嶽錄」, 『七巖文集』, 1787
 金錦園, 「湖東西洛記」, 『錦園堂集』, 1830
 李義肅, 「五歲菴記」, 『齋集』, 1836
 道川面 面勢一覽, 1926
 金道東, 『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54
 李殷相, 『鷺山文選』, 永昌書館, 1958
 劉昌惇,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59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이은상,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文教部 文化財管理局, 1967
-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 張在憲 外, 「第一回 海外遠程登攀訓練隊 雪嶽山遭難調查報告書」, 韓國山岳會, 1971
- 秦教俊, 『설악산얘기』, 世紀出版社, 1972
- 黃沔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 손경석, 『한국의 산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 李泰極·金永琪·李昇勳, 『太白的 詩文 上』, 江原日報社, 1977
- 崔承洵, 『太白的 詩文 (下)』, 江原日報社, 1977
- 崔喆 譯, 『東國山水記』, 德文出版社, 1977
- 金在榮·金振航 『雪岳洞開發事業誌』, 江原道, 1981
-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江原道, 1984
-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 成東奎, 『雪岳의 秘境』,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88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유창서 편, 『바람이여 구름이여 설악이여』, 송암출판사,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손경석, 『설악산, 대원사』, 1993
- 崔和秀, 『걸리紀行 雪嶽山』, 國際新聞, 1994
- 함영덕 글·성동규 사진, 『설악의 물길 따라』, 백산출판사, 1995
- 羅柳丁氏月軒公派宗會, 『海左集』, 瑞歌出版社, 1996
- 鄭珉 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4』, 강원도편3, 민창문화사, 1996
- 임양재, 『한국의 자연탐험 설악산』,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 문순화 외, 『설악산의 꽃』, 교학사, 1997
- 『朝鮮時代 江原女性詩文集』, 강원도, 1998
- 함영덕, 『청봉가는 길』, 백산출판사, 1999
- 장정룡 외, 『속초지역 구전 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 박명희, 「조선후기시문연구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흠을 중심으로」, 전남대박사논문, 1998
- 박그림, 『신앙똥을 먹는 사람』, 도서출판 명상, 2000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속초문화원, 2003
-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학총서⑤, 집문당, 2006
-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엄경선, 『설악에 핀 숨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8
-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속초문화 24호, 속초문화원, 2008
-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인물사』, 마음살림, 2009
-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고찰」, 속초문화 제25호, 2009



2장

전설과 풍광으로 돌아본 설악산

1.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2. 설악산,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울산바위 사진제공·속초시청

“비바람이 불기전에 미리 울어 천후산이다.”
윤휴(尹鑄), 「풍악록(楓岳錄)」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1. 머리말

울타리처럼 둘러쳐 속초시를 감싸 안은 울산바위를 보며 자란 속초사람들은 이 바위의 전설에 대한 흥미로움을 갖는다. 한편으로 이북을 고향으로 두고 월남한 실향민들은 부래산(浮來山)처럼 울산에서 왔다는 이 바위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울산바위 전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설화적 형상화와 함께 전승 심리적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였다.

울산바위 전설은 그것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설악산의 하나로 존재하면서 금강산과 연관된 바위로 전승된다. 실제로 전해오는 여러 글을 보면 금강산 가는 길에 설악을 만났다가 설악을 가는 길에 개골산 승려를 만났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설악과 금강산을 비교한다든가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보다 “설악산은 또한 커다란 암석 덩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산에 차방(比倣)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다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

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이라는 최남선의 언급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다.¹⁾

백두대간의 하나의 준령에서 솟아 나온 설악과 금강의 운명적 만남은 의인화(擬人化)된 울산바위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강원도 관광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셈이다. 근래 들어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설악권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로 거론하고 있지만,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설악권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사실상 어려서부터 울산바위 전설을 들으며 경상남도 공업도시‘울산’을 알게 되었고 ‘울산큰애기’ 노래를 친밀하게 들었다. 그러나 울산바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였다. 이미 500여 년 전에도 이 바위를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이라는 명칭과 함께 ‘울산’(蔚山)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을 볼 때 천후산과 이산은 다른 산인가, 대체 언제부터 ‘울산’이라 불렀던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속초전승설화의 집단적 심리현상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전해오는 이야기인 전설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기본으로 전승하는 구비문학이다. 따라서 지역적 색채와 시대적 색채를 부여하면서 전승상 여러 갈래와 다양한 변이를 낳는다. 울산바위 전설 역시 지역민의 생활현실과 연결된 이야기로서 그들의 지향성과 염원,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발휘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속초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민족 분단의 일번지로서 많은 실향민이 월남하여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 동시에 남쪽에서 북상하여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 등지의 실향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타향살이 전설을 전승하고 있는 울산바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실향민의 고향 속초에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북한지역 실향민이 살

1)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쪽

고 있으며, 동시에 갈 수는 있으나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실향민이 있다. 이들의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집단적 심리현상이 근래에 이르기까지 울산바위의 설화적 전승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도 추론된다.

천후산과 울산바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언어사회학, 전승 설화적 고찰과 함께 “옛 지명에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이산에 관한 내용이다. 리산(籬山)과 천후산(天吼山), 울산은 같은 지명이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표기하고 있는데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울산과 천후산(天吼山)을 다른 곳에 표기하여 놓았다.”²⁾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바,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설악과 금강산 설화나 설악산 설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방면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승순은 금강과 설악산설화를 비교하면서 울산바위 전설을 경승창조설화계통의 비봉설화(飛峰說話)라 하였고,³⁾ 장덕순·최래옥·강진옥은 ‘산(섬)이동형 전설’로 보았다.⁴⁾

장덕순은 산이동담(山移動譚)이라하여 부래산(浮來山)·산고(山高)·산개(山開)·산회(山回)로 나누었으며,⁵⁾ 최래옥은 산의 다양한 면을 역사성, 풍수지리성, 종교성, 인격성으로 분류하고 산이동을 인격성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울산바위전설은 실기형(失機型-기회를 놓치다)으로 산지(山止), 산비(山飛), 암지(岩止) 가운데 산비(山飛-A 산이 날아간다. ~B 이미 완성되었다. ~C 그만 떨어진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비봉(飛峰) 또는 비산(飛山)설화는 비석설화, 비암설화와 같은 내용인

2) 한정규 역음,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11쪽

3) 崔承洵, 『金剛山說話와 雪嶽山說話의 比較』, 『語文學報』,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1982, 5~20쪽

4) 崔來玉, 『山移動說話의 研究』, 『冠岳語文研究』제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487~502쪽

①移動型 ②地域型 ③失機型 ④外入型

姜泰玉,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①강자못형 ②잃어버린 명당형 ③섬(술)바위형 ④아기장수형 ⑤말무덤형 ⑥絶脈형 ⑦산이동형 ⑧오니힘내기형

⑨설문대형 ⑩달래형 ⑪원혼형

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35쪽

데, 산이나 바위 또는 봉우리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다. 현재 구전되는 울산 바위 전설 각 편을 살펴보면 산이 아닌 ‘바위’이야기로서 걸어진 바위, 날아온 바위, 지고 온 바위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걸어진 바위로 서 날아온 바위나, 지고 온 바위는 아주 적은 빈도수를 보인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울산바위’는 산이 아닌 바위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산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다. 즉 ‘산처럼 생긴 바위’인데 그 모양이 계조암을 둘러싼 ‘울타리’처럼 생긴 것이거나 혹은 ‘우는 산’의 ‘울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다채로운 경관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관입(貫入)을 바탕으로 하는 암질과 구조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수직절리(垂直節理)에 의해서 험준한 기암(奇巖)의 산모(山貌)를 이뤄 ‘울산암(蔚山岩)’이라고 불린다.⁶⁾ 설악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로 ‘수직절리’가 들어가 있는데, 울산바위처럼 온갖 기괴한 모습으로 뾰족뾰족한 모습의 돌로서 이루어진 현상을 말한다.⁷⁾

강원도 설화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에서도 울산바위와 같은 산·바위·섬과 같은 이동형 전설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설화의 전승심리적 현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⁸⁾ 그것은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총체적 자료개관이 없어 본격적인 고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수집한 속초시 설화에도 울산바위 전설은 몇 편에 불과하다.⁹⁾

그러나 그동안 나왔던 울산바위 전설의 전반적 존재양상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 울산바위 전설을 종합하고 상호간 비교를 통해서 이 바위가

6) 文教部, 『雪嶽山』, 天然記念物 第171號 雪嶽山學術調査報告書, 1967, 61~65쪽

7) 黃泓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59~65쪽 설악산의 八奇 ①天吼地動 ②巨巖動石 ③轉石洞穴 ④百斗甌穴 ⑤垂直節理 ⑥有多湍瀑 ⑦金剛有穴 ⑧冬季遲雪, 설악산의 八景 ① 龍飛昇天 ②雲岳霧海 ③七色有虹 ④開花雪景 ⑤紅海黃葉 ⑥春滿躑躅 ⑦月夜仙峰 ⑧滿山香薰

8) 金英鎬, 『강원도 설화의 연구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해』, 『語文學報』, 제6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82, 21~41쪽, ① 아기장수설화 ②명당설화 ③희생효설화 ④난생설화 ⑤변신설화 ⑥근친상간설화 ⑦수치심에 대한 美化 설화 ⑧龍系설화 ⑨장자못설화 ⑩불교설화

9) 장정룡·양연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갖는 지역자원의 측면뿐 아니라 생활상에서 창조된 구전문학예술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자료개관과 함께 설화유형, 전승집단의 의식구조의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자료에서 그동안 수집 발표된 울산바위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전승의 울산바위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¹⁰⁾

II. 울산바위의 전승사로 검토

‘울산바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옛 문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울산(蔚山)’이란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펼썩 물러앉아 울어서 울산바위’라는 구전설화상의 인격적 화법처럼¹¹⁾ 지명상 명명이 아니라, 한자표기 이전에 형성된 의미적 형태적 명명(擬聲的·形態的 命名)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울산바위는 천후지동(天吼地動)의 바람소리가 나는 ‘우는 산’의 울산이며 울타리 모양의 ‘울산’일 뿐이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로 수직절리(垂直節理)에 해당하며 그것이 형성한 설악산 팔경의 하나로 ‘설악무해(雲岳霧海)’를 갖추고 있다. 구름이 걸린 울산바위를 밑에서 쳐다보면 마치 연못에 연꽃이 막 피어난 것과 같은 ‘연화반개산(蓮花半開山)’의 모습인데 문헌에 수록된 울산바위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籬山):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곧 대령(大嶺)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울산(蔚山)

10) 오희복, 『설악산의 울산바위』,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11)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63쪽 ‘울산바위이야기’ 이호열(남.70)속초시 노학동, 1994년 11월 2일 조사

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1530년 편찬]

천후산(天吼山):군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고 전해온다.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이 산에 성인(聖人)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성군 읍지, 1633년]

이산(籬山):설악산 동쪽 산기슭에서 와서 청초호 서남 언덕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고도 하며 또한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 1757~1765년 편찬]

천후산(天吼山):서북 40리 간성계(杆城界)에 있다.

울산(蔚山): 북쪽 35리 청초호의 서쪽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종횡으로 있어 울타리를 세운 것 같다. [대동지지, 양양, 김종호 저, 1861~1866년 편찬]

이산(籬山):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에 있는데 기이한 봉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다.[여재촬요, 양양, 오형묵 저, 1893년 편찬]

천후산(天吼山): 산에 옛 바위가 많고 바람이 스스로 가운데에서 부니 이를 일러 천후라 한다. 세속에 전하길 양양과 간성지간에 바람이 많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산에 성인대가 있는데 석상이 마치 불상처럼 서 있어 유래했다. [김유동, 전선명승고적 간성군조, 1929년 편찬]

천후산(天吼山): 군 북쪽 5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둘 봉우리가 높게 펼쳐져 있고 지주처럼 반공중에 꽃혀 있어 보인다. 구멍이 많아 큰 바람이 불면 산이 일어날 듯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연고로 이름 지어 졌다. 판서 윤순(尹淳, 1680~1741)이 산 이름을 산 아래 바위에 전각하였다.

이산(籬山): 군 북쪽 6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즉 큰 고개 동쪽 지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있어 종횡으로 울타리를 세운 것 같아서 이름 지어 졌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 이른다. [강원도지, 김기옥 저, 1940년 편찬]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바위의 유래는 ‘울다’ ‘울타리’에서 유래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양간지간 다대풍(襄杆之間 多大風)’이라는 김유동(金道東)의 설명처럼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로 인해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이름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세속에서는 한자지명으로 ‘울산(蔚山)’이라 이르지만 그것은 순 우리말 ‘울’에서 온 것이다. 문헌에 따라 천후산과 이산을 따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방팔방(四方八方)의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별개의 산으로 인식할 뿐,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울산바위는 한자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고유어인 ‘울’에 후(吼)와·이(籬)에 ‘산’이 붙은 것이다. ‘울산바위’는 ‘울산암’으로 혼용하여 표기하였고 그 높이도 860m, 650m, 950m 로 다르게 표기되었다.¹²⁾ 황호근의 글은 여러 각도에서 울산바위를 설명하였다.

울산암은 외설악의 북쪽에 위치한 암산(岩山)으로서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울산바위의 높이는 해발 약 650여 미터가 된다.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붙일 곳이 별로 없다는 곳이다. 여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관(奇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다. 더욱 암벽이 험난하므로 알피니스트들이 등반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암은 외설악의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가 된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동(天動)

12) 江原名勝古蹟』, 강원도체육회, 1959년판에는 ‘울산바위’로 표기하였으며 孫慶錫,『登山의 理論과 實際』成文閣, 1964, 雪嶽山登山Course圖 에는 ‘울산암’으로 표기되었다. 1950~60년대로 추정되는 흑백사진 ‘명승고적앨범, 관동, 설악’ 서울백운상회 발행의 지도에는 울산바위로 되어 있고, 사진설명은 ‘울산바위(蔚山峯) 울산바위는 천연의 대암석으로 높이 860m 길이 2km의 거대한 여섯 봉우리의 석산면역이다.’라 하였다. 이후 1970년대 간행된 컬러판 『國立公園 觀光 雪嶽山』 안내지도에 ‘울산바위’라 표기하였고, “울산바위(蔚山峯) Ul-San Rock Peaks, 계조암에서 0.5km 떨어진 곳에 하늘을 뚫을 듯 솟아오른 이 바위는 해발 650m로서 또한 天吼山이라고도 부르며 크고 작은 봉우리가 사방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고 있고 석벽을 깬 철계계단을 올라 사방을 한 눈에 보노라면 속세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김기홍, 『관광설악산』 우진관광문화사, 1975년판에도 “울산바위-울산암-Ulsanbawi Rock 신선들이 금강산을 만들 때 1만 2천봉이 이미 다 찼다는 소식에 울산서 가져오던 바위를 여기에 두고 갔다 한다. 이를 핑계로 울산현감은 신흥사 주지에게 세금을 받아갔다는 전설도 있다.” 李孤雲, 『名山古剎』, 신문출판사, 1982, 180쪽 지도에는 ‘울산암 950m’로 되어 있으며, 『전국유명100산 등산안내지도』 성지문화사, 1990, 36쪽 설악산 지도에는 ‘울산바위’로 표기하고 있다. 최낙민, 『천의 자태, 설악산』 신영, 1999, 42쪽에 “울산바위(울산암) 외설악 신흥사 서북계곡을 따라 올라가 내원암을 지나 산마루에 올라서면 엄청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그 웅대함에 입을 벌리게 하는 산이 바로 울산바위이다. 높이 950m 전체둘레는 자그마치 4km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엄한 이 바위산은 설악팔경 중 하나이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산 전체가 울려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 거리는 것 같이 일명 천후산이라고도 한다. 여름에 구름이 바위허리를 감아 걸렸을 때는 흡사 꽃송이가 된 것 같고, 울산암 겨울 설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산위에 넓은 반석이 수백간이 되어 등산객의 휴식처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울산바위’와 ‘울산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치면 산 전체가 뇌성(雷聲)에 울리어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 소리가 외침 같기도 하고 무슨 부름 같기도 하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리다가도 무슨 울부짖음같이 들리기도 한다. 천동이 길게 일어나면 외설악의 사자가 울부짖는(獅子吼)것 같다. 여름이면 하루 몇 번이고 천후지동(天吼地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성(奇聲)이다. 더욱 울산바위에 구름이 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그 경치가 흡사 구름 꽃송이가 피는 것 같다. 울산암 운화(雲花)는 외설악의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울산암 위에는 넓은 반석(盤石)이 수백 칸(數百間)이나 되어 등반하는 알피니스트들이 여기서 휴식을 하면서 눈앞으로 전개되는 경치를 살피기도 한다. 계조암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 외롭게 뭉쳐있는 바위들 같다. 주위에는 바위 떼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 오밀조밀하게 모였으니 전설이 있을만한 바위 떼이기도 하다.

울산바위가 이룩된 원인, 울산바위는 전체가 화강암(花崗巖:石英·雲母·長石을 주성분으로 한 火成岩의 한 가지)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절리라는 것은 잘라진 바위틈이 직선으로 드리워 졌는 것을 말한다. 화성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일정한 사이를 두고 규칙적인 틈새를 말한다. 이것은 바위가 되는 암장(岩漿)이 깊은 땅 속에서 지열로 말미암아 녹아서 반액체로 된 것이 식어서 응고될 때 생긴 것이다. 대개 기둥모양으로 네모진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바위는 지질의 절리에 의해서 생긴 바위이다.¹³⁾

III. 울산바위 전설의 자료개관

울산바위 전설이 수록된 자료는 1960년대 조사 자료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는 전체 39편이다. 내용상 중복된 게재가 있고, 달마봉과 울산바위가 같이 걸어왔다는 부분적인 변이형이 있으나¹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리지 않고 수록하였다.

13) 황호근, 앞의 책 83~84쪽

14) 강릉대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31쪽, '울산바위이야기'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이들 울산바위 전설자료는 크게 이동(移動), 부세(賦稅), 매미화소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화소는 울산에서 금강산을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경우 ‘날아서 왔거나, 걸어서 온 경우’가 있고, 타인에 의해 누군가가 ‘지고 온 경우’로 나뉜다. 다음은 울산바위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부세화소로 울산원과 승려(동자승)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울산바위나 계조암 매미소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1]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강원도편, 평민사, 1989. ①‘울산바위’(1962년 5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金面星 제보)

[자료2] 黃沔根, 『雪嶽山』통문관, 1973. ①‘울산바위 전설’

[자료3] 崔承洵, 『太白的 說話, 下』강원일보사, 1974. ①‘울산바위의 내력’ ②‘계조암의 매미’

[자료4] 『郷土의 傳説』강원도, 1979. ①‘울산바위의 내력’

[자료5] 『雪嶽의 뿌리』속초시, 1982. ①‘금강산으로 가던 울산바위’ ②‘매미떼의 대합창’ ③‘천후산 울산바위’

[자료6]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①‘계조암과 울산암’ ②‘꾸며낸 영터리이야기’ ③‘설악산의 자연경관’ ④‘설악산 매미울음의 사연’ ⑤‘울산바위와 동자승의 슬기’ ⑥‘울산바위 밑의 매미 떼’ ⑦‘울산바위의 유래’

[자료7]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5,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①‘울산바위 유래’ ②‘계조암 매미소리’

[자료8] 『襄州誌』, 양양군, 1990. ①‘蔚山바위의 설악산 移住’

[자료9] 오희복,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①‘설악산의 울산바위’

[자료10]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江陵語文學』 제10집, 1987, ①‘울산바위이야기’ ②‘울산바위이야기’ ③‘울산바위이야기’

[자료11]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①‘울산바위 매미 떼 합창’ ②‘울산바위 매미 떼’ ③‘울산바위 유래’ ④‘울산바위 전설’ ⑤‘울산바위 전설’ ⑥‘울산바위와 동자승’ ⑦ 울산바위와 세금’ ⑧‘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⑨‘울산바위와 의덕장사’

[자료12]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①‘금강산에 뽐히지 못한 울산바위’

②‘울산바위와 동자승’

[자료13] 두창구·김경남, 『고성·속초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0, ①‘울산바위와 동자승’ ②‘울산바위와 매미’

[자료14] 『강원의 설화』, 강원도 동해안지역, 2006, ①‘금강산 가다가 못 간 울산바위’ ②‘울산암 유래’ ③‘울산바위 유래’ ④‘울산바위’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파악된 울산바위에 대한 최초 채록은 임석재에 의한 것으로 1962년이다. 이 채록 전에 이루어진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39편 대부분이 실기형(失機形)이자 외입형(外入形)으로 볼 수 있다.

최래옥은 명산의 기회를 놓친 전설을 ‘실기형(失機形)’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산비(山飛)’(A산이 날아간다. ~B이미 완성되었다. ~C그만 떨어진 다)에 해당되는 예로 ‘강원도 설악산 울산바위’(채록 1963년 8월 설악산에 갔을 때 현지 주민에게서 처음 들었다)를 거론했다. 이것은 이른바 ‘비봉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울산바위는 지질학적으로 ‘봉’이나 ‘산’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바위’로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¹⁵⁾

IV.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오히복의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¹⁶⁾ 국내 전승자료와 대동소이하나 이 자료에는 금강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십리 돌레의 설악산 울산바위를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정리 수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15) 『雪嶽의 뿌리』, 속초시, 1982, 114쪽 “설악산의 경치를 地質學的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설악산의 기괴한 岩相을 대략은 알 수 있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설악산의 훌륭한 경치는 바위의 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6)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이 자료에 사용된 북한어법은 우리 식으로 바꾸었다. 예컨대 ‘죽음’은 ‘죽음’으로 등이다.

아주 먼 옛날 천하의 명산 금강산이 처음 생겨날 때에 있는 일이다. 산신령은 경치 아름다운 동해 바닷가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하나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하였다. 꽃이 무성하게 할까? 녹음이 우거지게 할까? 맑은 물? 흰 돌…?

머칠을 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산신령은 비로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세상에 더없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산을 만들자면 각이한 모양의 바위를 모아들이어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를 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신령은 온 세상에다가 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바위와 돌들은 모두 금강산으로 모여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날부터 사방에서 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집채 같은 큰 바위도 동해 바닷가를 향하여 굴러가기 시작하였고 떡돌같이 넓적한 바위도 금강산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작고 동글한 돌은 빨리 굴러가고 모나고 둔중한 바위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한 치 또 한 치 금강산을 향하여 움직이었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에도 신기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있었다. 빛깔이 곱고 생김새가 기묘한데다가 크기도 요란하였다. 아름다운 산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리라 생각한 그 바위는 산신령의 분부를 듣자 곧 길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금강산을 향해 떠나기는 남보다 늦지 않게 떠났으나 워낙 덩치 크고 둔중한 지라 걸음은 무척 더디었다. 그래서 이왕 떠난 길이니 기일이 늦지 않게 다달으리라 마음먹고 바위는 부지런히 북쪽을 향해 걸음을 다우쳤다. 고개도 넘고 시내도 건너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기었다.

아침 일찍이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었지만 겨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 날이 저물었다. 바위는 어두워오는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돌리고 섰다가 “에라,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진한데 늦은 바에야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밤을 묵으려고 작정하였다.

바위는 그날 밤에 참말로 단잠을 잤다. 술숨이 무성하여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교묘한 달빛이 곤히 잠든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동해바다 위에 해가 높이 솟아오른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파발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가까이 맞이하고 보니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었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신령님의 분부요.”

파발은 이런 말을 전하며 그 바위더러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바위는 기가 막혔다. 아무쪼록 산신령의 분부를 받은 이상 금강산으로 가서 꼭 한 몫을 하려고 마음 다

졌던 노릇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몹시 섭섭하고 아쉬웠으나 이제는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것처럼 고생스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자니 갈 길도 아득하게 거니와 남들 앞에 나설 면목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엉엉 우노라니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그 정상이 하도 딱하였던지 이렇게 권고하였다.

“마음을 진정하오. 이 고장이 금강산만은 못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울산보다는 훨씬 나아보이니 고향으로 돌아갈 것 없이 여기에 머물러 사시지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 같고 이제는 “오지도 말라”는 금강산은 바랄 수도 없으니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무 모로 보아도 제일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바위는 어젯밤 잠을 자던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리라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설악산 한 중턱의 숲숲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 속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로운 절벽을 이룬 기묘한 바위, 주위가 십리나 된다는 이 바위를 사람들은 ‘울산바위’라고 이름 지었다. 하기는 산중턱에 걸 놓인 것 같이 보이고 방금이라도 굴러 내릴 듯 하니 난데서 굴러온 바위라고 볼만도 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자리 잡고 앉은 지 몇 천 년, 몇 만 년이 지난 이조 중엽 때의 일이다. 어떤 어리석은 양반이 울산고을의 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원은 별로 할일도 없어 고을안의 양반들을 대화루라는데 모아놓고 한담을 하다가 설악산에 있다는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바위를 가지고 무엇을 좀 얻어 보지 못할까 하는 궁리가 들었다.

설악산의 경치가 금강산 다음은 간다고 하니 울산보다는 아름다운 고장이라 그것만 해도 은근히 심술이 나고 욕심이 가는데 거기다가 울산에서 옮겨간 바위까지 있어 그곳 풍경을 돌군다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바위를 도로 찾아올꼬?”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 바위를 울산으로 옮겨왔으면 좋으련만 산악 같은 바위를 무슨 재주로 옮겨온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예 송두리째 깨버리고 싶지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을 끙끙거리며 고심하던 끝에 원은 비로소 한 가지 신통한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설악산에 있는 중들을 들볶아 재물을 긁어보자는 궁리가 떠오른 것이었다.

울산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신흥사(1644년에 설악산에 세운 절간의 이름)에

속한 땅인지라 신흥사를 찾아가 그 곳 중들을 보고 바위 값을 물게 하리라 마음먹은 원은 곧 행장을 차렸다. 위의를 갖추느라 멋진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말 잘하는 이방이며 힘 끌 쓰는 형방에 아전붙이들도 수두룩이 이끌고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갔다. 어느 날 해가 누엠투엠투 저 갈 무렵에 늘 한적하기만 하던 신흥사 절문 앞에는 난데없는 원님 행차 하나가 이르렀다. 가마에서 내린 원은 거드름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절 안에 들어섰다.

“여봐라, 울산 원님의 행차이시다. 주지가 어디 계시냐?”

나졸 하나가 한 걸음 앞서 들어가며 중들을 부르는데 마침 저녁 향불을 피우던 주지(절간 안의 일을 맡아보는 우두머리 중)가 마당으로 달려 나와 뜻밖에 들이닥친 손님을 보고 어리둥절해져서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이 방자한 놈들 같으니, 너의 고장에 우리 고을 바위가 와 있는데 어쩌서 여지껏 모른 채 하고 그냥들 있었더냐?”

원은 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호령부터 앞세웠다. 원의 위엄도 두려웠지만 그 보다는 그의 말이 주지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울해부터는 그냥 있지 못할 줄 알아라. 우리 고을 바위 세를 물어야 하느니라. 알았느냐. 바위 세를 내지 않으면 이 절간을 헐어버리고 말테다.”

울산 고을 원이 그 바위 세를 독촉하는데 그 값이 엄청나게 많아서 해마다 절간에서 거두어들이는 낱알을 다 바쳐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만을 숭상하는 나라의 세 줄을 밟고 하는 행패질이라 억울한 일이지는 하였지만 신흥사의 중들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부터 신흥사에서는 매해 바위 세로 많은 곡식을 실어다 바쳤다. 그것은 물론 고을원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신흥사의 이전 주지는 죽고 새 주지가 왔다. 그 해 가을 또 울산에 바위 세를 바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바위 세를 바치느라고 절간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낱알은 깡그리 울산고을로 실어 보내 온 한 해를 동냥으로 수많은 중들이 연명을 하는 터이었다.

새로 온 주지는 바위 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연해졌다. 어느 모로 보나 천부당만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분명한데 바위 세를 무는 것이 이제는 관례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는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우악스러운 울산고을 아전 놈들이 달려들 판인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때 절에 갓 들어온 한 어린 중이 있다가 퐁퐁거리며 앓고 있는 주지를 보고, 입을 열었다.

“스님, 무슨 근심이 계시오니까?”

“너는 알 일이 아니로다.”

주지는 돌아앉으며 이마 살을 찌푸렸다.

“소승이 알면 안 될 일이오니까? 계책을 쓰실 일이라면 소승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사옵니다.”

어린 중은 두 눈을 반짝거리며 주지에게 즐겼다. 주지는 마지못해 그에게 자기가 걱정하는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중은,

“스님, 이 다음에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오면 소승에게 알려주시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며칠을 지나니 과연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왔다. 이번에는 아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원이 아전무리를 이끌고 직접 들이 닥치었다. 당황한 주지는 얼른 어린 중을 불러내었다. 어린 중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연히 원 앞으로 다가갔다.

“울산에서 왔다는 바위가 우리 절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일뿐더러 도리어 해를 주는 것이오이다. 바위가 앉은 자리가 십리 둘레라 그곳에 해마다 낱알을 심었더라면 술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 터이온데, 그 바위 때문에 우리 절이 본 손해가 막심하오이다. 그러니 지금 까지 우리 절이 본 손해를 울산고을에서 갚아야 할까 보오이다. 너무 오래전의 것은 그만 두시고 여기에 절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천년동안(설악산에 처음으로 절간을 세운 것이 653년 인데, 그때에는 향성사라는 절간이 있었음)에 이 바위가 놓여있던 십리 둘레의 땅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도로 돌려주셔야 할까 보옵니다.”

어린 중의 말에 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조금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원은 낱알을 디룩거리며 고개를 비꼬는데 어린 중은 영특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손해를 정 갚기 어려우시면 당장에라도 그 바위를 옮겨가도록 하시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고개를 들었다.

“네 말대로 바위를 끌어갈 터이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놓아라.”

“그러시오이다.”

“이렇게 해 놓아라.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와서 끌어 갈테다.”

원은 이런 말을 내뱉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바위 세는 물지 않았으나 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주지며 중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생한 새끼로 십리 둘레의 바위를 묶어 놓으라 하여도 어려울 일인데 불에 탄 새끼로 매어 놓으라니 이것은 행패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중은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어린 중은 절 안의 중들에게 벗짚으로 새끼를 꼬라고 하였다. 수많은 중들이 모여 있는 절간인지라 모든 중들이 한 열흘 달

라붙어 새끼를 꼬았더니 새끼더미가 산처럼 쌓이었다.

새끼가 다 준비되자 어린 중은 다시 주지더러 소금 몇 섬과 들기름 몇 독을 마련하게 하였다. 진한 소금물에 새끼를 푹 적시어 절이고 그것을 말리운 다음 다시 들기름에 담그었다. 이렇게 새끼를 마련하자, 어린 중은 그 새끼를 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 줄을 드리워 비끄러 매었다. 바위를 다 동이고 난 그는 새끼줄마다 불을 붙이라고 하였다.

들기름이 묻은 새끼줄에는 불이 잘 달렸다. 그러나 소금에 절은 지라 까맣게 타도 재가 날리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새끼줄이 불탄 재로 바위를 묶어놓은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주지도, 다른 중들도 너무 신기해서 좋아라고 어린 중을 칭찬하였다.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었다. 울산 고을 원은 중들이 감히 불에 탄 새끼로 그 큰 바위를 묶어 놓았으랴 싶어 단단히 흔찌검을 내고 다시 바위 세를 받아 가리라 마음먹고 설악산으로 들어왔다. 신흥사의 주지를 만난 원은 “그래 바위를 묶어 놓았느냐?”하고 물었다.

“예, 분부대로 하였소이다.”

“정녕 불에 탄 새끼로 묶었으렸다?”

“그렇소이다.”

“관가에 거짓말을 하면 죽음을 당할 줄 알아라.”

“여부가 있사오리까?”

원은 주지의 다짐을 받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바위에는 불에 탄 새끼가 열기설기 얽혀져 있었다. 원은 급살을 맞은 것처럼 아무소리 못하고 그 길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하여 울산바위는 바위대로 남아있고 바위 세를 받아가던 울산 고을 원이 다시는 설악산으로 나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의 울산바위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금강산 일 만 이 천봉의 창시자인 ‘산신령’ 그리고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다가 설악산에 머문 바위’ ‘신흥사’의 주지와 동자승, ‘울산 원님’은 세금을 받는 인물로 나온다. 이 전설은 암석이동(巖石移動)과 부세화소(賦稅話素)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암석이동은 ‘실기형(失機形)’으로 ‘암거(岩去)’와 ‘암지(岩止)’의 화소가 나타난다. 즉 “아침 일찍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걸었지만 겨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 말이 저물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밤을 묵으려고 걱정하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북쪽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려고 하는데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와서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산신령의 분부를 듣고 기회를 놓친다.

이러한 실기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울산바위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먼 울산에서 걸어온 노정의 피력(疲勞)에 의해 ‘실기(失機)’한 것이다.

따라서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암거(岩去)’의 걸음이 멈추어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끝자리라는 단역(端役)을 거절하고 도중에 정착한 곳이 설악산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과 같고, 금강산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같았고,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기로 함에 따라 “설악산 한 중턱의 숲속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는 바위가 멈춘 ‘암지(岩止)’ 화소이다.

위의 전설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비봉형이라고 규정하는 ‘날아서 온 바위 화소’는 불과 한 편이다.¹⁷⁾ 따라서 울산바위 전설을 통칭하여 비봉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타인에 의해 울산바위가 옮겨진 중요한 사례로 ‘부산(負山)’유형의 화소가 전한다. 이것도 전체 39편 가운데 단 한편만이 전하고 있어 울산바위 전설의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 그 내용은 천하장사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위를 어깨에 지고 15일 동안 금강산으로 가다가 설악산에 멈추자 바위가 울어서 울상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⁸⁾

금강산에도 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하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우리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

17) 黃沅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84~85쪽 ‘울산바위 전설’

18)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1)1983, 46~48쪽,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계조암과 울산암’

이 한 봉이 없어 12,000천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하기 한이 없으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 한 봉우리를 저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울산에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우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우를 짊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보니 만약에 내려놓았다가, 짊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짊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 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험레벌떡 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짊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 바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놔 두어야겠구나.”…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괴씸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괴씸하냐, 그래 인제 가만히 놔 두지도 않고 내 팽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앓아 울다 지쳤다, 울다지쳤다…패랭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산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 때면 심산에 후(吼)자가 우는 듯하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세화소는 이동형 전설과 다른 것으로 정착과정에서 나온 화소다. 즉 이것은 이 바위의 본고지인 울산원님과 옮겨온 설악산 신흥사 동자승 또는 어린아이의 지혜대결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두 계층의 대결은 연령상이나 계층상 불공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울산원님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민이 창조한 전승설화상의 정신적 승리다.

울산에서 이곳으로 왔으므로 세금을 받아온 원님과 지혜를 겨룬 신흥사 동자승의 승리로 세금은 면한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입장이 바뀌어 울산에서 돈을 내거나 아예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어린 동자승이지만, 십리 돌레의 울산바위에 곡식을 심으면 오히려 소득이 있을 터이니 653년 향성사가 생긴 이래 조선시대 중엽까지 약 천 년 간의 지세를 받겠는 것이다.

이러한 원님과 동자승의 지혜 겨루기는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어 놓는 난

제(難題)를 쉽게 해결한 동자승의 승리로 끝나고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금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울산바위는 명실상부하게 울산의 소유가 아니라 설악산 소유가 된 것이다. 금강산의 일부가 아닌 설악산, 울산의 소유가 아닌 설악산 울산바위가 되는 과정이 민중적 승리로 나타난다.

결국 울산바위 부세화소는 경관이 갖는 부가가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울산바위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은 금강산을 비롯한 다른 어떤 곳의 바위에 비하여 비교우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울산바위의 다른 각 편에서는 동자승 대신 원님의 나이 어린 7세 아들, 또는 5세의 어린 아이, 할아버지의 손자 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단순한 지혜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¹⁹⁾ ‘귀찮으니 도로 가져가라’든지 ‘그동안 보관한 보관세를 내라’ 또는 ‘울산바위라면 울산에 있지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이자 생활상의 지혜를 간접화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 지혜와 재능이 합쳐지고 예술적으로 가공된 흔적을 울산바위 전설은 담보하고 있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화소에는 신흥사와 향성사라는 사찰문화를 또 다른 배경으로 하고 있어 불교설화적 양상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계조암 매미와 관련된 이야기에 구체화되는데 울산바위 아래 계조암이 위치하고 있다.

19) 단순한 지혜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울산서 바우세를 받으러 오면 우리 양양에는 기묘한 바우가 많아서 좋은 경치를 이루고 있는데 울산바우 같은 것은 아무 볼품도 없어 귀찮으니 어서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동안 물어왔던 바우세를 도로 돌려보내고 그동안 양양서 울산바우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그 보관세도 물어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1989, 104쪽) “그런데 울산서 여길 세금을 받아갔거든, 그전 참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그래 인제 손지를 업구 돈을 구하러 나섰는데 그 손지가 하는 말이 ‘그거 왜 돈을 주냐? 산 가주 가라 그래. 산 가주 가라, 그럼 되지 뭐하러 돈을 쥐’ 가만 할아범이 손지를 업고 땡기다 보니까는 그 소릴 하는 걸 보니 그럴듯한 말이지, 생각해보 ‘우리가 저 산 줄테니 가져가라. 우리 귀찮아’(윤경문, 강릉어문학 10집) ‘왜 남의 산을 가져갔느냐 그래 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를 받아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섯 살 먹은 애가 ‘그게 어찌 당신네의 산이라면 거기 있지 왜 여기 있느냐? 울산이 여기 있고 거기 울산바우는 거기 있었지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도루 찾았다는 거야’(전달재, 남.72)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문학대계』 2-4, 1983, 115쪽

계조암 매미떼에 관한 이야기도 울산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울산에서 날아온 약삭빠른 매미들이 떼 지어 울었다는 것이다. 도술로 울지 못하는 울산지역 매미의 뿔까지 대신하여 울어준다는 것이다. 매미울음소리가 요란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울산에서 온 바위가 있다하여 그 연고를 찾아와서 울었다는 지연성(地緣性)을 보여준다.

다음은 계조암, 달마봉과의 관계이다. 울산바위, 계조암과 달마봉은 일정한 연계성을 갖는다. 울산바위와 함께 달마봉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옮겨왔으며,²⁰⁾ 달마봉에서 보면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이 마치 목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목탁바위로 불리는 뛰어난 기도처로서 수도의 도량이라는 점이다.²¹⁾ 가히 불교설화적 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리한 울산바위 전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바위이동과 멈춤, 좌정에 관한 이동화소.

둘째, 바위에 세금을 매긴 것에 관한 부세화소.

셋째, 울산바위 매미 떼 울음에 관한 매미화소.

V. 울산바위전설의 의미 분석

울산바위 명칭에 대한 필자의 관견(管見)은 ‘울산’이라는 고유어의 명칭이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는산’을 줄여 ‘울산’으로 지칭한 것

20) “저기 저 달마봉하고 울산바우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왔거든. 울산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강산이 다 찻다는 얘기여.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울산바우가 저기메 떡 서선 이젠 못간다그러니까 달마봉이, 여기가 달마봉이야. 그래 따라 올라오다가, 예휴, 그게 못가면 나두 못가지 뭐...그래 울산바우가 달마봉이 거기 떨어져 있어.”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31쪽,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21)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4, 212쪽 “잠이 들었는데 노승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대는 왜 목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 지 몰라 고민하느냐,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의 달마봉에 올라가서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탁이 보일 것이다.’...다음날 시킨 대로 맞은편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의 지붕인 큰 바위덩어리가 꼭 목탁과 같고 그 옆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는 그대로 목탁방망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를 보고 ‘계조암이 바로 큰 목탁이었고 목탁소리는 이 바위에서 났으며 목탁 속에서 수도를 하니 득도가 속하지 않겠는가?’

이 후대에 ‘천후산(天吼山)’이라는 한자어로 정착된 것이다. 우리말로 ‘우는 산’이라 하다가 ‘울산’이 될 수도 있다.²²⁾ 그러나 이것도 ‘울산’이 아니라 형태상 ‘울-상(相)’이 아닐까 의심된다. 또한 ‘리산(籬山)’은 ‘리상(籬相)’으로 즉 ‘울타리상’이 줄어들어서 발음상 ‘울상’으로 불리다가 ‘울산’으로 발음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왜냐하면 ‘울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위’를 접합한 ‘바위산’임을 관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울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산이 아닌 바위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울산’은 ‘울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미상 두 가지를 겸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리의 음성적 측면에서 ‘우는 상’의 ‘울상’이고, 산이 지닌 형태적 측면에서 ‘울타리상’을 축약한 ‘울상’에서 파생된 용어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헌에서 정착되면서 ‘천후산(天吼山)’ 또는 ‘이산(籬山)’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여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간에서는 ‘울산바위’로 지속화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울상’인 것을 한자로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울산’의 원래 소리인 ‘울상’이 듣기에 그리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음에 따라 굳이 산도 아닌 이 바위를 ‘울산’이라 불렀을 것으로도 의심된다.²³⁾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울산바위’를 ‘산’으로 불 것이냐 ‘바위’로 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 형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바위산이다. 즉 바위가 중심이 된 산이다. 그것에 구멍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그 모습이 마치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울산바위’를 ‘울

22)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7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본명이 천후산인데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하다가 나중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장현영, 남.54, 중앙동 500번지, 1981년 4월 27일 조사)

2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첩첩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의덕장사가) 패땀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상바위라 합니다.”(유만석, 남.50, 설악동 170번지, 1981년 4월 17일 조사)

상바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은 바위도 내포하고 있지만 구전설화 상으로 표현된 것을 분석해 본다면 '바위산'으로 '바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디 이 바위를 '산'으로 보아서 '울산'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직까지 '울상'이라 기록된 사료를 찾지 못했다는 점과 고유어의 음성적 표현인 '울'에 한자어 '산'이 붙은 것은 자연스런 언어 관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이든 울상이든 현전하는 울산바위 전설은 산악창조형의 고대전설이다. 조물주나 산신령에 의해 금강산이 형성되었듯이, 설악산 울산바위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왔다할 정도로 우주개벽에 의해 아름다운 바위가 명승을 이룬 것이다. 사람들의 자연관은 이러한 화소를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울산바위는 '울상'도 아니고 '우는 산'도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바위'일 뿐이다. 거기에 형태적으로 음운학적인 유래를 창의적으로 붙여 흥미로운 집단전승의 이야기로 전승화 한 것이다. 한편으로 계조암, 신흥사와 연관하여 불교설화로서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이 전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으로 전승하면서 전설이 지닌 역사성과 전승성, 지역성의 면모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산 설악산 울산바위는 금강산과 이렇게 연결된 산으로 백두대간에 형성된 산맥과 바위의 창조설화형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유만석 제보자에게 들었던 구전설화의 전승적 창작성은 설악산 지명유래를 “왔다고 해서 와선대, 비가 온다고 해서 비선대, 흔들흔들 흔들 바위, 울고 앉았다 울산바위, 달려간다 달마바위”라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⁴⁾

24)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1)1983, 39쪽

VI. 맺음말

울산바위는 산이자 바위다. 그러므로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이라는 이름과 함께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라 하여 바위라는 단어가 보태어져 전승된다. 그러나 대부분 구전되는 설화 각 편에 나타난 것은 한결 같이 ‘바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지질학적으로도 울산바위는 ‘울+산+바위’가 아니라 ‘울산+바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명상 ‘울산’이 아니라 ‘울산바위’ 전설로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바위이동형 전설은 후대에 이르러 자연에 인격성(人格性)을 부여하여 창작된 것이고, 원래 형태는 ‘소리’와 ‘형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리’는 ‘우는 산’ ‘형태’는 ‘울타리산’이라는 용어에서 ‘울산바위’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지명상 ‘울산’과 동일함에 따라 이동형 전설로 확대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산이동 유형은 ‘산’이 아니라 ‘바위’로 보고 ‘비봉형(飛峰形)’이 아닌 ‘실기형(失機形)’의 ‘암거(岩去)와 암지(岩止)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9편의 각 편중에서 비봉형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불과 한 편이고 부암형(負岩形)도 한 편이고, 대부분 ‘도보형’으로 걸어서 온 것이다.

산이동형의 암거(岩去-바위가 걸어간다. 바위가 날라 간다, 옮긴다)소재 이외에도 인암거(引岩去) 즉 장사가 끌고 가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유형도 있지만 울산바위 전설은 ‘바위이동형 전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것은 산이 아닌 바위가 스스로 ‘날아서 왔다는 유형’과 ‘걸어서 왔다는 유형’ 그리고 타인이 ‘지고 왔다는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바위가 설악산에 왔다는 것보다는 이곳으로 옮겨온 이유와 그 정착에 대한 설화적 화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한다.

울산바위 전설은 ‘울’이라는 접두사에 산과 바위가 합쳐진 용어지만 기본적으로 ‘울’은 ‘울다’와 ‘울타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음운론적, 형태

론적인 화법으로 집단 전승상 지역민의 창작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는 ‘바위’가 강조된 ‘울상바위’가 그 본래적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 등의 한자어로 전승되면서 ‘산’으로 인식되었고 지금까지 ‘울산’의 ‘바위’로 전승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바위 전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대중적 지혜와 창작성, 인격성, 자연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울산바위 전설은 이동화소, 부세화소, 매미화소를 중심내용으로 전승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설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백두대간의 동일 맥락(脈絡)이라는 친연성(親然性)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 전설은 지역성과 자존심을 강조하고 있다. 단역(端役)을 거절하고, 좌정한 명산으로 울산원의 부세를 극복한 화소가 이를 반증한다.

셋째, 울산바위의 어원은 ‘울상바위’에서 근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술 발음상 ‘울상’이 ‘울산’으로 구현되면서 이동형(移動形) 전설을 집단 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이 전설은 계조암, 달마봉과 연계되어 하나의 명승권역을 이루고 불교문화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이 전설은 가장 한국적인 실기형(失機形) 바위이동 전설로 의인화와 인격화를 통해 대중적 지혜를 드러내고 자연친화적 사상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문헌〉

- 金道東, 『全鮮名勝古蹟』, 1927
-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 江原道體育會, 『江原名勝古蹟』, 1959
- 文教部, 『雪嶽山』, 1967
- 黃泓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 太白의 說話(下), 강원일보사, 1974
-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一潮閣』, 1981

束草市, 「雪嶽의 뿌리」, 1983
 인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평민사, 1989
 襄陽郡, 襄州誌, 199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박헌균, 『조선사화전설집 1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두창구·김경남, 『고성·속초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0
 한장규,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속초시·속초문화원,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2003



토왕성폭포 사진제공·속초시청

“폭포를 보지 못했다면 여행이 헛것될 뻔했네.”
이동항(李東沆), 「지암해산록(遲菴海山錄)」

2. 설악산,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설악산은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이 상쾌해진다. 흰 눈의 냉기가 청량한 바람을 타고 옷깃을 스쳐가는 느낌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줄지은 날카롭고 뾰족한 봉우리가 구름 띠를 두르고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나, 백옥암반을 타고 흐르는 비취빛갈의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폭포를 이룬 모습은 신선의 경치가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진다.

금강산이 일 만 이 천봉을 자랑한다면 설악산은 일 만 이 천 폭포가 절경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설악의 폭포가 명승이라는 뜻이다. 맑은 물소리가 하늘의 구름도 멈추게 한다는 토왕성폭포, 비룡폭포,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설악산 계곡들은 가히 다양한 폭포를 품고 있는 천하의 왕국이다. 한 여름철에 비가 내리면 설악산 계곡들에 흐르는 물줄기가 무려 일 만 이 천 폭포를 이루어 이곳저곳에서 웅장한 교향악이 들리는 듯하다. 설악의 품에서 자라난 나는 지금도 그 울림과 가슴 설렘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라고 읊은 송강 정철의 시조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수려하면서도 웅장함. 그곳이 설악이다. 설악을 ‘웃 입은 금강’이라고도

하는데 육당 최남선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으되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경치라 하고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는 산'이라고 높이 평하였다. '설악'의 어원은 신성광명의 산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우리의 고어 '솔 뒹' 또는 '서리뒹'을 한자 표기한 것으로 신성, 결백, 숭고함이라는 뜻이다. 줄지은 바위색깔이 모두 흰 눈과 같다든지, 한가위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하지까지 눈이 녹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기록들이 전하듯이 설악의 명칭은 그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보듬고 있다.

설악산은 신라 때부터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서 소사(小祀)로서 제향한 곳이다. 분단된 한국의 최북단에서 금강산과 마주한 설악산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중미인'이며 연간 천 이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다. 주봉인 대청봉(1,708m)은 금강산(1,636m)보다 높고, 권역 또한 금강산보다 넓다.

은자(隱者)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설악산은 유다탕폭(有多湯瀑) 즉 폭포와 담소가 자랑거리다. 설악산에는 아름다운 8경이 전하는데 폭포와 관련된 용비승천(龍飛昇天)과 칠색유홍(七色有虹)이 들어있다. 용비승천은 설악산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이 황홀하며, 물이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이 올라가는 듯한 선경이 장관이라는 말이다. 칠색유홍은 폭포수에 햇살이 반사되어 생기는 비말(飛沫)에 의해 영롱한 일곱 색의 무지개가 발생하는 경치로서 바람 따라 하늘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다.

1994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에 있는 비룡폭포 계곡일대를 비롯한 외설악 5곳, 내설악 5곳 등 총 10곳이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은 크게 외설악과 내설악으로 나뉜다. 천불동계곡의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외설악이 남성적 경관이라면, 우아한 계곡동천으로 형성된 내설악은 여성미를 간직하여 음양이 짝을 이룬 형국이다. 예로부터 설악, 금강, 오대산을 3형제 산이라 불렀

는데 심산정경(深山情景)의 감흥과 경치는 설악이 으뜸이라 하였다.

명승 제95호 비룡폭포 계곡일원과 96호 토왕성 폭포는 바위 틈새로 절묘하게 흐르는 물줄기, 깎아지른 바위산들, 이름 모를 희귀한 새와 곤충들, 가을 든 단풍을 비롯하여 솜다리 꽃(에텔바이스), 금강초롱, 구절초, 참취꽃, 과남풀, 산오이풀, 산 꿩의 다리, 투구꽃, 분취, 바위 떡 풀꽃, 흰 꼬리조팝나무 꽃, 바람꽃, 잔다리, 솔채꽃이 계절마다 천상의 화원을 이룬다. 폭포수를 감싼 암벽 그리고 수목들은 조화롭고도 포용의 미덕을 보인다. 폭포수는 쏟아 내리치지만 이를 심취해서 감상하다보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승천의 기운마저 느낀다. 이처럼 폭포는 조화와 포용, 낙수와 승천의 미학성을 담고 있다.

비룡(飛龍)폭포는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인 토왕골에 있다. 육담폭포와 토왕성폭포의 중간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40m의 직탕이다. 좁고 험한 골짜기에서 간명하게 쏟아지는 한 가닥 물줄기는 멀리서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하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전에 가물었을 때 처녀를 이곳에 사는 용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 한재를 면했다고 하며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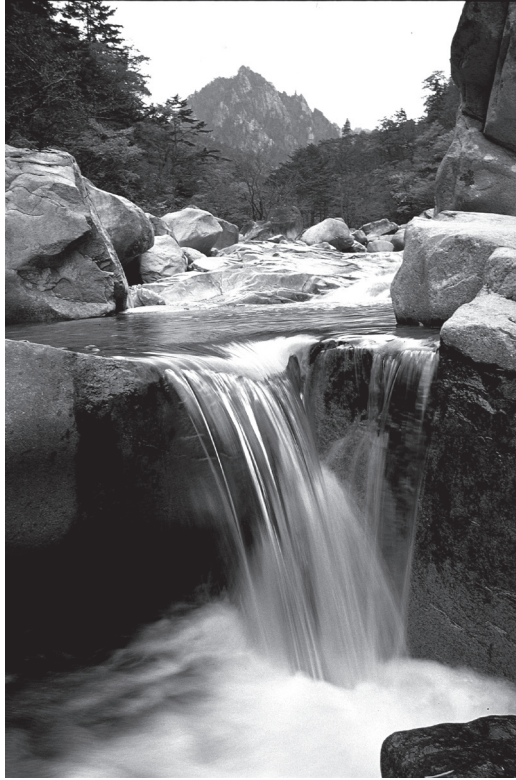
화채능선에서 시작된 계곡물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토왕성(土旺城)폭포는 3단 연폭(連瀑)으로 굽이쳐 흐르는 장관이다. 일명 '신광(神光)폭포'라고도 부르는데 높이 320m로서 아시아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며 15회째 빙벽등반대회가 딱 이틀간만 열린다. 토왕성이라는 이름은 이른바 땅(土)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오행설(五行說)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봉우리가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싼 양상으로 옛 기록에는 토왕성(土王城)이라 표기하고 옛 성터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칠성봉(1,077m) 북쪽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토왕골을 이루고 석가봉, 노적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멀리서보면 선녀가 흰색 비단을 바위 위에 죽 늘어놓은 듯 오묘하다.

대승(大乘)폭포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데 길이 88m로서 금강산 구룡폭, 개성 천마산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라고 칭한다. 일명

‘폭포의 왕자’라하며, 한계폭포라고도 부른다. 한계령 자락 장수대에서 올라가면 대승령(1,210m)일대로서 신라 때 경순왕이 머물던 곳이며, 폭포 맞은편 반석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쓴 글씨가 있다. 이 글씨는 곡운 김수증(1624~1701)이 썼다고 한다.

이 폭포전설은 모성애가 깃들여 있다. 옛날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동아줄을 내리고 폭포 암벽에서 버섯을 따는데 절벽위에서 “대승아, 대승아”라고 부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급히 올라가 보니 짙신만한 지네가 동아줄을 뜯어서 끊어질 위기였다. 아들 대승이의 위험을 알려준 어머니 외침이 메아리친 폭포라고 하여 대승폭포로 지었다고 한다.

설악의 명승 10곳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특별한 장관을 이룬다. 비룡, 토왕성,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십이 선녀탕(98호), 수렴동 계곡(99호), 비선대와 천불동계곡(100호), 용아장성(101호), 공룡능성(102호), 울산바위(103호), 내설악만경대(104호) 등 이곳에서는 세속의 티끌을 깨끗이 털어내는 생명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폭포는 자연의 역동적 몸짓이자 숨겨진 속살이다. 세계적 명산 설악산이 내보이는 폭포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큰 선물이자 암호가 아닐까.



천불동의 낙수 사진제공·속초시청

“설악의 물은 신령스러워 금강산보다 뛰어 납니다.”
권용정(權用正), 「설악내기(雪嶽內記)」



3장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1. 설악산 전설과 개발사 그리고 기행문
2. 속초지역 아리랑의 전승 맥락과 특성 분석
3.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설악산 전설과 개발사 그리고 기행문



1. 머리말

설악산 지명유래는 전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인간세계의 현실을 생활무대로 활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염원과 욕구를 반영한다. 전설은 일반적으로 연기성(緣起性)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설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자연 창조전설, 산(山)·봉(峰)·령(嶺)전설, 바다·섬 전설, 강·폭포전설, 연못·샘전설, 바위·굴전설, 마을·지명(地名)전설, 성·다리전설, 사찰·탑상(塔像)전설, 누정(樓亭)·비각(碑閣)전설, 꽃·나무 전설, 동물·사물전설, 풍속·유래전설, 영웅(英雄)·장수(將帥)전설, 이인(異人)·명사(名士)전설, 고승(高僧)·이승(異僧)전설, 예인(藝人)·재인(才人)전설, 기타 인물전설 등으로 세분화된다. 학자들은 다양하게 전설을 분류하고 있는데 2대분류에서 최대 6대분류까지 하였다.

(1) 2대분류

①역사전설 ②풍물전설

(2) 3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사사(史事)전설 ③풍물전설(산천경물전설·지방특산전설·풍속습관전설),

①인물전설 ②역사전설 ③풍물전설

(3) 4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자연전설 ③풍습전설 ④문화유물전설,

①지명·지형물전설 ②인물전설 ③풍속·습관전설 ④자연현상전설

(4) 6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역사사건전설 ③지방풍물전설 ④민속전설

⑤향토특산전설 ⑥사회생활전설

본고에서는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설악산 전설자료집과 기행문, 개발사 등의 산재한 편린들을 일부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전설집의 하나는 1966년에 속초시교육장에 의해 출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자미상인데 1970년대로 추정되는바 사료적 가치와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설악산 관광개발에 앞장섰던 최구현 씨가 1950~60년대 진행되었던 설악산 개발에 대한 내용도 실고, 수록한 글 가운데 1958년 대학생들이 대청봉을 오르고 식물채집의 일화도 있으며, 1963년 고등학생이 설악을 탐방하고 쓴 기행문도 재미있다. 설악을 절세가인이 그윽한 골짜기에 수줍어하는 듯한 경관이라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설악산학'이라고 말할 만한 산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악의 진면목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고연재(高淵在)의 외설악관광안내서¹⁾

이 책자는 1966년 속초시교육청 고연재 교육장이 발행인으로 된 총 41쪽이다. 발행처는 속초시교육청, 인쇄는 삼화인쇄사(TEL.76)이다. 수록내용은 속초지구, 양양지구, 고성지구 등 3부로 나누었다. 속초지구에는 양폭포, 대청봉, 유선대, 천화대, 집선봉, 형제암, 노루목치, 도문리, 영랑호, 금장대, 척산온천 등 30개 항목이 들었다. 양양지구에는 강선리, 낙산사, 의상대, 보타굴, 영혈사, 명주사, 조산해수욕장, 하조대, 오색약수 등 9개 항목이고 고성지구에는 청간정, 화암사, 화진포, 건봉사 등 4개 항목으로 3개 지구의 총 43개로 서술하였다. 책자는 소형국판 국한문 인쇄본으로 본문에는 관련 흑백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 11cm 세로 19cm이다. 이 책자는 『외설악관광안내(外雪岳觀光案内)』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 관광안내 책자로 판단된다. 이 책자는 속초, 양양, 고성지구의 관광자원을 소개한 것으로 비교적 일찍이 체계화되어 나온 자료라고 평가된다.

고연재 속초시교육장은 손양면 하양현리 태생이다.²⁾ 이 분이 책자의 머리말에서는 ‘연구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애로와 고난 끝에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속초시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이 비교적 체계성을 갖춘 연구자료를 겸한 관광안내 책자로 준비하여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책자의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맞춤법도 현대어로 바꾸었다. 특별한 지명이나 인명, 혼동되는 용어, 고유명사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책자에는 안내문과 머리말이 들어 있고 이어서 속초지구

1) 高淵在, 『外雪岳 觀光案内』 東草市教育廳, 三和印刷社 1966년 5월.

2) 『襄陽郡誌』(下卷), 양양문화원, 2010, 2012쪽 “고연재(高淵在, 1922~1999) 관향은 제주이며 호는 설송(雪松)이고 손양면 하양현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거쳐 강원도립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상평초등학교 훈도를 시작, 8·15광복을 맞아 월남하여 인구국민학교에 근무하다 양양이 수복되니 귀향하여 손양면장을 지내면서 건후복구 및 사라져가는 문화의 발굴, 부흥에 힘썼으며 오호·천진·영랑국민학교장을 거쳐 속초교육청 초대교육장에 취임하여 수복지구 교육재건에 전념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사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며 지역구국회위원인 김종호를 특히 후원하니 지역건설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강원도교육위원회 초대의장을 역임하였다. 손양면 출신인물을 규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설송회(雪松會)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부터 시작된다. 본고에서는 속초지구의 관광안내문만 수록한다.

〈안내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으로 이름 낫거니와 기중(其中)에도 우리 강원도는 도처에 영산승지(靈山勝地)가 많음은 세상의 공지(公知)하는 바이다. 과거 금강산이 만국공원으로 전 세계에 그 명성이 자자하였을 때 설악산은 은연(隱然)히 그 내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옛날에 금강산은 마치 노방에 술파는 여인과 같고 설악산은 절세의 가인이 그옥한 골속에서 수줍어하는 듯 경관이라 비유되어왔다. 이러한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당시(當市)는 도처에 명승과 고적이 산재하여 시인묵객과 풍류낭인(風流浪人)의 발자취가 그칠 줄 모르며 근자에는 내외관광객의 탐방이 일익증가(日益增加)하고 앞으로 설악산이 완전 개발되면 만국공원으로 등장할 날도 불원(不遠)하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고 자유로이 탐승할 수 있는 명승과 고적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함.

〈머리말〉

문화재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문화재에는 그 민족의 혼이 깃들고 피가 흐르는 산 역사요, 민족정신의 상징이라 하겠다. 이렇게도 문화재가 그 나라 민족의 산 얼로서 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수난과 더불어 너무나도 가혹한 학대를 당하여 온 것 같다. 국보적 문화재가 바다를 건너는가 하면 시중의 상품 진열장에서 골동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래서 인지 현재 국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어 그 보호와 관리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재를 창조해왔고 그것이 동양의 많은 문화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구려의 고적에서 보듯이 기운이 생동하는 사신도(四神圖)나 신선불로사상에서 빛어 나온 신선 비선도나 불로초지 같은 관념적인 그림과 주인공의 초상화 등 자유분방하게 또는 세려(細麗)하게 그 기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신라고적에서 나오는 금관총을 비롯하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공예품을 만든 솜씨는 당대 일본의 고화에 비할 바 없다 하며 부여의 백제탑이나, 익산의 미륵사탑 등 그 우아하고 세련된 솜씨는 우리 조상들의 창의력을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문화재가 그 얼마나 소중한 우리민족의 정신적 유산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문화민족으로 높은 금도(襟度)를 자랑하고 오늘의 문화 창조를 고무적으로 이

끝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온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판단을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여야 하겠으며 그 유래와 발전상을 밝혀 인류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겠기에 연구 자료의 한 분야로서, 이 고장의 문화재를 수록한 '외설악'의 책자 발간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고장에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재, 명승고적을 가지고 있어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 제위에게 안내서로 대한 정도의 몇 개의 서적들은 있었으나 그 역시 체계적이고 통일된 내용이 되지 못하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신빙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애로와 고난 끝에 이 책을 완성하였으니 이 고장의 관광안내와 이 나라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다소나마 참고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서기 1966년 3월 속초시교육장 고연재(高淵在)

1) 속초지구

(1) 설악산(雪嶽山)

속초시 서남에 솟은 산으로 해발 1,708m 태백준령을 동서로 서북쪽을 내설악(강원도 인제군), 동남쪽을 외설악(강원도 속초시)이라 부른다. 수목이 울창하고 기암괴석과 폭포 협곡 사이의 계류(溪流)가 수려한 절경을 이루고 고래(古來)로 명승들이 수도하던 사찰들과 기담설화가 도처에 산재하여 국내외에 알려진 관광지로 이름 높다. 설악산을 승가(僧家)의 기록에 의하면 설산(雪山) 또는 설봉산(雪峰山). 설악산 등으로 쓰여져 있다. 설악산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금강산을 옛날에는 '서리피(霜嶽)'라 불렀으니 그와 마찬가지로 설악산도 '살피(雪嶽)'라 부른 것이라 본다. 본래 신라어로 '설(雪)'은 '살'의 음역(音譯)이요, '살'은 인간 범유(凡有)의 활동상을 규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다(生命)' '숨(呼吸)' '사람(人間)' '새벽(黎明)' '샘(泉)' 등을 포함해서 그 어근이 이와 통하며 불교에서도 불타의 몸에서 나온 영주(靈珠)와 영골(靈骨)을 가리켜 사리(舍利)라고 한다. 그러나 지극히 청정한 생명의 신비적인 표시물을 영골이라 하였

으니 설악이라는 ‘雪’은 결국 신성(神性)을 의미하는 ‘살’의 음역이 분명하다. ‘살’(雪)은 가장 신성하고 순백, 숭고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택한 한자이다.(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에서)

그리고 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 등을 보면 ‘중추시설(仲秋始雪) 지하내소(至夏乃消) 고명언(故名焉)’(중추부터 눈이 시작되어 여름에 이르러 그치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이라 하였고 금원(錦園)여사는 그의 호동낙서기에 ‘석백시설(石白如雪), 고명설악(故名雪岳)’(바위색이 눈과 같아서 이름을 설악이라 했다)이라 하였다. 요컨대 설악산은 다설조설(多雪早雪)을 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위마다 희고 깨끗하면서도 범할 수 없는 영역(靈域)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명산(名山)이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 있겠다.

(2) 신흥사(神興寺)

속초시내에서 15km, 설악 산중에 있는 사찰로 창립의 역사가 깊고 주위의 산수경이 미려함은 우리나라 몇 개 대 사찰과 함께 손꼽힌다. 신라 28대 진덕여왕 7(서기 653)년에 자장율사(慈裝律師)가 오대산으로부터 설악산에 들어와서 사찰을 건립하고 향성사(香城寺)라 하였다. 절 앞뜰에는 9층 석탑이 세워져 있고 세존사리를 봉안하였다 한다. 즉 이 사찰은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닦고 귀국하여 건립한 사찰과 탑 10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고기(古記)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신라 선덕여왕 6(서기 637)년에 왕명을 받고 당나라에 가서 청량산(淸涼山) 문수보살 밑에서 성심껏 정진한 끝에 마정수기(摩頂手記 즉 득도하였음을 말함) 불정골(佛頂骨), 불아(佛牙: 부처님의 어금니), 금점가사(金點袈裟: 부처님이 입던 금무늬가 있는 가사) 한 벌, 불사리 100장을 가지고 선덕여왕 15년에 귀국하여 황룡사에 창립 9층 석탑을 세우고 불사리 33장을 봉안하였으며 28대 진덕여왕 4년에 통도사를 건립, 다음해 6년 오대산 지로봉(地爐峰) 및 중대(中臺)에 적멸궁(寂滅宮)을 건립 13층의 대화탑(大和塔)을, 태백산 갈래사(葛來寺), 설악산의 봉정암(鳳頂巖) 등을 건립하고 각각 불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자장율사가 오대산으로부터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오색이 영롱한 서리가 어리어있고, 봉마다 서린 기이한 향기는 코가 막힐 지경이므로 한걸음 떨 적마다 합장배례하며 국내(局內)를 살펴보니 겹겹이 쌓인 동천(洞天)은 영기(靈氣)에 잠겨있고 세속을 벗어난 품이 가히 마음을 가다듬고 수성(修性)할 사람이 있을만한 곳이라 단정하고 법열(法悅)에 이른바 중향성불토국(衆香城佛土國)이 바로 이곳임을 믿고 대가람을 건립하니 이것이 향성사인 것이다.

이 향성사는 223년 만에 수천 칸의 대사찰이 일조에 잿더미로 화하고 앞뜰에 세워진 9층 석탑도 화재 당시 파손되고 현재 3층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의상법사(義湘法師)가 선정사(禪定寺)를 창건하다가 인조 22년에 소실, 다음해인 인조 23년에 고승 운서(雲瑞), 연옥(連玉), 혜원(惠元) 등 3승려가 창건한 것으로 법당 극락보전을 비롯한 수개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의상법사의 선정사가 불타버린 후 대부분의 승려는 무심히 흩어졌으나 승려 중 유지층에 속하는 운서, 연옥, 혜원 3승려는 수백 년의 고찰이 일조에 변을 당함을 한탄하고 기어코 사찰을 재건할 것을 결심하였다. 하루는 3승려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한다.

달마봉(達磨峰) 아래 향성사 옛터 뒤에 자리 잡은 소림암(小林庵)으로부터 신인(神人)이 출현하여 “나는 달마이다. 그대들은 절을 저 건너편에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삼재(三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니, 저 곳에다 절을 세우라.”하고 비천하였다. 이렇게 신의 계시로 창건하였다하여 신흥사라 하였다. 신흥사의 불상은 선정사 당시 봉안하였던 불상으로 의상법사가 직접 조성한 3불상으로서 지금부터 약 1,000여 년 전이 된다. 신흥사의 범종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향성사 당시의 종으로 향성사가 소실될 때 깨어졌던 것을 조선 영조 24년에 화주원각(化主圓覺)이 개주하였으나 충분치 못하여 10년 후인 영조 34년에 화주 홍안(弘眼)이 다시 개주하였다. 중량이 천근, 6.25의 총상을 입은 채 현재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 비치되어 있다.

(3) 내원암(內院庵)

신흥사에서 북쪽 계조암으로 가는 2km 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암자로서 그 초창은 인조 24년 선정사가 불탄 뒤 3년 만에 신흥사를 창건하고 선정사의 옛터를 비워두는 것이 너무도 애석히 여겨서 이 암자를 창건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도하던 비구니 김수영(金壽永)은 이 암자로 전적하여 옛 조사들의 선정하던 성지인 줄 깨닫고 믿음을 대발하여 자기의 토지 50석을 헌납하고 선원을 개설하였다.

(4) 계조암(繼祖庵)

울산암(蔚山岩) 남쪽 기슭에 석굴이 있다. 이 굴 속에 지은 암자로서 선정사 창건 전부터 있던 옛 암자의 하나이다. 이 암자는 동산, 각지, 봉정(東山, 覺知, 鳳頂) 3조사가 수도하던 곳으로서 의상, 원효 두 도사에게 계승되었다 하여 계조암이라 이름 지었다. 이곳은 불교에서 말하기를 가장 영감이 빠른 곳이라 하여 성심으로 기도하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암자 밑에 쌍동암(雙童岩)이 있다. 이 바위는 암자의 수문(守門)이 의(義)를 갖고 있다. 문밖에는 좌우에 와우암(臥牛岩)과 용암석(龍岩石)이 있어 청룡백호를 이루고 있으며 우암을 옛말로 '식당바위'라 하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한다. 바위 옆에는 소뿔(牛角)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일명 흔들바위(動石)인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이나 백사람의 힘으로 흔들어도 그 움직임의 율(率)은 한가지인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본래 이 바위는 양쪽에 돌이서 있었는데, 미신의 지리에 빠진 자가 승가의 영기가 너무 많은 것을 시기하여 바위하나를 굴러 떨어뜨렸다고 한다. 용암석은 용의 수염에 흡사하고 바위 아래 여의주석(如意珠石)이 있어 그 밑에 영천(靈泉)이 솟아난다. 영천의 물맛이야 말로 감로약천(甘露藥泉)으로 한 모금 마시면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진다 하여 이를 가리켜 청량산(淸涼散)을 막은 것 같다고 한다.



공룡의 추경 사진제공·속초시청

“창과 칼 같은 산이 놀라게 하고 혼을 빠지게 한다.”
 김장흡(金昌翕), 『동유소기(東遊小記)』

(5) 을산암(蔚山岩)과 천후산(天吼山)

설악산 북쪽에 자리 잡은 좌석산(座石山)으로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이 산 높이는 해발 650여m로서 사방이 절벽으로서 나는 새도 면하기 어렵다는 여섯 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동양에서도 으뜸가는 돌산이다. 이 산중 허리에 큰 영혈(靈穴)이 있으니 하늘에서 뇌성벽력을 칠 때면 산 전체가 울리어 심산의 후자(吼子)가 우는 듯 하다하여 천후산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이 산중 허리에 구름이 덮였을 때에는 일견 연못의 연이 막 피어오르는 듯하다하여 연화반개상(蓮花半開像)이라고도 하며, 큰 대숲(竹樹)을 베어 묶은듯 하다고도 한다. 이 산 꼭대기에 오르면 수백 칸으로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위에 대략 대두(大斗) 천여두를 저장 할 수 있는 돌 항아리가 5~6개 있다. 이 항아리에는 몇 천 몇 만 년이 되는 천연의 빗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더럽혀지거나 악취가 없으며 맑고 깨끗한 물이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만병통치된다고 하는 감로영수라고나 할까.

(6) 권금성(權金城)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 올라서 남으로 바라보면 하늘높이 우뚝 솟은 웅장한 봉이 있다. 이 봉을 권금성이라 하는데 이 산은 높이가 해발 860m로서 산정에는 80여 칸이 넘는 넓은 반석이 있으며 이 광장을 중심으로 산의 중허리에는 천여 칸의 석성(石城)이 있다. 이 석성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권, 김 양장군이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축성하고 난을 피하였다고 하나, 다른 설에는 거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축성하고 수어하였다고도 전하고 있다. 이 산 중허리를 둘러싼 기이한 봉으로 실요곡(失了谷), 방검대(放鈐臺) 등이 있다.

(7) 달마봉(達磨峯)

신흥사 앞 세심천(洗心川)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여 구름사이로 우뚝 솟은 봉이 달마봉이다. 그 모습이 흡사 달마와도 같고 그 봉에 올라 동해를 굽어보면 망망한 대해는 하늘과 잇닿아있고 우측에는 지난날 영랑(永郎), 술랑(述郎)이 선유(船遊)를 즐기던 영랑호의 잔잔한 물결이 달마의 웅장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으며 서쪽에는 옛 향성사 당시의 소림암자(小林庵子)가 있다. 이 암자는 옛날에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양(梁) 나라에 가서 무제(武帝)를 친견하고 대세를 살피 생각하니 포도전법(布道傳法)이 미숙한지라 소림암 굴속에 머물러 9년간 고행 수련하였다는 전설도 있으며 이 봉의 최고 풍치는 진달래 필 때가 한창이요 또한 온갖 초목이 붉게 만드는 단풍시가 극치라고 하겠다.

(8) 금강굴(金剛窟)

비선대 앞에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은 석봉(石峯)이 있다. 이 석봉을 석상(石像)이라고 하며 미력봉이라고도 한다. 미력봉 허리에는 큰 석굴이 있는데 이 석굴을 가리켜 금강굴이라고 한다. 이 금강굴은 오르내리기가 꽤 힘들며 석벽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기어 올라가야 한다. 옛 말에 황천(黃泉)다리를 더듬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

이 아닌가 하며 이 굴에 오르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을 숨어 살기로 한 어떤 고승이 수도할 때 사용하던 유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년전까지도 그 불상이 있었다. 이 굴의 넓이는 사방이 20여척이나 되고 굴 입구에서 둘러보면 동쪽은 긴 산골짜기가 동해바다에 통하여 만리창파가 눈앞에 바라보이고 북쪽으로는 겹겹이 둘러싸인 천태만상의 천불동(千佛洞)의 가경(佳境)을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금강굴의 자랑인 것이다.

(9) 와선대(臥仙臺)

천불동 계곡 첫머리에 있는데 넓이가 약 1정보를 헤아릴 수 있는 반석이다. 이 대석은 수림이 울창하고 기이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으며 옛날 마고선(麻姑仙)이란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더불어 이 대에 모여 바둑과 거문고를 타면서 산수의 경치와 동곡(洞谷)의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곳이라 하여 이 대의 이름을 와선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10) 비선대(飛仙臺)

마고선이 와선대로부터 이곳에 와서 하늘에 올라간 곳이라 하여 비선대라고 한다. 이 비선대는 그 경치가 너무도 우아하며 와선대로부터 석계반석(石溪盤石)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조화되어 그 아름다움은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케 한다. 또한 비선대는 옛날부터 시인묵객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이 이곳에 찾아와선 의관을 벗어 늙은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맑은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는 넓고 흰 여러 반석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듯한 웅장무쌍한 석상 미력봉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는 녹음방초가 희희낙락하는 것 같고 온 몸의 뼈마디가 되살아나는 듯하며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이라 하였으니 비선대의 장관이란 더 형용할 바가 없다 하겠으며 설악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11) 천불동(千佛洞)과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일대에 천태만산으로 늘어서 1,000여개의 뾰족 봉들은 마치 미술가의 조각품처럼 제각기 예술미를 지니고 있다. 마음대로 생겨진 허다한 괴석첩봉(怪石疊峰)은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멍호와 비슷한가 하면 노승이 염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광경을 이룬다. 귀면암은 천불동 중허리에 위치하며 예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설악골’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이 산의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손꼽히는 명승지이기도 하다. 이름이 ‘귀면’이어서 불쾌감을 주기 쉬우나 그 생긴 형태가 마치 괴물과 같다하여 금강산의 귀면암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12) 마등령(馬登嶺)

내설악과 외설악을 연결하는 태산준령으로서 설악산에서는 청봉 다음으로 높은 곳이며 해발 1,327m 에 달한다.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산턱을 어루만지며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摩登嶺)’이라고도 한다. 경사가 급하여 이 령에 오를 때에는 탐승객의 숨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이다. 그러나 영상에 오르면 내외설악의 만천하산경이 발아래 전개되고 실로 산에 올랐다는 통쾌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또한 멀리 동해바다의 푸른 절경을 바라보는 기분 속에 빠져들게 하며 장엄한 대자연 속에서 풍겨주는 무한한 경황에 가슴이 벅차다. 마등령은 내외설악의 분수령이기도 한다.

(13)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

신흥사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높고 낮은 기암괴석이 천길 만길 깎아 세운 듯한 석봉들이 있다. 이 봉들을 가리켜 석가봉(釋迦峯), 문주봉(文珠峯), 보현봉(普賢峯), 익적봉(翌滴峯), 선자봉(扇子峯), 노적봉(露積峯), 문필봉(文筆峯)이라 부른다. 이 사이에 흐르는 한 폭포가 있는데 이것이 신흥광폭포(神光瀑布)이다.(현재는 토왕성폭포) 이 폭포는 지난날 이태백이가 중국 여산폭포를 읊은 시의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운하 낙구천(飛流直下 三千尺, 疑是銀河 落九天)’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박연폭포가 좋다 하지만 설악산에 있는 토왕성폭포(또한 신광폭포)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 때 하늘에서 흰 비단 한 폭을 펼쳐 놓은 것 같고, 가까이 보면 옥구슬을 석벽에 뿌려 놓은 듯하다. 그 떨어지는 물소리는 천고의 용의 울음소리와 대호의 휘파람 소리가 뒤섞인 것같이 폭음(瀑音)은 그칠 줄 모르고 사절 변함없이 쏟아지고 있다.

(14) 비룡폭포(飛龍瀑布)

이 폭포는 토왕성폭포의 하폭으로서 높이가 150여척이나 되며 줄기차게 떨어지는 맑은 물은 금강산 구룡연폭포와 흡사하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 첫 눈에 뜨일 때에는 마치 용이 굽이져 석벽을 밀고 하늘로 비천하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한다.

(15) 육담폭포(六潭瀑布)

토왕성 계곡에 들어서서 약 200m를 올라가면 육담폭포가 있다. 이 폭포는 담소(潭沼)가 6개로 이루어져 육담폭포라 한다. 이 육담폭포의 전면에는 높이 8m, 폭 1.3m, 길이 42m의 조교(吊橋)가 가설되어 그 풍치가 장관이며 관광객의 탐승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16) 문주담(文珠潭)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따라 약 1km 올라가면 아담한 담소가 있는데 이 담소에는 항상 맑은 옥류수가 고이여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세조 대왕 당시 문수보살이 이곳에서 목욕을 한 곳이라 하여 문주담 이라고 불리고 있다.

(17) 이호담(二湖潭)

천불동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맑고 아담한 두 개의 담소가 있어 이호담 이라고 한다. 이 담소에는 사시사철 그 맑음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담소 속

을 들여다보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하며 또한 마음이 변할 수 없는 심경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 이 이호담에는 각종 어류들이 놀고 있는데 이 담소 위쪽으로는 어류를 찾아볼 수 없다.

(18) 천당폭포(天堂瀑布)

양폭에서 위쪽으로 약 200m를 올라가면 협곡사이로 흐르는 폭포가 천당폭포이다. 이 천당폭포는 천불동계곡의 상류의 마지막 아름다운 폭포인데 옛날에는 이곳이 아주 험준하여 일반 관광객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관광로 개설과 아울러 약 15m의 조교와 수개의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어 오다가 이곳을 고생 끝에 올라가면 마치 천당에 이른 통쾌감을 느끼게 되어 천당폭포라고 불리고 있다.

(19) 오련폭포(五連瀑布)

오련폭포는 천불동계곡 상부에 자리 잡고 있는 폭포로서 협곡사이에 5개로 연이어 있다고 해서 오련폭포라고 한다. 흔히 귀면암을 걸문다리, 오련폭포를 안문다리가 한다. 이 안문다리를 벗어나면 양폭포와 천당폭포가 있다.



오련폭포 사진제공·속초시청

“우연히 왔다가 좋아하게 되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복원(李福源), 『설악왕환일기(雪嶽往還日記)』

(20) 양폭포(陽瀑布)

천불동계곡, 오련폭포를 지나 계곡이 좌우로 분류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폭포로서 좌측에서 흘러 양폭포가 되고 우측에서 흘러 음폭포가 되니 음양이 합쳐서 천불동 계곡을 이루었으며 이 양폭 상단에는 천당폭포가 있다.

(21) 대청봉(大靑峰)

해발 1,708m의 설악산의 청봉은 동서남북에 산재하고 있는 설악산 전체를 한눈으로 굽어볼 수 있는 설악산의 주봉인 것이다. 이곳 대청봉을 중심으로 이름 모를 고산식물과 각종조류들이 있어 고산생물 자료조사에 매우 좋은 곳이다. 이 대청봉은 늦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정상에도 눈이 덮여 있다.

(22) 유선대(遊仙臺)

금강문의 바로 밑을 지나 내려가면 비선대 미륵봉의 뒤쪽이 눈 아래 보이며 이곳을 지나가려면 천불동 계곡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선대가 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선녀들이 놀고 간 곳이라 해서 유선대라 불리우고 있다. 이곳 유선대는 가을 단풍을 위시해서 겨울에는 소나무 설화(雪花)가 어리어 설악산의 새 맛을 볼 수 있게 한다.

(23) 천화대(天花臺)

천화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석봉으로 그 경치도 또한 가경이다. 이 천화대는 마등령에서부터 청봉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외설악의 서쪽 준령이다. 멀리는 화채봉(華彩峰)과 동해가 바라보이며 마치 꽃밭같은 형태를 이루어서 천상에 있는 화원 같아 천화대라 불리운다.

(24) 집선봉(集仙峰)

집선봉은 권금성 뒤쪽 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

은 흰 봉들이 모여 된 것이다. 마치 선녀들이 전부 이곳에 모여 입정(立正)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집선봉이라 한다.

(25) 형제암(兄弟岩)

천불동계곡의 중간에 자리 잡은 석봉은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천불동계곡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형제봉이라고 한다.

(26) 노루목 치(峙)

도문리(道門里)를 거쳐 점점 깊어져 가는 골을 헤치며 설악산을 향하여 가는데 서로 엇갈린 숲은 햇빛을 가로 막고 있는 곳에 적은 언덕이 있으니 높지도 않고 편편치도 않으나 올라가보니 등 뒤로 30리쯤의 푸른 바다가 하늘가에 닿아있고 아래 보이는 여러 봉우리는 깎아 세운 듯하며 참으로 판 세상에 온 듯 했었다. 그리고 갈 길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문득 어디서인지 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비록 말은 못하지만 고개와 몸짓으로 길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고개를 노루목 고개라 부르게 된 것이다.

(27) 도문리(道門里)

의상, 원효 두 대사가 향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을 향하여 법장으로 우거진 숲을 헤치며 약 10리쯤 가니 별안간 삼현을 켜는 듯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무아(無常無我)의 법을 아뢰는 듯하며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 있으려니 홀연 대오(大悟)한지라 의상, 원효 두 대사는 몸과 마음이 경쾌하여 지며 한발 옮길 적마다 절 한 번씩 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도통의 문을 열어주었다 하여 도(道)자 문(門)자를 따서 도문리라 지명을 붙인 것이다.

(28) 영랑호(永郎湖)

속초시 북방에 위치하며 사방 12km나 되는 청일(靑濔)한 호수이다. 이

호수는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신라시대의 영랑,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南石) 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서 3일간 유연(留連)하고 각기 분산하였으나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체류한 곳이라 하여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호수 남쪽에는 송림이 울창하고 그 속에는 보광사(普光寺)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은 서기 1937년에 정혁담(鄭革潭)이라는 승려가 사재로 건립하고 53불의 수좌인 보광불존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광사라고 한다. 언제나 맑고 푸르고 잔잔한 호수와 주위에 뚝뚝이 있는 기암들은 더 한층 호수를 아름답게 하여 주고 있으며 수중에는 각종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터를 즐기는 태공들과 뱃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터가 되어 있다.

(29) 금장대(金將臺)

영랑호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누대로서 6.25 당시 육군 제11사단장 김병희(金秉熙) 장군이 고성, 속초, 양양의 수복기념으로 건립하였다. “김장군이 건립하였다하여 금장대” 이 금장대 뒤에는 범바위라 하여 거대한 바위가 솟아 있으며 옛날 범이 살았다는 바위굴도 있어 행인의 발을 멈추게 한다.

(30) 척산온천(尺山溫泉)

설악산의 근교이며 동해안 간선대로에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수질은 유황성분이 많아서 온천수로서 적합하지만 수온이 낮아서 활발치 못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끝나면 국내에서 이름난 온천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3. 1970년대 설악의 전설 화보설명자료³⁾

(1) **계조암:** 동산각지(東山覺地) 봉정(鳳頂), 의상, 원효대사 등 조사와 조사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하여 계조암이라 함.

(2) **흔들바위:** 계조암 마당 앞 반석위에 위치한 약 10톤 무게의 바위로 서 높이 약 2.5m 둘레 2.2m 이 바위가 설악의 명물인 것은 한 사람이 흔들거나 10사람이 흔들거나 흔들림이 같다하여 일명 '신바위'라고도 부른다. 신흥사 주차장에서 동북간 2.5km지점. 울산암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함.

(3) **설악산 신흥사:** 대한불교 제3교구 본사로서 외설악의 3분의 2가 신흥사 임야이며 관할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에 있는 옛 고찰을 중앙총무원을 대리 감독하는 본사임, 신라 진덕여왕 6(서기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뒤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으며 현 건물은 인조 22(서기 1652)년 영서선사가 재 창건하여 신흥사라 개칭하였다.

(4) **울산암 전설:** 옛날 금강산 일 만 이 천봉을 만들 때 의덕이라는 장군이 경남 울산에서 떠메고 가다가 지금의 울산암 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일 만 이 천봉이 다 채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떼어쳤다 하여 울산암이라 전하며, 옛날 울산고을 원님이 양양 고을 원님에게 바위 세를 받아가다 세월이 흘러 영리한 양양고을 원님이 부임하여 월산원님에게 통첩하기를 “그 바위가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으니 울산으로 가져가던지 그냥 두려면 반대로 자릿세를 물라”하니 울산원님이

3) 이 책은 「설악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화보집으로 편집되었다. 발행인, 저자 등을 알 수 없는데 대체로 1970년대 중반이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엽서 두 장 정도를 이어붙인 정도이다. 표지는 울산바위 사진을 컬러로 게재하였고 그 하단에 전설을 수록하였다.

생각해보니 의덕 같은 장군이 있어 등에 지고 갈 수도 없고 하여 타협하기를 바위세를 받지 않을 터이니 그냥 그 자리에 두어 달라고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한다. 우산을 펴든 것 같다하여 일명 천우산(天雨山)이라고도 함. 또한 연화반개상(蓮花半開像) 즉 연꽃이 반쯤 핀 것 같다는 말로 연화반개상의 현상은 여름철에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온 후에 안개가 울산암 주위에 덮히면 바위만 안개 속에 솟아 연못에 연꽃이 솟아있는 현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다. 울산암은 관광코스로 이곳에 오르면 동해바다는 물론 외설악 일부가 한 눈에 다 들어오나 거리가 멀어 천불동 계곡의 섬세함을 못 보는 것이 흠이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시에 속하나 옛날은 강원도 양양군에 속하였으며 양양군 이전에는 울주군이었으므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남 울산을 끌어들이어 전설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5) 권금성의 전설: 약 1300년 전, 삼국시대 신라 28대 진덕여왕 9년, 고구려 28대 보장왕 때, 백제 의자왕 6년,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권씨와 김씨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왕위에 오름을 반대한 죄로 참형을 받게 되어 고구려를 탈출, 이곳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부르며, 권 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연개소문의 사촌이라 전하고 있다. 그 후 산적들이 기거하였다하며 양양 고을 양반 아무개와 권금성에 사는 백정사이에 얽힌 이야기 등이 있다. 또 이곳은 옛날 성으로 쌓은 담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설악산의 유일한 케이블카가 있어 오르내리기에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등반도로도 있다. 외설악 신흥사에서 대청봉을 거쳐 내설악으로 가는 제3의 등반코스이다. 권금성까지는 관광코스로 이곳에 오르면 울산바위와 마찬가지로 동해바다는 물론 천불동계곡 일부를 관망할 수 있어 울산암보다는 일면 좋은 명승이기도 하다. 권금성 안에는 등산객 대피산장이 있으며, 권금성을 경유하여 대청봉까지 등산할 때는 권금성을 지나 30분 이내의 계속 이외에는 대청봉까지 식수가 전혀 없으므로 식수 준비를 꼭 하여야 한다.

신흥사-권금성-대청봉-소청봉-봉정암(내설악), 쌍폭-수렴동-백담사-용대리, 속초, 서울(국도)

권금성, 대청봉, 양폭, 비선대, 당일코스 8시간 소요함.

신흥사, 권금성, 대청봉 5시간,

대청봉, 희운각, 양폭, 비선대, 신흥사 4시간

(6) 비룡폭포(용이 승천했다는 곳): 전설에는 옛날 물구덩이가 용이 되 지 못하여 처녀를 매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심한 심술을 부려 주위의 농 민들은 매년 날을 정하여 처녀를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곳 좌측 을 따라 약 40분 오르면 동양제일이라는 토왕성폭포에 이른다. 등산로가 없어 계곡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못가는 곳이다. 토왕성폭 포의 계곡물이 비룡폭포 물줄기를 이룬다. 비룡폭포는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7) 비선대에서 본 미륵봉: 설악산의 대표적인 바위산이 깎아지른듯한 절벽 중턱에 금강굴이 위치하고 있다. 주위의 단풍이 풍치를 돋우고 있다.

(8) 봉정암: 내설악 쪽 소청봉 밑에 위치한 봉정 암은 우리나라에서 제 일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다. 신라시대에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건하였 으며 석가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불교의 보궁(寶宮)이다. 내외설악 등 반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등반하는 사람들이 하루저녁을 쉬어 가는데 중요한 곳이다. 유료등산인 산장이 있으나 불을 때지 못하므로 담요를 꼭 준비해야 함.

(9) 천불동계곡: 금강굴 아래 비선대에서 부터 희운각까지 약 3시간 소 요되는 외설악의 주 계곡으로 설악의 영봉 대청봉에서 내려다보면 일천 개 의 불상을 모신 형상으로 예부터 불려오는 이름이다. 이곳은 신흥사 쪽에 서 대청봉을 넘어 내설악 외설악, 수렴동 계곡, 백담사로 나가는 설악산 제

일의 등산코스이다. 비선대에서 부터 대청봉 및 희운각까지 가는 도중 문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포(양폭산장 등산인 임시대피소), 천당폭포, 죽음의 계곡 등을 볼 수 있다. 설악을 찾는 사람이면 이 코스를 지나 대청봉을 넘어, 내설악 봉정암, 수렴동 계곡, 백담사를 탐승하지 않고는 설악을 말할 수 없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이곳 설악의 계곡을 일궈어 하는 말이며, 계곡을 혼자 조용히 거닐면 지금도 신선들이 바둑 두는 소리가 들리는 태고의 신비가 잠든 곳이다.



공룡능선의 추색 사진제공·속초시청

“조화옹이 만들어 펼쳐놓은 듯하다.”
정기안(鄭基安), 『유풍악록(遊楓岳錄)』

(10) 금강굴의 유래와 굴에서 바라보이는 전망: 이 굴은 자연 동굴로서 연대는 기록할 수 없으며, 옛날 원시인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원효대사께서 이곳에서 3년을 기거했다는 전설이 지배적이다. 굴에는 지금부터 70년 전까지 살은 흔적이 있다. 1966년 이 굴에 마을사람(성명 미상)이 올라갔을 때는 굴 바닥에 온돌이 놓여 있고, 불상(佛石), 물병, 도자기 등이 수 점 있었다. 이 유물을 현장에 전시 중이었으나 유실되었다. 이 굴에서 발견된 동전은 약 70년 전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굴에 오르는 철 계단은 개인이 시설한 것으로 1966년 착공하여 당년에 완성되었다.

1973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동굴암자로 지정, 개발 중에 있다. 굴 내부에는 신기할 정도로 사시사철 음료수가 나고 있으며 월동하는 제비가 있었으나 많은 관광객에 지쳤음인지 요즘에는 간혹 한 쌍이 드나들 뿐이다. 금강굴은 외설악 제일 절경지로서 굴이나 전설보다는 굴의 전면 좌우에 절경을 이루는 천불동, 천화대, 화채봉, 중청봉, 비선대, 마등령, 7형제봉, 문주담, 선녀탕, 천불계곡 등 만점을 깎아 세운 듯한 설악의 신비경으로 더욱 유명하다. 금강굴은 외설악 신흥사 쪽으로 3.1km 지점에 위치한 비선대 위에 일명 장군봉, 미륵 봉이라 불리는 해발 900m 기암절벽에 있는 자연동굴이다. (굴까지는 해발 850m) 굴의 길이는 18m, 높이가 약 5m로서 이 굴을 금강굴이라 부르는 것은 신라 원효대사께서 이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3년간을 기거하였다는 전설 때문에 금강굴이라 불렀다. 굴보다는 굴에서 보는 굴 앞의 경치가 설악 제1경이다.

4. 최구현(崔九鉉)의 설악산 개발 일화

최구현 선생은 설악산 관광사진의 단초를 시작한 사람이며, 1950년대부터 설악산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금강산을 일 만 이천 봉이라면, 설악산은 일 만 이천 폭(一萬二千瀑)이라 할 정도로 계곡마다 아름다운 폭포가 절경을 이룬다.⁴⁾ 영산승지(靈山勝地)의 가경(佳景)이자 명승고적이 즐비한 설악은 옛 말로 ‘살피’라 부를 정도로 조물주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설악을 명악(名嶽)이요 영악(靈嶽)이며⁵⁾ 또 한仙境(仙境)이요 화경(畵境)이라 칭했다.⁶⁾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형제라고 불렀으며 금강과 설악이 골격은

4) 장정룡,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설악산』, 『월간 문화재사랑』 2014년 10월호, 총119호, 문화재청, 2014

5) 黃沂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自序

6) 金錦園, 『湖東西洛記』, “人之稱名區勝景者 必曰仙景畵景”

답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고도 평가하였다. 금강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하지 못한데,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한다. 육당 최남선은 설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양자(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⁷⁾

이처럼 ‘명산 설악’의 오늘에 있기까지 설악을 널리 알린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최구현(崔九鉉, 1920~2012) 선생은 설악산 개발에 앞장섰으며, 설악산 사진을 관광사진으로 널리 알린 분이다. 필자가 1960년대 설악동에 살 때 부친과 가깝게 지내셨던 이기섭 박사님과 함께 자주 뵈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다. 그 분이 직접 작성한 친필원고를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 개발사』(최구현)⁸⁾

1956년에 양양군수 일행과 처음으로 설악산 신흥사와 비선대를 답사에 같이 가게 되어 그때가 벚꽃이 만개하여 보기가 아름다웠다. 당시 마등령(馬等嶺) 입구 채 못가서 바위가 층계로 된 곳에 가서 군수가 바위 이름을 지었는데 ‘군량암(軍糧岩)’이라고 지었고, 비선대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귀로 당시 촬영한 벚꽃 사진을 확대하여 군수임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 1957년에 속초 졸업앨범을 처음으로 발행, 그 앨범을 보고 온 사람이 이달영(李達永) 씨였다. 이달영은 토성면(土城面) 신평리(新坪里) 출신으로 기자단장을 하고 있었다. 첫마디가 “속초고등학교 졸업 앨범사진을 당신이

7)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25쪽, 원문의 맞춤법을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었다.

8) 본 원고는 최구현(崔九鉉:1920~2012) 씨의 친필원고 『雪嶽山開發史』를 옮긴 것이다.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한자 고유명사는 괄호 안에 넣었으며, 그 밖에 오탈자나 맞춤법 등을 현대어법에 맞게 고쳤다. 편지지에 자필로 쓴 원고는 총 17쪽이다.

찍었소?”하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 달영씨 말이 “설악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묻기에 이유를 물으니 앨범 만든다고.

이 무렵 양양에서는 김주혁(金周赫) 씨가 설악산 개발에 뜻을 갖고 지방 유지 등등 도에까지 가서 개발의 청탁운동을 할 때다. 나는 그 눈치를 알아채고 “그러지 않아도 나도 개발을 뜻을 갖고 있다”고. 실은 고향이 금강산이고 고향에는 가기는 아득한 생각이다. 그래서 설악산을 금강산 삼아 한번 친해볼 생각이었다. 한편 생각하니 이달영 씨가 반갑기도 하다. 이로 씨 들이는 조건 없이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준비는 사진기가 문제다. 그래서 서울로, 부산으로 연락하여 35mm ‘라이카’나 ‘로라이코드’에 렌즈〈광각(廣角)〉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불가능하여 고향 금강산에서 사용하던 광각 120mm 렌즈를 써야 하겠다. 실은 이 광각렌즈는 5×7 판(板) 대중판이므로 힘은 들지만 큰 기계 상업용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보니 영업용 대중판 기계와 ‘로라이코드’와 ‘라이카’(스리씨)에 135mm 망원렌즈, 이 걸로써 기계준비는 끝.

이달영은 당시 양양군수 박하영(朴夏永) 씨에게 가서 비용으로 일금 십만원을 얻어왔다. 1957년 8월 드디어 입산시작. 날씨는 잔뜩 흐려있고, 명일이면 개일 걸로 생각하고 일행은 사진과 조수와 들이는 사진재료 현상 도구와 약품 일체 나누어지고 인부가 4명, 10일분 식량을 지고, 안내원 전 씨와 수행원 2명, 전원 10명에 3군단 공병대에서 무장군인, 지뢰탐지기를 가진 군인 1명과 11명이 입산.

첫날 입산 도착은 계조암(繼祖庵)에 가서 일기불순으로 3일을 기다려도 날이 개기는 어렵다고 판단. (라디오에서 명일의 일기예보 영 너머는 개인다고) 늘목령으로 비를 맞으면서 영 정상에서 야숙 다음날 낮에 백담사(百潭寺)에 도착. 다음날 하늘은 맑게 개었다. 그로부터 촬영시작 첫 코스를 대승폭(大勝瀑)으로 정하고 폭포의 수량문제로 제일 먼저 간 것이다.

다음은 오세암(五歲庵), 여기를 기점으로 하여 수렴동(水濂洞), 쌍폭동(雙瀑洞), 가야동(伽耶洞), 봉정암(鳳頂庵), 대청봉(大靑峰) 두루 영서는

끝난 셈이다. 이때 촬영한 원판은 당일 현장에서 현상 처리를 끝마쳤다. 5일간 오세암에서 머물고, 마등령으로 신흥사(神興寺)에 왔다. 당시 신흥사에는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인부와 기타 인원은 속초로 가고 안내원만 남아서 촬영하는데 길 안내하고 조수는 속초에 가서 식량을 가져와서 6일간에 일기가 좋아 촬영이 대략 끝났다. 그 후 속초에서 사진인화작업을 하고 검토하여 보고 미흡한 사진은 다시 가서 여기저기 촬영. 필요한 사진은 전부 전장으로 확대 인쇄 원고로 완전히 만들어 놓았다.

한편 편집용으로 만들어 편집을 끝내고, 한편 명소의 지명 및 유래 등 문헌 수집하여 사진의 명소명과 유래 등 기입, 이로써 인쇄소에 맡긴 것이 11월이었다.

설악산의 개발의 시초 큰 역할은 사진첩이었다. 1958년 4월에 사진첩이 완성되어 우선 100부를 찾아다 정부요료에 배부, 특히 교통부 관광과에 가서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토의, 현재의 요망사항을 전하고 왔다. 이 때문에 이달영과 둘이는 서울에서 약 10여일 여관에서 머물다 왔다.

7월말 경에 교통부 관광과에 들릴 일이 있어 갔더니 전화 통화에서 변산반도로 임시열차 식당차 등 여행준비를 시달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즉시 과장에게 “지금의 통화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과장(김세준)의 말이 외국인단체 로얄학회가 주말여행을 변산반도로 가는데 열차 및 기타준비중이라고...

우리가 묻기를 “그 단체의 책임자는 누군가?” 묻고(칼밀라), 그 사람의 집을 물은 다음날 찾아가서 만나니 전년에 설악산에 한번 다녀간 사람이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길래 “주말여행을 가신다고요?” “하 그렇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주말여행을 설악산으로 갈 수 없습니까?”하고 물으니 “내가 작년에 가보니 설악산에는 도로가 안 되어 못 간다.”고 거절을 한다.

그때 이달영이 한다는 말이 “작년이 옛날”이라며 “지금은 자동차가 왕왕

다닌다.”고 말하니 “그렇다면 (이때 칼밀라가 설악산 사진첩을 보고), 이 앨범을 가지고 명일 오후에 변산반도로 가니 열차를 타고 이 앨범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라.”고 알려주기에 그 집을 곧바로 건설부로 갔다.

장관을 찾아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도에서 신흥사까지 도로를 확장 아니면 개설을 말하니 건설부에서는 사업 한계 외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나와서 국방부에 갔다. 국방부에서는 원주 1군단에 가보라고, 여기서 연락드리겠다고. 실은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것을 안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때 1군사령관 송요찬이다. 이 사람 역시 일정시 지원병이다. 나나 이달영도 지원병 출신이다.

1군사에 가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사령관이 내려가서 3군단 지시하여 왔으며 3군단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이거야 말이지 기쁘고 통쾌하기를 한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로 해서 속초로 오는데 원통에 오니 3군단 공병대장이 같은 버스로 서울서 내려오는 길. 부하 장병이 마중 나와서 모시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달영 최구현이 어떤 놈들인데…” 불만을 토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감출 길이 없었지만 다행이 나를 모르기가 다행이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면 외국인 단체가 설악산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기쁜 맘 한량없다. 양양군수와 경찰서장, 속초읍장 등에게 사실을 고하고 협조를 부탁, 공병단장이 와서 자세한 설명 교환, 실은 도문에서 독가비 바우 있는데 까지 암벽 발파작업은 후일로 하고 우선은 급하니 전시 군 트럭이 다니던 강선리(降仙里)에서 신흥사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좋다고 결론.

공병 1개 대대가 도로 확장 작업에 들어가 1주일 만에 끝내고 시험운행을 해야겠기에, 속초 -서울을 운행하는 금강운수 버스로 운행시험해보니 거뜬히 통과…

드디어 외국인 단체가 온다. 이때 우리지방에서 무감각이었다.

전성우(全盛宇) 읍장에게 청하여 학교 학생과 시민 줌 동원 환영해 줄 것을 부탁. 드디어 관광객은 3군단 사령부에 들렀다가 화진포를 거쳐 속초에 온 것이 오후 6시,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강선리 고개를 넘어 확장한 길로 들었다.

서울서 온 버스는 서울교통버스, 금강운수 차는 폭이 좁고 서울 차는 폭이 조금 넓다. 선두 차는 서울역 구내 식당차. 조그만 커브에서도 버스의 우측면이 길가의 큰 돌이 굽히고 우그러지고 고심 끝에 속초에 오수 7시전에 출발한 것이 목적지까지 4시간 이상 걸려 도착. 이날따라 안개가 끼어 주변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신흥사에서는 3군단 공병대가 발전기와 주변에 필요한데는 ‘라바선(線)’에 발전기와 주변에 필요한데는 ‘라바선’ 늘어놓고 여기저기 100W 전구를 끼우고 법당과 누각에는 목침대와 모포로 침구같고, 신흥사 입구 아래 숲속은 원주에서 가져온 후로링으로 댄스홀(야외) 3군단 군악대 모두가 밤늦게 까지 손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식당차가 와서 “온다.”하니 발전기 가동, 이것에 웬일이요. 발전기 돌리자마자 불이 번쩍하고는 전선이 타기도 하고. 칠후 같은 밤중이 되었다.

급하기 짝이 없었다. 깡통, 세숫대야 등등에 모래를 넣고 휘발유를 부어, 불붙여서 우선 식당차 옆 화장실 냇가에 세수하는데 길에 불을 밝히고 다음은 모두가 입이 딱 붙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심고 끝에 식사는 하였는지 알바 없고 황덕불만 쪼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황없다 싶어 볼 수가 없다. 참 딱한 노릇이다.

그럭저럭 시간은 흘러 이튿날 4시가 지나기 시작, 구름에 싸였던 산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형태가 똑똑히 보이기 시작. 밤새도록 공포에서 깨어나 너나할 것 없이 권금성(權金城) 쪽을 위시 둘러보고 ‘원더풀’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첫날밤을 뜯 눈으로 새웠다. 다음날 2조로 나누어 한조는 비선대로 이달영이 안내, 한 조는 계조암으로 최구현이 앞장 서서 갔다. 비선대 방면에서 인부가 지계를 지고 와서 비선대 쪽은 중식식

사를 현지에 한고 음식을 가지러 왔다. 내가 데리고 온 손님과 중식 진 인부와 동시 출발. 급한 걸음을 하기에 나도 급하게 간다. 정고평(丁庫坪)을 지나니 냇물 웅덩이에는 2~3명씩 물속에 앉아서 갈 생각도 안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 마침내 비선대에 도착하니 암석위에 모두가 누워 있기도 하고, 물속에 목욕도 하고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공병대는 전기선과 전구를 완전히 수리, 오후에는 강릉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룻밤 더 자고 명일로 미루고, 저녁에는 숲속에서 군악대의 반주에 맞추어 춤도 추고 재미있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이로써 설악산이 지방 사람들의 입에 올라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고 있다. 그동안 속초, 고성, 양양에다 설악산 신흥사 앞에 부지를 사찰과 3000평 대행 계약하고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어떠한 영업이든 허가하여 요구대로 허락한다. 광고를 부쳤는데 이후부터 여기저기에 여관, 식당, 기념품점 등 신청이 왔다.

우리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생각, 점포 10개 공사시작, 도에 요청, 앞으로 도에 오시는 손님도 모실 처소를 설악산을 권유. 설악여관이 제일 처음 완공을 보아 59년에는 여관이 4개쯤 완성됨. 금년에는 우리가 지은 벽돌점포도 완공되어 금년의 외국인 단체는 15일간 수시로 서울-설악산 간 매일 서울발이 1대, 속초발이 1대 현지에 상설, 화진포와 낙산해수욕장 왕복 운행하면서 사계절, 외국인이 붐볐다.

다음 해부터는 자유로, 춘하추동 각자의 뜻대로 오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각지에서 학생수학여행도 오기 시작, 여관도 늘어나고 발전의 희망이 밝았다.

또 한가지 철도호텔의 웃지 못할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면 교통부 관광과를 방문하는데 이때도 소문 들으니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에 제주도 철도호텔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설악산에는 철도호텔을 못 세우는가. 다각도로 생각하여 보니, 속초지방 출신 이동근(李東根) 의원이 교체분과 위원장이라고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귀뜸해 준 것이다. 무작정 이 의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이 의원 집

에 가서 만났다. 여기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도중 달영이 큰 소리가 난다. 결국은 출신지구에 설악산 관광개발의 고열기에 이 의원도 결국에 이해가 간 듯, “내 곳 연락을 드리지요” 그 후 결과는 무등산 호텔 20실을 10실씩 분할 설악산에도 10실이 결과를 보게 되어. 당장 건축에서는 직영을 안 하고, 강원도에 위탁. 도에서는 인수하여 호텔을 맡을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도내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희망자가 없다고. 이달영, 최구현이를 도에 불러 올려 지사 말씀이 “자네들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맡아서 운영하게” 이것이다. 이러구 저러구 말 한마디 없이 선뜻 좋다고 답. 이것으로 호텔은 우리가 맡았다.

60년 8월부터 개업. 청간(淸澗)HID 김동석(金東錫) 대장에게 중앙의 높은 이들 모셔오라고 청탁, 박마리아, 이기봉, 이대통령까지 모셔 호텔을 빛나게 하고, 그럭저럭 영업은 손해는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동기에도 빠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함을 요청으로 교통부에서도 거절 못하고 동계 영업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다. 실 공사사정이 월동준비는 일절 되지 않아 그것을 시설하려면 나와 달영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권을 교통부에 맡겼다. 그동안 3년간 관광시이며 호텔사업으로 산에 한번 가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였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다. 항공편이다. 교통부 항공 국에 가서 서울-속초간 항공기 운항을 요청, 조중훈(趙重勳) 사장에 접선, 개설에는 시장조사를 해보야 한다고 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 항공사에서 한호범(韓虎範) 씨, 교통부 항공 국에서 2인 해서 3명이 오기로. 이 분들의 조사에 있는 역량을 다하여 3일간 명승지 탐방과 현재 관광객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갔다. 얼마 후에 소식이 오길 극동항공이라 새로 된 항공회사가 운항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서울을 직접 가서 한호범 씨를 만나 자세한 것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항공이 운항의 시초다.

또 하나는 국도에서 설악산까지 직통도로 포장도로가 필요하다. 그 이전 지금의 상도문 뒷 고개 즉 청대리에서 넘어가는 싸리재고개로 버스 및 각종차량이 통행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 도로도 청대리 동민과 상도문

리 동민들이 봉사로 길을 닦은 것이다. 그리고 암벽 벼랑은 3군단 공병대가 와서 작업, 장비를 가지고 읍에서 기름대주기로한 조건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우리도 설악산에 각종 건축문을 공사, 호텔 경영 등 바쁜 매일 출근하다시피 공사장을 거쳐 가는데, 매일 사병에게 담배 1보로씩 사서 아침에 주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적에도 몇 갑씩 조달하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봉사하였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여름에 오정근(吳正根) 최고위원이 부관 2명과 휴식 차 설악산에 왔다. 여기 부관이 전시에 1101 공병대의 장교였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달영이 녀살좋은 솜씨에 저녁에 한잔 대접하면서 대화, “높은 자리에 계실 적에 봐 주십시오”하고 청원을 했다. 국도에서 설악산까지, 그때 이분들이 설악여관에 투숙, 올라가서 연락드린다고 약속하고 가서 즉시 관계기관에 시달, 도로공사 시작이 되어 지금 통행하는 도로다.

천불동에서 청봉간의 도로가 없어 항상 청봉을 갈적에는 버스로 진부령을 넘어 백담사로 봉정으로 가는 청봉이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해 청봉에 갈 적마다 천불동에 바로 올라가는 길뉘이만이 연구다. 마침 그때가 속초시가 되어 양양하고 분리해야 돼 관광협회를 8만원의 기금을 4만원 분할 속초협회에 4만원이 들어왔다. 협회 상의, “그 돈을 주면 제가 도로를 잘 닦아 놓겠다.”고 맹세하였다. 의원들 모두 찬성으로 4만원을 받고 계산하니 계산이 되질 않는다. 동네에서 이 말을 듣고 너도나도 봉사하는 셈치고 예산 닿는대로 반디로 하고 작업에 참가. 협회의 의원 1명이 양양광산에 가서 철물은 얼마든지 얻어온다고 하고, 다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누구 하나 그런 일에 경험이 있는 자는 없다. 바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인부는 시에서 구호 양곡(밀가루) 시에서 주대는 대로 받고 인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그래서 지금의 도로만 개설되었지만 곧바로 청봉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관에서 받는 돈은 군수가 100,000원, 이때까지 구호미(밀가루) 8포뿐이다. 대부분이 사비다. 제1회 설악문화제, 66.10.1~3 전국규모 설악문화제도 동민

시민에게서 400,000원 도 예충에서 200,000원, 기타는 얼마인지 모른다.

◎ 최구현씨 신문기사 내용

다음은 최구현 씨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이다. 이를 참고자료로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⁹⁾

이름 없는 설악산 절경 작명, 등산로 개설 일조, 제1회 설악제 기획, 2012년 3월 1일 향년 93세로 영면, 유족들 유품 필름 시립박물관 기증 예정. 속초예충 초대회장, 제1회 설악제 기획자. 속초 사진계 대부, 설악산 개발 홍보 주역, 금강산 사진사, 졸업앨범의 대명사, 승리사진관 대표

2012년 3월 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고 최구현님의 이승에서의 이력이다. 고인은 1920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에서 4남 3녀의 장남으로 출생, 15세 때 금강산 일대 건축청부를 맡아 산장공사를 하던 부친(목수)를 따라 북고성 온정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금강산 사진조합'조수로 근무하면서 사진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20세 나이로 최연소 사진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정식 사진사가 됐다.

- 초창기 설악산 개발 절대적 역할

고인은 금강산을 무대로 사진촬영에 몰두하던 중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본군 지원병으로 만주에 징집된다. 2년여 군생활을 하다 해방을 맞았으나 불행히도 소련군의 포로가 돼 시베리아 연해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후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금강산이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고인은 외금강 인민군휴양소 소속 사진사 겸 안내인으로 근무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해 1·4 후퇴 때 남하, 1952년 8월 속초에 정착했다. 고인은 누이동생만 빼고 3남

9) 「설악신문」, 2012년 3월 12일 1047호,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스 전망대(154) "사진작가·속초예충 초대회장 고 최구현님을 기리며 '금강산서 사진사로 활동...설악산 비경 관광화보집 최초 발간' 이외에도 「설악신문」, 1997년 1월 6일자 292호 엄경선 기자 "설악산과 사람 설악산 홍보주역 사진작가 최구현 씨" 「속초시경 광장」, 1997년 10월 1일자 제7호, 속초시 발행 이수영 '이사람 사진작가 최구현 씨' 등의 글이 있다.

2녀의 동생들을 북고성 온정리에 두고 온 이산가족이다. 고인은 지금의 금신당(금은방)자리에 승리사진관을 열어 주로 학교 졸업앨범을 만들었다. 당시 기자들도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라 속초읍에서 일어나는 각종 관급 행사사진은 고인의 몫이었다고 한다. 고인은 1956년부터 사진관에 직원을 두고 카메라를 메고 발걸음을 설악산으로 향했다. 두루 알다시피 50년대 설악산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산이었다. 고인은 처음으로 설악산의 비경을 관광화보집에 담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초창기 설악산 개발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고인은 설악산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총 3차례 걸쳐 화보집을 발간했다. 59년 최초의 화보집 발간에 이어, 63년 박경원 도지사의 부탁으로 '동해안과 설악산'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150부 제작했으며, 69년에는 최초의 설악산 칼라화보집을 200부 발간해 전국의 관광여행사와 각계기관에 배포했다. 3권의 화보집은 모두 설악산의 비경에 대한 한글설명 이외에 영문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미 그때 외국관광객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던 셈이다. 고인은 또 설악산 비경의 이름을 많이 만들었다. 처음 화보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설악산 일대의 지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인은 신흥사에 적을 두었던 스님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제작한 「신흥사지」를 찾아내어 정확한 지명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절경들은 고인이 직접 작명했다.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앞에 우뚝 서 있는 선녀봉, 권금성 뒤편의 집선봉, 천불동계곡 방면의 문주담, 이호담, 귀면담, 오련폭포, 양폭, 음폭, 천당폭포, 염주폭포, 공룡능선 방면의 천화대, 유선대 등은 고인이 직접 지은 비경의 이름들이다. 고인의 노력으로 설악산은 전국 사진작가들의 촬영명소로 부상했고, 59년에는 영국황실 아시아학술회원 일행 90여명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설악산을 찾았다. 고인이 당시 자동차 길이 없어서 외국인 유치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국방부가 대포동에서 설악동까지 도로를 닦아 주었다고 한다. 숙소도 없어서 탐방객은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서 밤을 세워야 했다. 고인은 설악산 관광을 위해 최초로 호텔을 건립하고, 속초에 비행

기가 취항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9년 광주 무등산과 제주도에 철도호텔을 건립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인과 고(故) 이달영 씨는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교통부장관을 쫓아가 설악산에도 호텔을 건립토록 요구, 결국 10칸짜리 목조호텔(현 설악산 관광호텔 목조부분)을 짓도록 했다. 또한 교통부를 방문해 속초에 비행기 취항을 요청, 극동항공(이후 대한항공이 취항)이 속초지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인업적 기려 추모 흉상 건립을

1962년에는 설악산 천불동계곡의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일조했으며, 1966년에는 예총 초대 속초지부장을 맡아 관광이벤트 차원의 문화행사인 '설악제'를 처음으로 열었다. 설악산개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60년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1969년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92년에는 속초시민문화상 지역개발부문을 수상했다. 안타깝게도 이렇듯 속초를 빛낸 인물의 장례식이 속초시 사회장(葬)도, 문화예술인장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 중 필름 1,000여점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고인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옛 사진이 우리지역의 역사를 증명할진대 고인의 업적을 기려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추모흉상 건립도 검토해보자. 고인은 지난 3일 고성군 가진리 고성 공설묘원에 잠들었으며, 유족은 미망인 장월교 여사와 슬하에 4남 1녀(장남 최원근 속중 16회)가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5. 1950~60년대 설악산 기행문 자료

1) 김춘근(金春根), 「설악산기행 -億이에게」,

철석 철석, 달빛을 실은 채 밀려오는 호수의 속사귀를 들으며 설악을 답사한 젊은 학도들의 피로한 모습이 고요히 잠든 경포대의 밤, 이 밤에 나

는 송인동 버스정류장에 비 맞으며 나타났던 억(億)이의 마음 초라한 환상을 그리며 펜을 쥐었네. 억(億)이, 얼마나 따라나서고 싶었던가? 미지의 설악을 향해,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는 근(根)의 모습이 몹시도 부러웠을테지, 나는 그 심정을 잘 알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긴장된 눈동자를 굴리며 하나하나 밟아 제친 설악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네게 보내려는 거야. 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과 인제군 사이에 있으니까 위도 상으로는 북위 38°-38°5' 동경 128°-128°5'가 될 테지. 이 안에 펼쳐져 있는 방대한 험산이라고 알아주면 좋을 거야.

◎ **맥박은 뛰고:** 7월 25일 오후 5시 외가평을 떠나 백담사로 향하는 14명 일행의 자태가 보였네. 설악을 정복하려는 젊은이들 그들에게는 세상의 온갖 제약이 물러갔고, 다만 주어진 것이 자유, 대자연을 마음껏 감미하려는 흐뭇한 감정으로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었네. 이들의 발길을 누가 억제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들의 의사대로 움직이고 설악이 부르는 대로 도전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나는 옛 영웅들의 거동을 생각해 봤어.

◎ **피나무꽃:** 설악산의 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대자연의 신비경에 도취해버렸던 것이네. 푸른 숲속에서 열른 눈에 띄우는 것이 피나무 꽃이었는데, 그 향기는 참으로 기막힌 것이었어. 이 나라의 역대임금들이, 설악산 꿀을 좋아한 이유도 순전히 이 피나무 꽃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교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이 꽃의 향기는 설악의 향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거든.

◎ **백담사에:** 계곡을 더듬어, 냇물을 건널 때마다 물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을 꺾꺾 참으며 다시금발을 옮겨 올라가면 단풍나무, 피나무, 춘향목, 목련, 매자나무 이런 것들이 꼭 우거진 위험한 비탈길을 걸어야 했어. 그리하여 꼭 저물어서야 백담사에 도착했지. 이때부터 첫날밤의 즐거운 캠프가 시작된 거야. 천막을 쳐놓고 밥을 지어먹으니 벌써 자정이 되지 않겠나.

피곤한지라 짝소리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지.

◎ **식물상태의 관찰:** 이튿날은 오세 암까지 코스인데 좀 가파른 곳도 있었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영영 골루 가는 판이야. 더구나 맡겨진 임무가 식물의 생태 관찰이었으니 만큼 50m간격을 두고 2m내의 식물상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네. B군과 나는 줄을 띄워 거리를 측량하였고 L교수께서는 기록을 담당하였지. 얼른 생각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지만 실은 큰 고역이었네. 등허리의 짐은 왜 그리도 매달리우든지, 발길은 거의 의식을 잃은 듯, 엉빙덤빙 제멋대로 놓이지 않겠나. 줄띄우기 마저 불가능하게 되어 보측을 하는 수밖에 없었네. ‘여보게 억이, 윈 종일 걸은 길의 발자국을 세었다면 곧이듣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네. 더구나 비가 막 내려 쏟아지는 험악한 숲속에서 말이야.

◎ **오세암:** 3일째 되던 날은 비를 맞으며 일부는 봉정암을 향하여 떠나고 나는 오세암 잔유자의 일원이 되었네. 정상을 향해 떠나는 그들의 기력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초라한 암자에 머물러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적막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네. 얼마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가다듬어 둘레를 살피기 시작했지. 암자의 뒤편에는 꼭대기가 불쑥 튀어나와 금시 떨어질듯 한 바위가 있는데, 그에 잇닿은 것이 가는 봉 암자에서 전면으로 마주 바라다 보이는 봉이 망경대, 암자의 바른편으로 올려다 보이는 것은 칠성봉, 봉정암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는 사자봉이 있는데 모두가 삐죽삐죽 날카롭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험산으로 이것을 병풍삼아 그 안에 양쪽 계곡으로 샘이 흐르고 감로용천이라 이름 지은 맑은 물이 있으며, 조금 평탄한 곳에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한 겨울을 혼자서 지냈다”는 전설을 지닌 자그마한 암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 이것이 그래서 오세암이라는 거야.

◎ **산중의 정서:** 이날은 윈 종일 비가 내려 잔유한 우리들에겐 예기치

아니한 한가함이 닥쳐왔어. 천막 속에 쪼그리고 앉아 이른바 정서교육(화토를 가리키는 용어)이 시작되었지. 처음엔 주로 팔목 맞기였는데 이것이 수업료 제도로 진전을 보는가 하면 장학생, 우등생이란 용어와 수강신청이란 대명사가 제멋대로 튀어나와 어감으로서는 마치 오세암 대학의 정서학과를 신설한듯 한 기분들이었어. 암자에 어두움이 깃들자 이야기판이 벌어졌는데 불교에 관한 이야기, 더욱이 K선생의 실존주의 철학은 펍 흥미 있는 것이었어. “정과 부가 동시에 동일개체 내에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가능성의 확변에 의해서 제정된다.”는 부조리의 이론에 대하여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존재자로서의 하나님보다 비존재자로서의 모든 것에 미치는 통제력을 규정짓는 그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나의 풋내 나는 철학적 사색의 일단을 피력해보기도 하고, 끝판에 가서는 엉터리 만담으로서 “연애과정에 미치는 효소의 작용성”이니 “방구의 이론”이니 해가면서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 등 어쨌든 매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든 것일세.



설악의 봄 사진제공·속초시청

“수십 년 전이라면 이곳에 살고 싶다”
 김수증(金壽增), 『유곡연기(遊曲淵記)』

◎ **명상에 잠김:** 다음날도 우리는 오세암에 정착해 있어야 했는데, 5시

반쯤해서 나는 혼자 칠성 봉에 오르기 시작했다. Mountain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가파른 봉우리였는데 기어오르기에 아주 위험한 찰라도 있었어. 첩봉에 이르자, 세찬 바람에 부딪쳐 몸의 균형을 잃게 되었네. 바위를 붙안고 밑을 내려다보니 험악한 절벽이요 아찔하게 느껴질 일 없겠나. 잠시 마음의 안정을 기다렸다가 서서히 머리를 들어 원근을 살피며 명상에 잠겼든 것일세. 시야에 한없이 웅장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봉우리와 봉우리, 직선미와 날카로움이 있는 바위의 산, 솟구쳐 오르는 경탄의 감개, 설악을 정복하려든 한 사나이의 의지가 꺾어지는 듯, 도취에서 깨려고 애써보아도 완전히 허사였네. 정복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고 설악은 결코 의정한 승리자였지. 그러나 가슴은 환희에 뛰놀고 있었네. 마치 설악의 왕자처럼 가는 곳마다 환호의 함성이 그 봉우리를 뒤흔들 것만 같았거든. 억이, 이때의 나의 기분을 어떻게 전하면 좋은가? 이렇게 살아있는 감정은 생명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함과 같이 직접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야.

◎ **채집:** 암자에 내려와 아침밥을 먹은 후, 이번엔 채집통을 둘러메고 망경대에 올라갔어. 시야의 범위에는 성봉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고, 식물상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만병초와 물앵두, 잣나무, 생각나무, 철쭉, 노루오줌, 노루귀, 제비쭉, 단풍취, 호랑버들, 삼주 이런 것들이 있었네.

◎ **봉정암에서 돌아옴:** 해가 만경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봉정암에 올라갔던 일행 중에서 몇 사람이 먼저 도착했어. 그리고 곧 뒤에 모두 따라온다는 거야. 처음 출발시의 계획은 정상에서 2박으로 되어있는데, 일기의 불순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드라나. 침낭과 입고 간 옷들은 담뱃 쪼았지. 평지에서는 삼복중의 더운 시기이건만 그곳에선 추워서 잠 한잠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야. 아침에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봉인 대청봉을 향해 떠났는데 안개가 폭 덮이고 우박이 내려 쏟아지는 통에 지

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 소청봉에 일단 올라서고 나니까 바람이 어떻게 휘몰아치든지, 사람마저 원통 날려 보낼 것 같았고, 대청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서 내려오고 말았다는 거야 도착한 그들은 모두 피로한 모습이었어. 그러나 S군, K군, B군은 제각기 개선장군이나 된 듯, 신바람이 나서 노래와 춤의 쇼를 한바탕 연출하였는데 나도 그러한 멋진 기분이라면 가지고도 싶었어.

◎ **산악하는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산악행동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고역의 도에 정비례한다는 이상한 감정이야. 비와 우박이 쏟아지는 봉정 암이었기에 이들은 더욱 신이 났던 것이고, 수십 번 넘어진 일과 추워서 별별 떨었다고 하는 것이 모두 그들에 자랑이요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재미나는 감정이 아니겠어. 왜 몇 바퀴씩 산에서 뒹굴다간 별떡 일어서면 화를 내지 않나 말이야. 팔과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도 본체만체, 싱그레 웃어버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자고. 이때의 기분이 바로 산악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야.

◎ **어려운 고비 마등령:** 다음날은 1200고지 마등령을 넘어서 신흥사로 가는 코스인데 아마 우리가 났은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고비가 아닌가 생각해. 지금까지 따라오던 Porter들은 돌아가고, 천막, 쌀, 담요 또는 Sleeping Bag, Air matrass, 갈아입을 옷, 간즈메, 이런 것들을 힘 있는 대로 잔뜩 짊어지고 정상에 갔다 온 피로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가파른 산길을 걸어야 했거든. 도중에 마실 물이라곤 거의 없었고, 거리는 늘어진 40리라는 거야. 더구나 도중에서 나는 낙오된 일이 있었는데 K선생이 구하러 왔었고 L교수께서는 먼저 신흥사에 도착하여 각처에 연락을 취하는 한편 건빵과 후랏쉬를 들고 찾아 떠나시고 학생들은 모두 근심에 싸여 있었어. 어떻게나 황송스럽던지, 나는 가슴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네.

◎ **산악행동시의 주의할 점:** 이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낀 것은 ① 산악행동에는 절대로 자기고집을 버릴 것 ② 수통과 건방(또는 쌀가루) 후랏쉬는 행동 시에 늘 휴대하고 있을 것 ③ 일단 낙오되어 어두움이 닥칠 때는 헤매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④ 탐색원은 반드시 2명을 보내고 1명은 약속된 시간에 본대와의 연락을 취할 것 등이라고 생각하였네.

◎ **신흥사에:** 마등령 코스에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마루턱에 올라섰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동해의 푸른빛이었네. 지금까지 험상궂은 산속에서만 헤매이든 우리에게 망망한 해안의 발견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 같았어. 여기서부터 가파른 내리막 비탈길을 옆치락뒤치락하면서 이날의 목표인 신흥사에 도달한 즉 L교수와 함께 먼저 도착한 K양이 안타까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가 피로했고 그러면서도 즐거운 얼굴들이야. 세상의 온갖 고초를 이겨낸 사람들처럼 꺼림직 한 감정이나 근심걱정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 것은 원통 마등령의 마루턱에 내 동맹이친 모양이지. 손과 다리엔 가벼운 상처나마 없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에 위생을 담당한 C군의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었네. 자신의 피로를 무릅쓰고 단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그 정성도 지극한 것이었네. 설악의 위엄에 못지않는 웅장한 건물, 신흥사의 밤은 깊어가고 구름 사이사이로 맑게 흐르는 달빛은 돌과 모래의 흰빛 강변을 비추어 주었고 여기에 마등령의 피로를 잊은 듯, 단원들은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정서어린 한때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일세.

◎ **대청봉으로:** 신흥사에서 한 밤을 보내고, 서울을 떠난 지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대청봉을 향해 일행은 기력 있는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네. 화채봉을 걸쳐 대청봉으로 가는 길은 처음 능성까지의 코스가 제일 어려운 고비였고 고도 700m가량은 나무에 매달리면서 발을 옮겨야하는 가파른 곳이었어. 손 한번 발 한 번의 순서적인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어푸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처음엔 옷나

무 같은 것을 피해도 보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닥치는 대로 쥐어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네. 그러나 다행히도 옷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일단 능선에 올라서면 동해를 등지고 웅장한 설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태도로 걸을 수가 있었네.

◎ **화채 봉까지의 식물상:** 여기까지에 눈에 띄우는 식물명을 대략 적어 보면(C군의 기록을 인용) 단풍나무, 철쭉, 흰싸루(한그루 발견), 개죽나무, 좁은단풍, 노루오줌, 신갈나무, 삼박하, 노루기, 생각나무, 다름나무, 다래, 싸리, 개쉬닥나무, 진달래, 물푸레, 새, 노란제비꽃, 잔대, 쪼록싸리, 딱총나무, 제비쭉, 단풍취, 호랑버들, 가는잔대, 옷나무, 개옷나무, 애기나리, 소나무, 나무딸기, 산앵두, 꽃메누리밥풀, 금마타리, 마가목 등이었고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 만병초, 넓은잎잔대, 털진달래, 꿩고비, 물개암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보였으며 화채봉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송낙, 금강초롱, 바위툭풀, 돈봉오리, 동자꽃, 땃드릅 따위의 고산식물을 채집할 수 있었던 것일세.

◎ **달리는 등반자들:** 화채 봉에는 바위 밑에서 2~3명이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등허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오 3시 20분 대청봉을 향해 일행은 빠른 걸음으로 떠났네. 맨 선두에 안내인, 그 뒤에 I양과 K양이 따르고 R교수는 후위에서 채집을 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셨어. 비는 쏟아지고 속에 입은 옷까지 폭 젖은 우리들, 수풀 사이로 정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과연 극적인 장면이었네. 더욱이 놀랍게도 여겨진 것은 K양과 I양의 행동이야. 여학생이 정상 등반자의 일원이 된 것만도 기록 이려니와 연일 여정의 피로도 모르는 듯, 화채 봉에서 대청봉까지 약 10km를 줄곧 달음질쳤다는 사실은 어떤 능력의 범위를 확실히 초월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 어떻게든 빨리 달리든지 뒤에서는 채집은 고사하고 “천천히 갑시다.”를 연발할 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네. 높이 1700m의 지점에 이르러서야 나는 겨우 채집을 시작했는데 산오이풀, 등대시호, 잔대, 냉갈귀쭉, 구절초, 병꽃나무, 점자작나무, 미역취, 실내내 등이 하늘높이 솟

아있는 설악의 왕봉 대청봉을 푸른빛으로 장식하고 있었어.

◎ **정상에서:** 7월 30일 오후 5시 30분 드디어 해발 1708m의 관목지대에 나타난 등반자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풍기며 감격의 함성마저 잃어버린 듯, 자신들의 발아래 굽혀든 대설악, 비와 안개에 묻힌 이 봉우리를 밟고 또 밟으며 맑은 날이면 북쪽으로 금강산의 비로봉이 보이고 남쪽으로 오대산의 뚜렷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곳 대청봉의 마루턱에 묵묵히 돌 한 개를 주어서 ‘케륀’을 쌓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역이는 알 리 없고, 내가 잡은 펜은 마음 먹은대로 도무지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네. 추위를 피해서 ‘케륀’뒤에 쪼그리고 앉아 여럿의 얼굴을 낮 익혀두려는 듯 나는 새삼스레 둘러보았지. 언제나 원만하고 침착하신 R교수, 부지런한 C군, 야호- 로서 단원들을 격려하는 I양, 전형적인 산악의 용사 K양 그리고 농대의 Y군과 A군 또한 H선생과 안내인을 포함하여 나까지 일행은 9명이었어. 돌아서 내려올 때는 모두들 환희에 찬 얼굴이었고 말은 없으나 무엇인지 만족한 듯, 그러나 비가 내려 사진 한 장 찍어 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제마다 지닌 채 발걸음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네.

◎ **바위 밑에서 한 밤을:** 화채 봉 바위에 이르러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모두들 비를 피하여 바위 밑으로 들어갔지. 밖에선 가끔 천둥소리가 들리고 345고지 화채봉의 밤은 바위를 지붕삼아 쪼그리고 앉은 채 맞이했던 것일세. 곰이 입을 벌리고 덤썩 나타날 것 같은 무서움도 있었고, 심산의 적막한 감개도 없지 않았네. 다행히 포터들이 밤새껏 불을 피워주어 안심하고 모진 잠을 이끌어 들일 수가 있었든 것이네.

◎ **대청봉이여 안녕! 바위님도 안녕:** 새벽이 되자 잠시 대청봉의 개인 틈을 타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그 봉우리의 인상을 머릿속 깊이 새겨둔 채 개선의 활보를 산 밑으로 옮겼든 것일세. 하루 밤의 신세를 진 바위에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인제 모든 임무는 끝나 승리를 의식하는 기

뿐 마음으로 R군과 B군이 능선에 까지 갔다준 카라멜을 맛있게 먹으면서
신흥사에 돌아왔었다.

◎ **속초와 낙산사와 경포대:** 군에서 차 한 대를 얻어, 오후 2시 30분 학
술조사단의 청색깃발을 트럭 위에 휘날리며 속초에 이르자 멀어졌든 사회
에 다시금 부닥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역서 멋진 함흥냉면 한 그릇을
삼킨 다음, 낙산사에 와서 원통보전을 구경하고 의상대를 지나 흥련 암에
서는 마루 밑창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해경을 보는 등 시간 시간이 모
두 새롭고도 즐거웠든 것일세. 다시금 트럭 위에 올라 동해의 아름다운 풍
치를 바라보며 저녁 7시 30분에 경포대에 도착하였네. 경포대는 금년에 새
로 신설된 해수욕장인데 여기서 이틀을 지내고 강릉을 걸쳐 서울에 돌아
갈 생각이야.

◎ **철석철석:** 인제 펜을 놓지. 아직도 보름달은 이곳 해안의 소나무 위
에 걸려있고 파도소리도 여전히 들려오네. 천막 속에 스며드는 조용한 바
람결에 촛불은 흔들리고 내일의 즐거움을 꿈속에 보는 단원들의 달콤한
잠도 오래지 않아 기어코 저 파도소리에 깨이고 말거야. 먼동이 터오네. 하
품이 잦아지는 걸 보니 나도 웬간히 잠에 취한 모양이지. 자 그럼 다음날
서울에서 만나세 안녕! 경포대에서.

『高鳳』 제2권 제2호, 문예특집, 신흥대학교 생물학과 4,
학도호국단 학예부, 1958년 10월

2) 김용덕(金龍德), 「설악산 기행문」

7월 27일 아침 6시 우리 등반대 일행은 며칠 전부터 계획하여 오던 설악
산 등반을 떠나게 되었다. 부모님의 근심도 뿌리치고 각자 자기 개인의 장
비와 며칠간의 살림살이를 꾸려 여관에 모인 우리는 벌써 기쁨과 흥분에
들떠 마치 우주 정복을 떠나는 비행사 같은 기분이었다.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버스에 오른 일행은 속초로 향했다. 버스는 가지 본체라도
알리고 싶은 양 뿌연 먼지를 쉴 새 없이 날리며 달렸다. 일선이 가까워오

자 몇 번인 검문을 거쳐 어느덧 38교를 지난다. 38교! 누가 지어 놓은 이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38선의 유물인 것엔 틀림없으리라. 38! 얼마나 쓰라렸던 것이냐!

조국의 비운이 그려진, 이것으로 인한 오늘날의 괴로움이 어떠한가. 다시 한 번 조국통일을 기원하여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때 버스는 벌써 홍천에 들어섰다.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속초를 향했다. 홍천에서 얼마를 갔을 때 길 양옆으로 뻗어 솟은 봉과 울창한 나무 기암들, 아마도 태백산맥의 전통적인 유산을 과시하는 듯하다.

버스가 속초에 닿았을 때는 12시, 시가에 들어서자마자 오징어 냄새는 기분을 상쾌하게는 못했다. 그러나 계절이 인연인지 바다는 참으로 상쾌했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시 목적지인 신흥사에 닿았다.

멀리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웅대한 기봉들이 한 무더기 한 무더기씩 뺨쪽뺨쪽 솟아난 것이 수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금강산의 이름 중 설악이란 것이 혹시 이곳을 가리켜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아심마저 난다. 신비로움에 젖은 일행은 버스 속에서 잔뜩 들썩운 먼지를 털고 세수에 분주하였다.

돌 틈으로 소리쳐 흐르는 맑은 물은 뺨가 저리도록 차서 오래 넣고 견딜 수가 없었다. 아! 시원한 촉감 물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아쉬운 액체, 시집갈 누나를 이 물로 한번 만이라도 세수를 시키고 싶다. 일단 세수가 끝난 우리 일행은 장비를 다시 갖추고 등반에 관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외워 본 후 산에 올랐다.

계곡을 지나고 우거진 풀밭을 지나고 바위 언덕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어 반시간쯤 걸었을까, 운동장만한 바위가 한층 두층을 지어 나타나고 그 위를 맑은 물이 구비쳐 흐르는 넓은 계곡이 나타났다. 이곳이 와선대라고 한다.

이곳을 지나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면 아까보다 더 큰 바위들이 층을 지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깎아 세운듯 한 암벽이 나타난다. 물은 작은폭포가 되어 쏟아지고 그 아래는 푸르고 넓은 풀이 되어 있다. 여기가 비선대라는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신선들이 이 경치에 홀려서 올라가다가 우선 와선대에 누워 쉬었고 더 올라가 비선대에 이르러서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늑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늘에서 인연을 맺기 위해 신선과 선녀가 쌍쌍이 손을 잡고 높은 절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와선대 비선대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시간은 5시 반이다.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Camp,1이다. 우선 밥을 지어 먹고 잠자리를 준비하였다. 일찍부터 단련된 신속한 행동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내일의 등행을 위하여 오늘은 꼭 쉬기로 했다. 제트기(모기) 공습이 너무 심해서 신경질이 생길 지경이다. 밤이 깊어지자 적막이 엄습해 오고,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는 더욱 빨리 아침이 돌아오기를 바라다 그만 잠이 든 모양이다.

얼마나 잤을까. 깨우는 통에 벌떡 일어나니 6시라, 7시 반에 식사를 완료하고 음푹까지 일정을 완료, 처음에는 가뿐하기만 하던 리크삭도 이제 집어 팽개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천불동 계속에는 수 천 년 흘러내리는 물로 침식되어 군데군데 천연 풀이 우리를 몇 번이나 유혹했다. 피면 암의 웅장함도 맛보았다.

지친 몸으로 Camp 자리를 찾고 밥을 짓는 동안 어디선지 야호! 메아리가 흘러 나왔다. 아무도 산곡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반가워 ‘야호’ 하고 답을 보냈다. 그 상대편은 구호의 메아리를 보내지 않는가, 우리는 구조 준비를 하고 아슬아슬한 동작으로 그들을 구했다. 그들은 S대학 산악부였다. 그것은 생명의 애착보다 Alpine 우정과 정신의 발로였다.

우리는 내일의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다. 하늘은 오후까지 맑더니 저녁엔 별을 찾아볼 수 없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등반에서 제일 걱정이며 난관인 것이 비다. 그러나 비는 조금도 사정을 보아 주지 않는다. 비는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내렸다. 그러나 계속 머물고 있을 수 없어 우중행동이 계속되었다.

옷과 리크삭은 비에 젖어 2배 3배나 무겁다. 피곤은 더욱 우리의 심정을 괴롭혔다. 몇 번이고 주저앉기도 하고, 비에 젖은 옷이나 리크삭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이젠 빨리 정상을 정복하는 관념밖에 없었다. 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물이 귀하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능선과 바위 사이를 피하여 오르내리다, 대원 중 청봉이다! 하고 소리쳤다. 해발 1708m의 주봉이 청봉, 비가 내려 희미한 자태를 나타냈다. 일행은 그동안 피나는 고생도 피로도 다 잊고 정상을 정복했다.

얼마나 바라던 곳이며, 몇 몇 날을 두고 생각하였던 목적지였다. 청봉 만세! 중앙산악 반 만세! 환희에 찬 순간 굳은 악수를 나누던 일행의 모습은 젊은 기상이 넘쳐흐르는 중앙의 건아였고, 조국의 일꾼들임을 역력히 볼 수 있다. 1708m에서 휘날리는 중앙의 페난트는 우리를 더욱 흥분하게 했다.

동해의 검푸른 바다가 운무사이로 조금 보인다. 청봉 부근의 고산지대의 자태가 역역하여 한길이 넘는 큰 나무라고는 없고, 조그만 관목들이 온 산을 뒤덮고 있어 마치 정원에 단장해 놓은 아름다운 관상용 나무 같았다.

감개 쌓인 일행은 청봉의 아쉬움을 뒤에 두고, 봉정 암으로 향하였다. 멀리 보이는 봉정 암은 등산객의 본거지다. 우리는 다음으로 오세 암으로 향하였다. 다섯 살 먹은 어린애가 도를 깨우쳤다고 해서 이조 인조 때 설정대사가 오세 암이라고 명명하였다 한다.

다음은 마지막, 난코스인 마등령이다. 조금 왔을 때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거목들이 길에 넘어져 더 귀찮게 굴었다. 마등령에 올라서니 멀리 설악산 관광호텔이 눈에 띈었다. 호텔의 폭신한 침대 생각과 김치생각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30m씩 되는 칙냉쿨이 얇힌 밀림을 헤쳐 무사히 전원 하산하였다.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신흥사로 향하였다. 신흥사에 모인 일행은 커피를 나누면서 등반보고를 작성할 때, 신흥사의 종이 우리의 꿈을 재촉하였다.

『桂友』 37호, 중앙중고등학교교지, 1963년.

〈참고문헌〉

- 『道川面 面勢一覽』, 1926
金道東, 『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54
李殷相, 『鷺山文選』, 永昌書館, 1958
崔九鉉, 『雪嶽山觀光畫帖』, 雪嶽山觀光協會, 1958
劉昌惇,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69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高淵在, 『外雪嶽觀光案內』, 束草市教育廳, 1966
이은상, 『산 찾아 물 따라』, 박영사, 1966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文敎部 文化財管理局, 1967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金鍾極,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張在憲 外, 『第一回 海外遠程 登攀訓練隊 雪嶽山遭難調查報告書』, 韓國山岳會, 1971
秦教俊, 『설악산애기』, 世紀出版社, 1972
黃沅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손경석, 『한국의 신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李泰極·金永琪·李昇勳, 『太白的 詩文 上』, 江原日報社, 1977
崔承洵, 『太白的 詩文 下』, 江原日報社, 1977
崔喆 譯, 『東國山水記』, 德文出版社, 1977
金在榮·金振統, 『雪岳洞開發事業誌』, 江原道, 1981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江原道, 1984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成東奎, 『雪岳의 秘境』,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88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9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유창서 편, 『바람이여 구름이여 설악이여』, 송암출판사, 199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손경석, 『설악산』, 대원사, 1993
崔和秀, 『컬러紀行 雪嶽山』, 國際新聞, 1994
함영덕 글, 성동규 사진, 『설악의 물길 따라』, 백산출판사, 1995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海左集』, 瑞耿出版社, 1996
鄭珉 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4』, 강원도 편Ⅲ, 민창문화사, 1996
임양재, 『한국의 자연탐험 설악산』,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문순화 외, 『설악산의 꽃』, 교학사, 1997
『朝鮮時代 江原女性詩文集』, 강원도, 1998
함영덕, 『청봉 가는 길』, 백산출판사, 199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박그림, 『산양 똥을 먹는 사람』, 도서출판 명상, 2000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속초문화원, 2003

-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학총서⑤, 집문당, 2006
-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엄경선, 『설악에 핀 숨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8
-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속초문화 24호, 속초문화원, 2008
-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마음살림, 2009
- 권혁진 · 홍하일 · 최병현 · 허남옥 편역,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문자향, 2015
-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도서출판 산책, 2016



태고의 신비 설악산 사진제공·속초시청

“하늘을 받들고 있는 바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다.”
채지홍(蔡之洪), 『동정기(東征記)』

속초지역 아리랑의 전승 맥락과 특성 분석



1. 머리말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아리랑은 그 전승이 다양하고 지역성으로 반영하여 다채로운데, 속초지역에서도 당연히 아리랑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속초 도문메나리농요는 2007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보유자 오순석)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속초 도문동 지역의 전승농업노동요인 메나리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¹⁾

전형적인 노동요인 메나리 농요와 함께 유희요인 아리랑은 속초지역에도 그 전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아리랑의 속초전승에 대한 본격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민요집에는 ‘설악산’

1)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2013년도 종합업무계획』, 2013. 101쪽, 속초도문농요 제20호(2007.2.23.) 보유단체: 속초도문농요보존회(2008.3.21.), 보유자: 오순석(남.40.1.12), 교육조교: 오명현(남.43.3.16), 최도수(남.43.2.8), 전수강학생: 이상욱, 오영자, 박원규, 김환기, 허영희, 김동연

‘의상대’ 등의 가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피나리봇짐을 지고 중국 북간도로 떠났던 설악권 주민들의 한스런 노래에서도 아리랑이 불렸다.

그동안 간헐적인 조사에서 속초에서 불린 아리랑 자료가 수집된바 있으나 그 양은 많은 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구전하는 정선아리랑은 4,993수이고 음반에 수록된 가사도 510수에 달한다.²⁾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은 ‘동해안아리랑’ 또는 ‘설악권아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본고는 필자가 수집 채록한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현황과 가사의 향토적 토착성과 문예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³⁾

II.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가사의 향토성

동해바다와 산촌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의 어로요나 도문메나리 농요 등과 함께 속초아리랑의 전승이 확인된다.⁴⁾ 김지연은 일찍이 아리랑의 기원과 종류 21종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양양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⁵⁾ 따라서 당시 양양에 속했던 고성과 속초지역 아리랑의 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29종으로 분류한 아리랑에도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 춘천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강원지역 아리랑 4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강원도아리랑 또는 동해안아리랑 민요군으로서 고성아리랑의 전승양상과 향토적 위상은 일찍부터 확고했음이 증명된다.

우리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민요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행적에서 그 시대, 그곳 인민들의 기질과 애호, 민요적 전통, 생활풍속 등의 차별에 따라 지방적 특

2)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3) 본고는 필자의 원고 『속초아리랑 전승가사 현황과 내용분석』(속초민예총세미나 자료, 2014.6.14.)를 수정 보완하였다.

4)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 『속초문화』 제22호, 속초문화원, 2006. 72~133쪽

5) 金志淵, 『朝鮮民謠아리랑』, 『朝鮮』 152호, 1930년 6월호 40쪽 참조,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378쪽 재인용

색을 띠어 많은 변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집되고 정리된 주요한 전통적 아리랑의 변종들을 헤아려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아리랑, 원산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일아리랑, 하동아리랑, 정읍아리랑, 공주아리랑, 안주아리랑, 배양아리랑, 남원아리랑, 청주아리랑, 량강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평안아리랑,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세산아리랑, 서울아리랑, 구례아리랑, 진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 곡산아리랑, 순창아리랑, 창녕아리랑, 춘천아리랑, 서도아리랑, 단천아리랑, 영천아리랑, 삼아리랑⁶⁾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지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생겨났으며 전국적으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었다. 아리랑은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함경도의 〈함경도아리랑〉 〈단천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그밖에 〈영천아리랑〉, 〈정선아리랑〉, 〈삼아리랑〉 등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는 거의 모두가 사랑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버리고 간 님에 대한 애정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⁷⁾

강원도 북쪽은 함경도민요가 불리워졌고 서쪽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으며 남쪽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다. 바로 이러한 지대적 특성으로 하여 이 고장의 민요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시원스럽고 흥취나는 민요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등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가장 많은 지대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양닐니리〉와 같은 춤곡에 가사를 달아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강원도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안고 있는 지대이므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각 지방의 각이한 민요들이 불리워졌던 탓으로 노래의 빈곤을 모르던 곳이다. …〈강원도아리랑〉과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과 〈통천아리랑〉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많은 강원도는 민요가 많은 지방이다.⁸⁾

조선민요를 지역과 지방별로 대별해보면 크게 다섯 개 지역 즉 서도민요, 동해안민요, 중부민요, 남도민요, 북방민요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적 특색이 민요의 음조, 양

6) 조성일, 『민요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3, 166~167쪽

7)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191쪽

8) 최창호,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288~293쪽

상, 선율적 색깔에 확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민요아리랑도 전국적으로 매 도마다에서 창조되고 지역적으로 크게 서도아리랑, 중부아리랑, 남도아리랑, 함경도와 강원도 아리랑, 영남아리랑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민요의 음조와 양상, 향토서정 민요로서의 특색을 가지게 된다. …아리랑은 지방, 지역별로 창조 전승되면서 제각기 자기고장의 이름을 달아 명명되어 온 것만큼 생활내용과 풍토·문물·인정 등에서 향토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채롭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안주·송림·곡산 등 〈서도아리랑〉이 특색 있는가 하면 단천·온천·어랑을 위시로 하는 〈함경도아리랑〉, 원산·고성·양양을 포괄하는 〈강원도아리랑〉, 중부지방의 〈서울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도아리랑〉, 영남지방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밀양·창녕·문경아리랑과 남도지방을 포괄하는 영일·진도·남원·순창·영천 등 수많은 아리랑이 향토 정서적 색채가 뚜렷하다.⁹⁾

속초지역에서는 긴아리랑, 자진아리랑, 엮음아리랑이 전승되는 것으로 확증하고 있으며 또한 속초지역 아리랑에는 후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후렴은 “아후, 넘겨주게, 넘어간다. 언제 또 넘어보나” 등으로 27~32%을 차지한다고 하였다.¹⁰⁾

현재 조사된 아리랑 가사 중에는 설악산이 가사에 들어간 아리랑이 소화 10(1935)년 민요집에 등장하고 있다.¹¹⁾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 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라는 이 아리랑 민요는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설악산이 그만큼 알려졌다다는 의미도 있고 1,708m의

9) 최창호, 『조선민요의 세계(하)』, 평양출판사, 2002, 163쪽

10) 유명희, 「아리랑연구」,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6쪽

11) 趙潤濟 編, 『民謠集』, 京城師範學校 朝鮮語研究部, 1935, 59쪽 ‘풍자류’ (강정룡 소장 가리방필사본), 이 경사본 민요집은 1922년부터 1946년까지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교육기관이었던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학생들이 수집 등사한 민요집이다. 이 책 서문을 도남 조윤제 선생이 썼는데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서, 192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 입학하여 조선어문학 전공 최초학생이 되었으며 1929년 졸업하자 동 학부에서 촉탁, 조수를 거쳐 1932년 3월 경성사범학교 교유(敎諭)로 중등학교 교원이 되었다. 이후 7년간 근무하고 1939년 3월에 이 학교를 사임하였다. 이 민요집은 도남 선생이 경성사범학교 재직 당시인 을해년(1935년:소화10년) 2월에 간행한 것으로 몇 부를 발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등사본의 성격상 많은 수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들에게 기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 수집권 정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분류는 전체 12가지다. 부요류(婦謠類)-66수, 상사류(相思類)-15수, 풍자류(諷刺類)-33수, 자장가류(自長歌類)-23수, 어희류(語戲類)-19수, 동요류(童謠類)-112수, 속요류(俗謠類)-12수, 취락류(醉樂類)-4수, 수요류(數謠類)-10수, 노동류(勞動類)-4수, 잡류(雜類)-93수, 제주도의 민요-11수이다. 전체 민요는 402수인데 동요류가 112수로 가장 많고, 노동류, 취락류는 각각 4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강원도 강릉경포, 설악산, 양양 낙산 지명과 수집장소로 원주가 있다.

등 여러 측면에서 자원화가 가능하다.¹²⁾ 설악산 아리랑가사도 실향민 문화와 함께 속초지역 전통문화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¹³⁾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결성되었으며, (사)민예총 속초지부를 중심으로 설악산아리랑 음반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각종 행사에서 설악산아리랑이 불리고 있다.¹⁴⁾

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먹네
2. 공수레공수거라 빈손빈몸 왔다가 천만년을 살줄알고 고생고생 살았더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랴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후렴 이하 생략)
3.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반주 합시다
4. 한잔먹고 두잔먹고 또 한잔먹고 목마르고 갈증나는데 또한잔 먹세
5. 노르래 놀아라 젊어만 놀아라 늙어가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6. 간데어 쪽쪽이 정들여나놓고 이별이야 잣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7. 물결은 출러렁 뱃머리 울러렁 그대당신은 어디루갈려고 이배에 올랐나
8. 줄듯말듯 안주는저쳐너 총각심정을 아느냐 삼오십오 열다섯에 모발이 덜컹쉬거라
9. 늘민령 서둘기 헤루하 돈만갈다면 우리네 친구를 못살퀴주나
10. 우리나라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드메다가 줄때가 없어서 이곳에 왔나
11. 백발보고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년들아니 늙을소나 난들아니 늙을소나
12. 만반지수를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 초로같은 우리인생 일장춘몽 꿈이로구나
13. 설악산 산매미가 금전이라면 삼천만 우리동포가 먹구씨구 남네
14. 노랑저고리 자진고름에 눈물이 달달골고요 니탓이나내탓이나 중신애비탓이라
15. 물안골 고개다 좁쌀을 뿌렸더니 소쩍새가 다파먹고 조이대만 간들간들
16. 삼팔령 이남은 왜 갈라놓고 보고싶은 부모자식을 못보고사나
<빠른박>
1.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고개지 우리님야 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12)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속초문화원, 2009. 57~76쪽
 장정룡,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속초문화』 제29호, 속초문화원, 2013. 60~81쪽
 13) 장정룡,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 방향과 전략」, 『속초문화』 제21호, 속초문화원, 2005. 58~83쪽
 장정룡,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57~76쪽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 방안」, 『속초문화』 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14) 장정룡,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특징과 이해」, 속초아리랑 음반자료집, (사)민예총 속초지부, 2015

2. 아들딸여 날나고야 산제불공을 맡고 날같은야 여자를야 팔세를마라
3. 여기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집집마다 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소서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속초아리랑의 실존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차중용, 박계량, 김순녀, 최월선 씨 등이며 모두 70세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2002년에 가창한 60수의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속초아리랑이 민간 가창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은 최소 8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사실상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자료집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⁵⁾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고성촌, 조양촌(조선양양촌), 강원촌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성아리랑, 양양팔경가 등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935년 발간한 경성사범학교 민요집에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가 나타나고, 양양과 고성아리랑은 1980년대 조사자료와 중국 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1950년대까지 양양군에 일부가 속했다.¹⁶⁾



「속초아리랑 음반자료」

15) 朴敏一, 『江原道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16)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

[자료1] 설악산 꼭덕이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
(1930년,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민요집)

[자료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후렴)
당사실로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 거는 뭐로 푸나요

[자료3] 남포야 등잔야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굴이 본 것이 화근이요

[자료4]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자료5]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 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자료6] 삼팔령 이남은 왜갈라나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자료7] 무정한 산천초목야 말 물어보세
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자료8] 아들딸을 못낳고야 산제불공을야 말고
날같은야 여자들야 괄세를 마라

[자료9] 아리랑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자료10] 산이나여 높아야지 골골이나 짚지

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마나 깊너

[자료11] 우리나라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 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 없어서 이곳에 왔나

[자료12]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자료13] 갈철인지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귀주네

[자료14]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짜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네

[자료15] 우리나라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등등 안어등등 나를길러 왔다네

[자료16] 간데여 쪽쪽에 정들여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자료17] 고향은야 정깊어 타향이나야 되고야
타향은야 정들어 내고향이 되는구나

[자료18]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 잃고서
십오야 지등을 나가야안고 도느냐

[자료19]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얼마나 깊느냐

[자료20] 우리어머니여 울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 키웠네

[자료21]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게다 믿고서
소방산 대틀에 누워서 가느냐

[자료22] 철러덩철러덩철러덩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잔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자료23] 산천이여 파릇파릇야 가신던님이
백설이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차중용, 여.85, 속초시 노학동 노리, 2002.7.20., 장정룡 조사)

[자료2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후렴)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자료25]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아 어디로가나

[자료26] 역수장마할라는가 저산밑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 넘어간다.

[자료27]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 젊어지질 못하네

[자료28]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라 뒤돌아보았네

[자료29]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자료30]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깹깹짓고

우리님 병세는 아구야 짚어가는구나

[자료31] 청천하늘에 아구야 잦별도 많고
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자료32]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자료33]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 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 님도 모른다

[자료34]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

[자료35] 스스로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좋아
꽃같은 날버리구 아구야 돈벌러갔느냐

[자료36]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고요
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

[자료37]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보았너
임같은 골심에 뒤돌아보았네

[자료38] 치매폭에 싸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싸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자료39] 천길에 만길에 똑떨어져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자료40] 늘민령 서둘기가 어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귀주겠나

[자료41] 물각은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어찌하여 임자가 없나

[자료42]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자료43] 산이야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야 속이야 얼마나 깊으켰너

[자료44] 산이나 고와서 뒤돌어보았나
임과 싫어 흑시래 뒤돌아보았네

[자료45]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자료46]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박계량, 여.80, 속초시 도문동, 2002.5.26., 장정룡 조사)

[자료47]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쏘쩍새가 다파먹고 조릿대만 간들간들

[자료48]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 건달들 다 잘사귈터인데

[자료49]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 찍구여
니탓이나 내탓이나 중매재이 탓이로다

[자료50] 간다온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잡이나 자고가게

[자료51]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속이야 뭐그리 깊은소나

[자료52]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하잔다

[자료53]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서 타느냐

[자료54]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자료55] 기사머리 가려거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데려가느냐

[자료56]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자료57]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가 되었네

[자료58] 울넘어 담너머 꿀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들랑 외밭어 먹어라

[자료59] 나는야 언제나 남가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김순녀, 여.70, 속초시 도문동, 2002.7.13., 장정룡 조사)

[자료60]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뱀계주소(후렴)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이 원수요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자료61] 임자당신은 어데로 갈라고 신발단장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최월선, 여.77, 속초시 영랑동, 2002.7.4. 장정룡 조사)

속초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를 배경으로 불린 1935년에 채록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체 아리랑이 1920년대 나운규의 편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비해서 그 존재조차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로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를 노랫말로 사용한 아리랑과 함께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고성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음을 밝혀냈다.¹⁷⁾ 또한 신민요로 불린 양양팔경가도 중국 조선족 사회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다.¹⁸⁾ 지금도 중국 조선족 집거지에는 강원촌, 춘양촌, 고성촌, 양양촌 등 강원지역명을 띤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악권아리랑'의 전파론적 추적도 향후 수행할 연구 과제라 하겠다.¹⁹⁾

참고로 명산 설악산을 주제로 한 1950년대에 무암 박일호 씨가 작사한 '설악산노래'와 설악산기행 시조가 창작된바 있다.²⁰⁾ 신민요와 시조로 불린

17) 장정룡, 『중국고성촌 이주사연구』 고성군, 2013,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도서출판 화남, 2007

18)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19) 장정룡 외, 『재중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20) 이 노래는 1950~60년대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어렸을 때 박일호 씨를 만난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 설악산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설악산을 사랑하며 설악에 살았던 분이다. 이 노래는 당시에 만든 설악산 기념 펜던트에 적힌 내용이다(속초시립박물관장). 이외에도 대중가요로도 여러 편이 불렸다. 참고로 김부자와 하춘화가 1975년에 부른 설악산노래를 소개한다. 「관동팔경 설악산」, (1975, 김부자 노래) 설악산 푸른봉은 구름헤쳐 솟아있고, 비단같은 폭포수는 하늘까지 이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귀면암 가을단풍 석양같이 붉게 타며, 후세떠난 비선대에 선녀들이 춤을추고, 얼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울산바위 소금강은 천하명산 자랑하고, 신흥사 종소리는 국태민안 빌고비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설악산메아리」 (1975.6월, 김형인 작사, 하춘화 고봉산 노래, 지구레코드사) 흰구름덮힌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

설악산 노래처럼 속초아리랑도 지속적인 가사창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²¹⁾ 정선과 평창아리랑의 가사집이나 가사사전 등이 좋은 예가 된다.²²⁾

[설악산노래] 박일호 작사

설악산 보고지고 천리를 찾았드니,
푸른산 붉은잎이 옥류끼고 미소짓네
어즈버 세상풍류 다버리고 너와함께 살리라

설악산봉 높은구름 이내마음 실어다가
한양성중 지날적에 우리님을 만나거든
연분홍 치마폭에 그린마음 안겨주오

술보다 담배보다 어여쁜 아가씨가
아무리 좋다한들 대자연의 설악만은 못하더라
설악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땀방울에 씨앗이라고 말해주세요요

[鳳頂菴別曲]²³⁾

雪嶽(지금 설악산)이 아니라 벼락이요
求景이 아니라 苦境이요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

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 된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하이킹”
21) 『정선아리랑창작가사집』, 2013년 정선아리랑 전수관 가사 짓기 교실, 정선군, 2013
22) 장정룡,이한길, 『평창 아라리 가사 집』, 평창군, 2005,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23)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 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96쪽 “李朝時代 鄭澈이가 역적이 난다고 해서 인제군 북면에 있는 봉정암에 穴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靈靈이 일어남에 정철이 중얼대고 혈을 지르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한다.”

[설악산 기행시조]²⁴⁾

일컫한 설악산을 와서 반가운데
세속이 범람하니 참아보기 괴로워라
언제나 본연 그대로 마주보고 싶구나(설악산)

넓은 바위 깨끗한 물소리치며 흐르는데
그 옛날 노던 신선 지금은 간곳없고
깨끗한 물 넓은 바위 맑은 바람뿐이로다(비선대)

용이 살든 푸른 못물 용이 오른 세찬폭포
이 장관 무어두고 구름타고 어델갔나
설악산 기이한 풍경만 용의 조화로 남아있네(비룡폭)

III.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특징분석

속초아리랑의 가장형태는 나물 캐면서 메나리조로 부르는가 하면, 어랑 타령에 맞추어 흥겹게 모임에서 부르기도 한다. 속초지역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며, 일본어나 일본지명이 등장하는 것에서 일제강점기에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속초아리랑의 특징은 노랫말 즉 가사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속초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랫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이다. 이외에도 늘민령, 물안골, 삼팔령 등 지명이 등장한다. 둘째는 자연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정과 생활상, 정한 등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이것은 산과 계곡 등 설악산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로병사, 나물 캐는 여성들의 삶 등에 대한 정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같은 명산승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채로운 민

24) 崇山 지음, 『圓光』 제60호, 원불교교단기관지, 1968년 7월

요의 면모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은 일찍이 강조되었다.²⁵⁾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향(鄕)이요, 신비의 향(鄕)이요, 시의 향(鄕)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오는, 굴지의 동변(東邊)의 웅도(雄道)라고 볼 것이다. 즉 본도(本道)는 내외의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기절장엄(奇絶莊嚴)하면서도 청원유심(淸遠幽深)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명산승지가 도처에 벌여져 그 아름다운 자태야말로 해내외 열방(海內外 列邦)에서도 그 짝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경역을 배경으로…여기에 따르는 사적, 민요 및 향가와 시가문학의 자취가 외부세계에 그 빛을 발휘시키고저 하는 면에서 현존 민요를 더욱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이채로운 면모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속초아리랑 가사 가운데, “산천초목이여 불붙은 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요내 속에야 불붙은 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라는 내용이 있다. 속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산천초목에 붙은 불에 비유하고, 이를 아리랑에 의탁해서 한탄의 감정을 노출한 것이다.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우리 같은 여자 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고 하여 산천에 빗대어 단풍처럼 살림살이에 늙어가는 자신의 노쇠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청천하늘에 아구야 쟈별도 많고/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고 하늘에 빗대어 수심 많은 자신을 표출하였고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고 ‘참나물’ ‘즈내기’라는 설악계곡 산나물이 등장한다.

세 번째는 사랑과 정한에 얽힌 가사들이 많다. 사랑은 영원불변의 이야기다. 속초아리랑도 마찬가지다.²⁶⁾ 속초아리랑에서는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고 그리움의 정한을 죽음과 연관지어 나타냈다. “돈 그리워 죽은 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

25)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88쪽

26) 김한나, 『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이성문제』, 강릉원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에서는 ‘사랑고백과 이성교제, 이별 및 그리움, 성 인식과 표현’등으로 이성문제를 다루었다.

고요/임그리워 죽은 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고 하여 돈과 입을 동가적(同價的) 위상에 놓고 있다. 가난과 그리움은 숨길수록 안타깝게 더 드러난다.²⁷⁾ 아리랑시원설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는 ‘알리오 어원설’이 존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⁸⁾

네 번째는 정선아리랑의 일정한 영향을 받은 가사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리랑의 권역에서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선아리랑 대표가사와 같이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저산 밑에 검은 구름이 다 모여드네”라고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 주게/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고 하였다. 또한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라 뒤돌아보았네”라고 했듯이 이들 노랫말도 정선아리랑에 자주 등장한다. 산천은 정선이나 설악권 산천이 노래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같은 개념화로 차용한 것이다.²⁹⁾

다섯째,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가운데, 설악권 아리랑, 동해안 유역권 아리랑에 해당한다.³⁰⁾ 특히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리고 있으며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북 강원과의 관계도 주목된다.³¹⁾ 속초아리랑은 넓은 범주에서 슬프고 애타는듯한 느낌을 주는 음조인 계면조(界面調)로 불리는 강원도 민요권역에 속하며³²⁾ 동시에 속초아리랑은 시김새가 강조되는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

27) 박춘명,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 정서」, 『조선문학』12집, 2001, 71쪽 “여러 가지 아리랑의 발생설을 종합하여 보면 불우한 사회적 처지, 서글픈 생활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생활체험과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가상적인 고개이다”

28) 김연갑, 「아리랑시원설 연구」, 명상, 2006, 16쪽

29) 『旌善의 鄕史』, 정선군, 1981, 82쪽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 봤나/임자당신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지”

30) 강원지역 아리랑권역 중에서 동해안 유역 권은 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양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총 937수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아리랑 전체 3,516수에서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속초지역은 51수로 비교적 적다.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5쪽 참조

31)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119쪽

32) 박춘식, 「강원도 민요의 조식과 음조적 특성」,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09, 78쪽 “강원도 민요는 그 대부분이 ‘라’계면조와 ‘미’계면조에 기초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 민요들에 비하여 전반적 음악형상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처량한 정서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강원민요에는 장식적 굴림음조를 많이 쓰고 있다.”

다.³³⁾ 아리랑과 메나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된 중요한 전통 민요로 평가받을 수 있다.

IV. 맺음말

속초는 필자가 태어난 곳이다. 부친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피난민이었다. 이른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디아스포라의 행적을 통해서 속초가 피난민의 고향이 되었다.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실항민으로서 남북이산가족만남이라는 어찌다가 이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자족해야 한다. 실항민들에게 속초의 삶은 곧 아리랑고개와 같은 간난신고의 현재상이었다. 속초아리랑이 ‘아바이 마을’이라는 국내 최대의 난민촌인 청호동을 왕래하는 깃배처럼 희망으로 불렀으면 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아리랑이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 자료는 강원 동해안 권역에 속하는 아라리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에 의해 수집 정리된 가사는 60여수에 해당한다.

본고는 61수를 대상으로 속초아리랑의 전승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속초에 전승되는 아리랑은 향토 지리적 특성을 띤 것과 자연과 생활, 애정과 정한 등의 서정성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는데 강원도아리랑의 영향이 나타난다. 근래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가 결성되고 다양한 아리랑의 전승 작업과 공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속초아리랑’이 한국아리랑의 큰 범주에서 또 동해안아리랑의 특징으로 존재

33)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또는 음길이 [時價]가 짧은 잔가락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선율선(旋律線)이나 절주(節奏: 리듬)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기능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식음(飾音)새, 또는 시금새로도 부른다.

함을 확인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속초농업노동요인 도문메 나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수회관이 건립되는 등 활발한 전수를 펼치고 있는바, 속초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 등을 배경한 '설악권 아리랑'이 밝혀졌다. 또한 1930~40년대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멀리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부터 속초·고성·양양 등 이른바 설악권에서 아리랑이 실존했음은 확인된다.

우리나라 아리랑권역 가운데 이른바 영월·평창·정선의 아리랑을 '영평정아리랑'이라고 획정했듯이, 이른바 '설악권아리랑'의 실체를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동해안아리랑'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실상이 부합한 '설악권아리랑'이라는 이름은 한국아리랑의 새로운 권역설정이라고 하겠다. 속초아리랑의 향토적 지명이나 토착적 생활상을 바탕으로 전승소리의 가창활동을 지속화하고 새로운 노랫말의 발굴을 통해서 설악권아리랑이 지역민의 사랑받는 향토민요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설악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함께 설악인의 인문자원인 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金素雲, 『諺文口傳民謠集』, 東京第一書房, 1933
-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7
- 方鍾鉉·金思燁·崔常壽,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 김연갑, 「아리랑의 역사적 고찰」, 도서출판 아실사, 1981
-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정선의 향사』, 정선군, 1981
- 서영화·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룡녕인민출판사, 1982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 張正龍,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 集文堂, 1988
- 박민일, 『한국아리랑 문학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박민일, 『강원도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6
- KBS춘천총국, 강원도의 전래소리 -다큐멘터리 3부작, 1998
-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2001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속초문화원, 2001
- 진용선, 『중국조선족의 아리랑』, 수문출판사, 2001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박민일, 『아리랑정신사』, 강원대출판부, 2002
-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 유명희, 「아리랑연구」, 한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 장정룡·이한길, 『평창아리랑가사 집』, 평창군, 2005
- 김연갑, 『아리랑 시원설 연구』, 도서출판 명상, 2006
- 장정룡외, 『재중강원인생활사조사연구-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도서출판 화남, 2007
-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 장정룡, 『중국 고성촌 이주사 연구』, 고성군, 2013
-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2015년 종합업무계획』, 강원도, 2015



설악산 설경 사진제공·속초시청

“설악산은 은자의 산이다.”
홍태유(洪泰猷), 『유설악기(遊雪岳記)』

3.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1. 머리말

‘심메마니’는 산삼채취자, 채삼자(採蔘者)를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 이들 심메마니가 잔존(殘存)하고 있는 곳이므로 본고는 산악 기층문화의 탐색이라는 과제 하에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그동안 강원도 심메마니에 대한 습속, 언어, 설화 등의 연구가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상태로 진행되어 밀도 있는 연구 성과가 요망되어 왔다. 차체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강원채삼인들의 실태와 습속, 은어 등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분석 정리하려는 의도의 일단(一端)으로 설악산 지역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다.

산삼(山蔘)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야생인삼(野生人蔘)으로서 영초(靈草)니, 신약(神藥)이니 하여 흔치 않는 약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대량재배 되고 있음에 반해, 산삼은 그 양에 있어서 극히 적고 귀하여 이에 따른 신앙, 금기, 은어 등이 심메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채삼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들이 지닌 민간습속과 구비전승물(口碑傳承物)도 소멸될 시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간문화의 체계화 작업이라는 시급한 일거리를 우선하여 조사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심메마니에 대한 종전의 연구는 그들이 사용한 언어연구에서 선편(先鞭)을 잡았던바 최근 들어 민속학적 접근을 통해 업적을 이루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채삼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음은 언어나 습속의 어느 일방만을 전문연구자가 각자의 시각에서만 분석할 때 그것은 충실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두 방면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고 역시 안고 있으므로 언어학적 연구자를 위한 자료제시의 충실함에 만족하고자 한다.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957년에 이승녕(李崇寧)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은어(隱語)가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며 1980년에 재론하면서 소멸일로에 있는 은어연구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¹⁾ 다음은 1975년 이길록(李吉鹿)에 의해서 설악산과 오대산 채삼인 은어(隱語)와 습속(習俗)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은어가 중심되었다.²⁾ 거의 비슷한 시기에 최승현(崔承海)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대산(五台山) 중심이 심메마니 습속 연구는 이 방면의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갈증해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³⁾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계속된 은어연구는 1980년 신교균(申教均)에 의해 다시 논해졌으나⁴⁾ 조사대상자나 조사개관이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필자는 1981년 한국

1) 李崇寧, 『隱語考 - 雪岳山人採取人의 隱語를 中心으로 하여-』, 『一石 李熙昇先生 頌壽記念論叢』, 1957.

李崇寧,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 李吉鹿, 『採蓼人의 隱語와 習俗 - 설악산, 오대산을 中心으로-』, 『江原語文』 제3집(강원대국어학회, 1975).

3) 崔承海, 『江原道地方 採蓼人習俗』, 『韓國民俗學』 제8집(민속학회, 1975).

4) 申教均, 『山蓼採取人의 隱語研究』, 『國語國文學』 제9집, 서울대 사범대 국문학연구회, 1980.

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 공동조사위원으로 설악산 심메마니의 1차 조사에 착수한 후 강원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다시 심메마니 연구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10년 간의 조사결과가 오늘이 본 보고서에서 1차로 발표되는 내용이며 계속하여 다른 지역 것을 연계하여 논할 예정이다.

본고는 선학들의 탁견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나름의 의의를 추구하고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설악산지역 3차에 걸친 필자의 조사연구 시기와 장소, 제보자, 개관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사〉

- 시 기 : 1981년 4월 17일
-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상북 2리
- 제보자 : 전달재 (남, 당시 72세)
- 시 기 : 1981년 4월 18일
- 장 소 :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제보자 : 유만석 (남, 당시 50세)

〈제2차 조사〉

- 시 기 : 1990년 11월 2일
- 장 소 :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반장택
- 제보자 : 문광록 (남, 당시 64세)

〈제3차 조사〉

- 시 기 : 1991년 5월 4일
- 장 소 :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 제보자 : 문광록 (남, 당시 65세)

〈조사개관〉

제 1차 조사의 제보자들은 현재 타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당시 김선풍 교수와 함께 한국구비문학대계, 속초, 양양편 집필을 위한 공동조사위원으로 이들을 만났다.⁵⁾ 전달재씨는 당시에도 고령이었으나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심메마니로서 산삼채취를 나서는 부업 채삼인이었다. 유만석씨는 3년 전 설악산계곡에서 폭우로 갇힌 학생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지쳐서 목숨을 버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인물이다. 설악산 귀면암에는 그의 공적을 기린 비문에 새겨져 있다. 당시에 유만석 제보자는 필자의 유년 시절 같은 동리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반갑게 여러 산악지명 설화를 들려주었으며 산삼에 대한 내용도 구연하였다. 필자는 양폭산장 입구에서 움막을 짓고 살며 관광객을 안내하고 당귀차를 끓여서, 지친 등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를 찾아서 설악동 여관에서 밤을 새워 조사한 바 있다. 그는 전문 산악인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으며, 혼자 살았는데 자신은 설악과 결혼했으며 설악을 지키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축지법을 쓰며 산삼을 찾아낸다는 불가사의한 인물이기도 했다.

제 2차, 3차 조사는 『속초시지』 집필위원으로 민속부분 연구를 위해 도문동 일대를 탐색하던 중 문광록 제보자를 만나게 되어 조사한 것이다. 2차에는 민현식 교수와 함께 반장 댁에서 녹음하였으며, 3차에는 본교 국문과 3년생인 민속반의 박선미, 박정수, 박영선, 이교우, 홍서경과 함께 속초 무속을 조사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집중 조사하였다. 문광록 제보자는 전문채삼인은 아니었으나 약 20년 정도 산삼을 찾으러 다녔으며 비교적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과 은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이제는 소위 변 “변을 쓴다.”고 하는 은어사용의 심메마니는 자신이 마지막 일 것으로 보고 있어 중요한 제보자로 평가된다.

5)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2-4 속초시 양양군(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6~120쪽.

본고는 이상의 외설악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며 또 다른 제보자를 찾게 된다면 여기에 더 보완하기로 하겠다.

II.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

강원도의 채삼인들은 설악산뿐만 아니라 오대산, 인제, 홍천, 정선, 평창 태백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관계로 습속이 상호 전파되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한 측면이 있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산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찾아 나서게 되므로 사실상 지역별로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들의 거주역사, 그들의 성장과정, 채삼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별로 보면 함경·평안도 지역, 설악·오대산 지역, 소백산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세 지역은 은어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입산습속

심메마니가 입산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를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입산시기 결정, 금기, 휴대품 등으로 정착 채삼시 보다 복잡하다. 그것은 일단 입산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 시련과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행(言行)의 금기(禁忌)뿐만 아니라 부정(不淨)을 꺼리고 택일(擇日)을 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와 실제로 채삼시(採蔘時) 필요한 도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되며, 신에게 바쳐질 공물(供物)이 준비된다. 설악산 지역의 사례를 문광록 심메마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채삼단 편성

채삼단의 편성은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드물고 3·5·7 내지 10여명의 홀수로 한다. 이는 기수(奇數)를 선호한 관념으로 보이는데 여성의 참가는 허락지 않는다. 문광록 제보자와 함께 편성된 설악산 심메마니 편성은 지금 고인이 된 전학원, 윤택림, 안임실, 박소권씨가 있었으며, 최명도, 전상섭, 정복덕씨는 생존하고 있다. 고인된 이들과 10여 차례 산행을 하였다는 데 문마니의 경우는 보통 3~명이 한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의 통솔자를 ‘어이마니’라고 하는데 연령도 많고 다년간 입산한 경험과 많은 채삼경력, 능숙함이 ‘어이마니’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동반한 심메마니들은 이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데 지시나 통제를 거역하면 하산시키게 된다. ‘어이마니’ 다음에는 ‘둘째마니’라고도 부르고 다음은 대계 성(姓)에 ‘마니’를 붙여 ‘박(朴)마니’, ‘김(金)마니’라고 한다. 나이 어리고 처음 따라나선 사람은 ‘천둥마니’라 부르는데 철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천둥(天童)이라는 뜻이라 한다.

대체로 채삼단 편성은 ‘어이마니’의 주관에 따르는데 그가 통지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산에 오르게 된다. 젊은 채삼인들 경우는 먼저 ‘어이마니’에게 찾아와서 언제쯤 산을 재러 가는지를 묻게 된다. 그렇게 하여 시기, 날씨, 부정(不淨)관계, 몽사(꿈),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편성케 된다. 혹 상가(喪家)에 다녀온 자나 부정한 것을 겪거나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함께 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산에 갔을 경우 금기를 어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라 한다.

나. 입산시기와 종사자

입산하는 시기는 대체로 처서(處暑)(음력 7월 25일) 지나고부터 날을 잡는데 이때쯤 되어야 앞에 있던 자양분이 뿌리로 내려와서 단단해진다고 한

다. 산삼 잎은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다른 잎보다 먼저 노랗게 변하므로 다른 풀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처서부터 본격 시작된 채삼은 한로(寒露) 지나 입동 무렵이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약 2달여 동안에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다. 첫서리가 내리는 한로가 지나면 기온이 떨어져 산삼의 약효가 떨어지므로 ‘한로는 산삼 환갑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봄철에 입산하는 경우는 소만(小滿-음력 4월 19일)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캐는 것을 ‘춘채’라고 한다.

산삼채취를 시기별로 나눈 것에 의하면 1년을 3기로 분류하여 봄은 묘절(苗節), 여름은 단절(丹節), 가을은 황절(黃節)이라고 했는데⁶⁾ 요즘은 농사일의 바쁜 시기를 피해 가을 황절(黃節)에 다니게 된다. 황절(黃節)은 잎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가 식별이 용이하고 약효가 우수하므로 입산시기를 택하게 되는 때이다.

입산 시기는 택일을 하거나, 맑고 쾌청한 일기가 지속될 때, 손이 없는 날, 길일(吉日)을 천기대요를 보고 고르기도 하는데 택일(寅田)이나, 백호대살일(白虎大殺日)은 꼭 피하는데 호환을 막고자 하는 뜻이라 한다. 택일이 되면 금하는 일이 많은데 어이마니집은 금줄을 치기도 하며 대문을 굳게 닫아 외간인(外間人)의 출입을 통제한다. 채삼인들은 약 일주일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를 하게 된다. 부부관계를 피하고 나돌아 다니지도 않는다. 상가(喪家)는 물론 결혼식, 백일집, 돌집에도 가지 않는다. 보신탕은 물론 닭고기나 삶은 계란도 먹지 않을 만큼 입산시기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금기와 신경을 써서 준비에 철저히 대비한다.

산삼을 꽃 중의 꽃, 풀 중의 제왕(帝王)이라고 문마니는 말을 했는데, 키가 크고 빨간 열매가 선명하며 잎이 정확하게 우산살처럼 들러붙어 있어서 다른 잡풀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대산의 어이마니였던 고 최돈호씨는 100m정도 떨어진 삼꽃을 쭈그리

6) 김춘병, 『山人蔘採風習』, 『靑丘學報』제6호, 1931.

고 앉아서 찾아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가을철은 다른 풀과 구분이 되고 찾기 쉬워 ‘불림삼’이라고 부른다. 입동이후는 낙엽이 지므로 관별이 어려워며 눈이 오면 산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치게 된다.

‘어어마니’는 ‘어인마니’라고도 하며 ‘선채마니’라고도 부른다. ‘선채마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산삼을 먼저 캐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산삼을 일행 중 5명이든 10명이든 발견하게 되면 모두 산삼주변이 ‘안침이’를 하고 주저앉는다. ‘어어마니’가 숙련된 솜씨로 먼저 캐는데 이때 돌군(켄다는 뜻) 산삼은 처음 발견자의 소득이 된다. 최초의 산삼발견자가 모두 캐고 나면 “나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라는 말이 떨어져야 같이 동행한 채삼인들이 주위에서 나머지 산삼을 캐게 된다. 이러한 불문율(不問律)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산을 해야 하며 다시는 채삼단체에 편성될 수 없기에 엄격히 지켜진다. 그것은 산삼이 고가(高價)로 금전에 눈이 어두우면 서로 다투어 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제대로 산삼을 켈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분쟁은 산삼을 접지한 산신령에게 크게 불경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욕심을 냈던 오대산의 한 심메마니는 지금 불구의 몸으로 지내고 있음을 다른 제보자의 말을 통하여 필자가 확인한 바 있다.

채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장 우두머리가 ‘어어마니’이고 ‘둘째마니’, ‘셋째마니’라고도 부르며 ‘어어마니’ 외에는 성만 붙여 ‘박마니’등으로 부른다. 강계 지방에서처럼 ‘정재’라는 취사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취사하며, 나이가 가장 어린 초보자를 ‘천둥마니’라고 부른다. 대체로 굶은일이나 심부름은 으레 ‘천둥마니’의 차지가 된다.

강계지방의 ‘삼피군’은 일삼피군, 동삼피군, 만삼피군으로 세 분류 하는데⁷⁾ 입산시기에 따라 처서부터 입산하는 자, 추분, 춘분이후로 구분하기도 했다.

설악산의 경우는 산이 험하므로 평지는 젊은이들이 앞서 가게 되나 깊

7) 손진태, 『江界採蔘者の習俗』, 『朝鮮民俗』 제2호, 1934, 14쪽.

은 계곡에서는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산삼밭으로 이끌게 된다. 오대산은 고령자가 뒤에 서는데 풀잎의 이슬을 연소자가 털어 주는 노인존경의 윤리관과 시력이 좋은 연소자가 부정물(不淨物)을 빨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⁸⁾

다. 휴대품

심메마니들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산중에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3일 정도 지내게 되므로 휴대 품목은 여러 가지가 된다. 설악산의 경우 산에 있다가 나오는 날을 짝수로는 하지 않고 홀수로 하는데, 문광록씨는 13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번 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한 탕’ 또는 ‘한 삼’이라고 부른다. 13일 동안에 사용된 양식은 백미 한 말 두 되를 지고 갔는데 밥이 주식이고 다른 찬거리가 없으므로 쌀을 많이 가져간다.

이들이 등에 지고 가는 ‘주루떡’에는 각자가 산제당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쓸 주과포와 된장, 고추장, 파, 마늘, 소금 등이 있으며 소저와 새옹, 바가지, 낫, 장갑, 성냥, 옷, 포대기, 술 한 병, 소지종이, 양초 등도 들었다. 제물로 쓸 때는 삼색실과를 필히 가져가나 대추는 빠지지 않도록 유념한다. 새옹은 놋쇠로 만든 뚜껑 달린 그릇인데 취사시에도 쓰지만 산신제를 지낼 때는 이곳에 반드시 메를 지어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바친다. 이것을 ‘새옹메’라 부른다.

휴대품에는 비린 것을 일체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생선류는 쉽게 변하고 산신령이 싫어한다고 믿는다. 이밖에 ‘마대’라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서로가 신호를 할 때 나무를 쳐서 소리를 낸다. 대체로 모자를 신고 신발은 등산화를 신는다.

8) 崔承洵, 『江原道地方 採蔘人 習俗』, 『韓國民俗學』 제8호, 1975.

문마니의 경우 자신은 휴대품을 가능한 줄였고 대신 제물로 쓸 것을 따로 담아서 정성껏 챙겼으며,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 할 때도 직접 값을 깎지 않고 다만 “정성드릴 것이니 성한 것을 달라”고 간단히 말을 한다. 값은 부르는 대로 지불하되 가능한 큰 것이나 흠집 없는 것을 고른다. 일단 산신에게 산삼을 점지 받아야 한다는 일념(一念)으로 잠을 자도 몽사(夢事)를 얻고자 하여, 먹는 것도 특별히 드러나기 않게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른다. 휴대품 중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대추라고 하며 향불을 피우지 않고 성냥불은 절대 나누어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설악산은 여신신령님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몸이 부정한 것을 가장 꺼린다고 한다.

2. 채취습득

가. 출발

어이마니로부터 출발날짜를 통지받으면 그날 아침 일찍이 몸을 씻고 별다른 말없이 챙겨가지고 휴대품을 지고 모임 장소로 나간다. 대체로 말을 입구에서 보이는데 혹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출발한다. 그것은 혹 부정 때문에 못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눈에 띄이면 번거롭고 좋지 않은 일에 봉착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가는 도중 여성이 앞길을 가로질러 건너게 되면 불길하게 여긴다. 떠나기 전에 마을의 서낭당 나무에 간단하게 절만하고 입산을 고한다. 오대산의 박동마니와 같은 방식이다.⁹⁾

출발할 때 타지역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못 본 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설악산의 문마니는 간단히 몇 마디 주고받는다. 다른 집 부인과는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입산한 심메마니의 가정에서도 출발

9) 拙稿, 「오대산 심메마니의 山神祭」, 『月刊 太白』, 1990.9), 141쪽.

한 날부터 험한 것, 부정한 일을 꺼리고 근신을 하며, 부인이 오히려 출발 전에 풍사를 얻어서 이번에도 산삼을 캐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먼저 알게 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 집단생활

산에 들어가면 ‘모듬’이라 하여 집단생활을 한다. ‘모듬’은 산막(山幕)의 심메마니의 은어로 이곳에서 기거(起居)하게 된다. 요즘에는 천막을 이용하나 종전에는 바위 밑을 이용하거나 나뭇가지를 잘라서 간단하게 기둥을 세우고 앞으로 지붕을 세웠다. 모듬의 종류에는 공동모듬과 개별모듬이 있는데 개별모듬이 많았다고 한다. 큰 바위 밑에서 모듬을 이룰 때는 공동으로 사용하나 나무 움막은 개인용으로 주로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서 있는 나무의 거리가 약 1m정도 되는 두 나무 사이에 가지를 쳐서 기둥을 만들고 가지를 치고 남은 가지 밑 등에 길이 2m정도의 나무를 횡막대로 걸친다. 이 횡막대에 2m~3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나무를 걸친다. 전면은 트이고 후면은 막히도록 경사지게 걸치는데 앞이 보여야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뒷면은 방어가 곤란하므로 막는다. 또한 지붕은 단풍나무나 갈참나무잎으로 겹쳐 엮어 이슬이 내려옴을 막는다. 지붕을 만들고 나면 좌우 나무로 막는데 잎이 붙은 쪽이 위로 가게 세우고 바닥은 부드러운 풀을 뜯어서 깬다.

취사는 모듬 앞에 넓고 큰 돌을 몇 개 놓고 하는데 불을 각자 피워서 지장쌀이라는 것으로 메를 짓는다. 지은 메는 모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먹기 전에 새옹메로 지은 메를 ‘노구메 정성’이라하며 산신께 올린 다음 먹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들은 입산하여 모듬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빈 절’이라 하여 재물을 놓지 않고 정화수만으로 ‘모듬제’를 지내게 된다. 대체로 산에 오르면 산삼을 캐고 난 옛자리인 ‘구광자리’가 있게 되는데 그곳은 돌을 쌓아 놓았거나 너와 같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므로 간단히 수리

하여 산제당을 만든다.

이 제당에서 입산하여 모듬을 이룩하기 전에 산신에게 그곳의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을테니 놀라지 말고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절을 한다. 이 ‘빈절’은 산에 들어왔다는 뜻을 포함한 수인사로서 세 번 반절을 하고 곧이어 모듬을 만들게 된다.

모듬에서의 생활 역시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른다. 각자가 따로 취사하고 잠을 자게 되어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말을 삼가는 신언주의(慎言主義)가 원칙이다. 모듬은 아침이 나갔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곳이므로 답산(踏山)하는 곳의 중간 정도 산의 중심부에 설치하며 계곡물이 흐리는 남향을 고른다. 짓는 것을 이곳의 심메마니들은 “이룩한다”고 하는데 모듬을 이룩할 때에도 별다른 말을 쓰지 않는데 낮(감괘이)은 각자의 것을 이용하며 서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서로의 말대신 지팡이(마대)로 나무를 ‘딱딱’쳐서 신호를 한다.

이들의 말은 “변을 쓴다.”고 하는데 문광록씨의 경우 초동마니 시절 뱀을 보고서 놀라 “뱀 보라”고 외쳤다가 어이마니의 명령대로 다음날 아침에 산에서 쫓겨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말에 대한 금기가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어(隱語) 사용은 입산할 때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채삼단의 일원으로 편성되면 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다. 초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나 차츰 익숙해지고 변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한다. 간혹 마을에서 심메마니들끼리 모이면 농담(弄談)삼아 변을 쓰기도 하나 일단 입산하여 채삼할 경우가 아니면 사용치 않는다.

모듬의 앞에는 모닥불을 피워 한기를 가시게 하고 동물의 피해를 막으며 조명작용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동불”이라 한다. ‘우동불’은 공동의 불인데 각자가 취사시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부집계로 붙여서 쓴다. 각자의 담뱃불이나 취사불, 성냥 같은 것은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자고도 하지 않는 규율이 있다. 이곳에서는 불을 ‘딸’이라고 하는데 산삼이 씨 역시 ‘딸’이라 부르므로 혹 불을 빌려주는 것은 산삼을 타인에게 내주는 경이

되어서 기피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듬에서는 꿈(夢事)을 얻기 위해 대낮에도 잠을 청하는 일이 있는데 길·흉몽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발설하지 않는다. 어이마니가 “아무게 마니 몽사를 말해 보시오”해야 비로소 발설케 되는데 해몽 역시 전적으로 어이마니의 의견에 따른다. 해몽에 따라서 하산(下山)할 것인지, 산을 썰 것인지, 전산(轉山)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몽사의 경우는 흉악한 것이 오히려 좋은 꿈 즉 ‘달몽’이라고 한다. 예조(豫兆)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다. 산신제와 고사

산에 올라가는 심메마니는 처음 산삼을 찾게 되는 ‘생자리’보다는 예전에 심을 캐었던 ‘구광자리’를 찾는데 구광자리에서 주위를 정돈하고 모듬을 설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산에 오르는 심메마니들은 으레 기도를 드리는 산제당이 바위 밑에 설치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한지를 깔고 촛불을 켜고 정성을 드리게 된다. 산제사는 향을 쓰지 않으나 3색의 과실과 술잔을 올린다.

제당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되면 각자가 지고 온 제물을 따로 따로 제당 앞에 놓고 심메마니 전원이 어이마니가 혼자서 고사(告辭)를 한다. 고사문은 따로 적어 오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구송(口誦)한다. 구송이 끝나면 각자가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소지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한다.

제물로는 새옹메, 주과포, 삼색실과, 정화수, 대추, 소주, 잔 등을 올리며 ‘올림대’라 하여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은 나무 가지를 잘라 다듬어서 놓는다. 술잔을 올리며 절을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특별히 정해 놓은 횃수가 없이 자주 하게 되는데, 제물보다는 마음에서 감명이 되어야 산신령이 점지해 준다고 믿는다. 심메마니들은 산삼이 오로지 산신령의 점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물로 생각하는데 설악산 산신령은 여신이므로

로 특히 부정을 꺼린다고 한다.

산신제는 모듬을 만들 때 행하는 빈절 제사와 일단 이것이 끝나면 다시 산제당에 가서 제물을 갖추어 3배반을 정성껏 절하고 빈다. 오대산의 경우는 향불을 피우고 여기에 수저를 쪼이고 나서 4배를 하는 것이 설악산과 다르다. 또한 산삼을 캐고 나서는 하산하여 삼색천과 소머리를 갖추어 다시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처음 절을 일동이 하고 나면 어이마니가 고축을 엮드려서 한다. 이때 같이 간 심매마니들은 엮드려서 기원하거나 절을 계속하기도 한다. 조사된 고사문은 다음과 같다.

〈입산초 산신제 고사문(告辭文)〉

해동 조선국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상도문리 박모 김모 문모 최모 몇 사람 심마니가 여기 왔는데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설악산 산신님, 태백산 신령님……열두 대왕님, 제물을 변변히 못 차리고 이렇게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소례를 대례로 받고 온갖 부정을 시은 뜻이 있으시 구 재수 소망 이루게 해주십시오.¹⁰⁾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외양명산 산왕대신, 명단토산 산왕대신, 금기대득 산왕대신, 현모주작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사하피발 산왕대신, 금기대덕 산왕대신, 원상길상 산왕대신…….

유세차 ○년 ○월 ○일에 ○마니들이 이 산천에 입산하여 산신령전에 정성발원 올리오니 내로 희망하옵시고 빛으로 감흥하옵소서. 이 마니들이 입산할 때 부정하고 영정한 일이 많 습니다. 부정하고 영정한 일은 수화로 소멸하옵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일은 풀어 해괄하시고 소례(小禮)로 드린 정성 대례(大禮)로 희망하옵시고, 대례(大禮)로 드린 정성 반가이 희망하옵소서. 산신령전에 축원하올 일은 산삼을 캐러 왔으니 이 마니들을 어엿비 생각하고 기뻐이 생각하셔서, 산에 산삼을 캐러 나갈 적에 산신님께서 마니들을 직성을 높여 주고 의

10) 필자조사, 1991. 5. 4. 문광록(남, 65),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기를 돌우어서 산삼밭에 인도할 적에 마대를 이끌고 아쟁이(脚)를 걸려서, 육구만달 사구 오구 삼구밭에 들억 k서 억수 만금 산삼을 점지하여 주옵시고, 산에 다닐적에 험한산천 고분성(높은 頂上) 배운성(골짜기) 찌기(岩) 틈틈이 다닐 적에 손톱 발톱 다치지 않고, 층층이 상에 오르고 내릴 적에 받들어 올리고, 받들어 내려 몸수 곱게 점지하옵시고 기천만금 산삼을 점지하여 주십소사(설악산).¹¹⁾

이상의 고사문(告辭文)은 구비전승물(口碑傳承物)로서 유교식 축문처럼 따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어이마니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구연된다. 공통의 고축이 끝나면 각자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소원을 간절히 다시 빌고 소지를 올린다. 대부분 내용은 산삼을 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이다.

고축은 2~3분 내로 간략하게 행하나 엄숙함을 최상으로 하고 마치 산신령과 대화하듯이 구연된다. 한 일화로 설악산의 심메마니가 고인이 된 자신의 부친 목소리를 녹음하여 심캐러 갈 때 산제당에 틀어 놓고 자신은 꿇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고축이 끝나고 일어 서려고 했으나 몸이 마비되어 얼마간 꼼짝을 못 한 일도 있었다고 문광록씨는 증언하였다. 산신령은 신식이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불경한 자세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축은 정성 그 자체이며 내용이 유창하거나 번지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라. 채취활동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인 채취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구광자리를 찾거나 때심이 있는 삼밭을 찾는다. ‘구광자리’의 경우는 ‘표적’이라 하여 돌로써 표시를 한 곳이 있는데 ‘삼구’를 캔 곳이면 돌을 세 개, ‘오구’면 다섯 개를 층층이 쌓고, ‘육구’면 돌을 무더기로 쌓아

11) 필자조사, 1981. 4. 17. 전달재(남, 72), 양양군 강현면 상북 2리, 『한국구비문학대계』2-4, 강원편 속초시 양양군 (1), 1983, 118쪽.

올려놓는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기도 하는데 남이 잘 알지 못하도록 표시해 놓는다. 구광자리는 전에 산삼을 캔 곳이므로 얼마 후에 땅 속에 숨어 있던 산삼이 다시 돋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많게 된다.

능숙한 심메마니들은 까마귀가 우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까마귀가 산삼씨를 좋아하므로 까마귀 있는 곳에는 산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길조로 여긴다. 그러나 뱀, 노루, 담비를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데 특히 담비를 보면 가던 길을 되돌아 나온다.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져 산삼을 찾는데 이것을 “쟁다”고 한다. 산을 재는 곳은 정상이 아니고 팔부 능선을 재게 된다. 산을 재면서 마대로 쳐서 신호를 하거나 “목네미하세”라든가 “등네미하세”하면 산언덕을 넘어 다른 위치로 가자는 뜻이고 “전산하세”하면 아예 모듬까지 떠서 옮겨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산에서는 혹 실종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대곰’이라 해서 가지고 간 지팡이 막대로 나무를 두드려 신호를 보낸다. 마대는 산행의 필수품으로 산삼을 차기 위해 풀을 헤치거나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할뿐더러 힘든 길에 보조 역할을 하기에 황상(黃柏)나무나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것으로 만든다.

설악산 심메마니들 경우 마대소리를 한 번 내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 치면 “모이자”, 세 번 치면 “안침(휴식)하자”는 뜻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일정하지는 않으나 심산계곡에서 “딱딱”치는 ‘마대곰’은 서로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암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일행 중 누군가가 산삼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심봤다”고 외치는데 그 주변에서 함께 수색하던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 풀썩 앉는다. 일행이 몇 명이든 이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서로 지호지간(指呼之間)이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산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면 찾아도 무방하다. 최초 발견자는 마대를 발견한 산삼곁에 꿏고서 주위의 나머지 산삼을 찾는데 찾은 것은 표시를 하고 찾을 것이 없으면 그때 “나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 한다. 그러면 “안침”을 하고 있던 일행들도 찾게 되는데 “나도 봤다”고 하면

그것은 후에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을 선 취득권(先取得權)이라 하는데²⁾ 산삼을 캐는 것은 어이마니가 도와준다. 산삼을 캐는 것은 “돋군다”고 하는데 산삼의 윗부분을 잡아 뽑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부터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돋구는 방법은 산삼 주위를 약 1m 정도로 돌려서 나무삽 같은 것으로 대충 파고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 가는데 이때부터 손으로 살살 파낸다. 산삼은 곳곳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으므로 깊게 묻히지 않아 파내기 쉬우며 토양도 반은반양(半陰半陽)의 진흙 자갈 돌이 섞인 북향의 폭신한 땅이 대부분이다. 산삼에는 쇠붙이가 닿게 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여 괭이나 낫, 칼 같은 것은 일체 쓰지 않는다. 이때 물론 말은 하지 않으며 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호호 불며 캐게 된다. 뿌리 하나라도 절단되면 산삼의 등급에 큰 차이가 나므로 능숙한 어이마니의 도움을 청한다. 어이마니를 ‘선채(先採)마니’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 돋군 산삼은 피나무나 잣나무를 30cm 정도 상하로 잘라서 ‘바위웃’이라는 돌이끼로 싸고 파낸 흙과 함께 칩 줄이나 넝쿨 같은 것으로 동여매어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야 한 뿌리도 상하지 않게 되며 그대로 집에 와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햇썩이 나와 좋지 않다고 한다.

산삼을 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하산하는데 다음날 아침 산삼 캔 사람은 소머리나 돼지머리, 삼색실과, 흰 시루떡을 준비하여 처음 산재를 지냈던 제당에 가는데 특별히 빨·파·노 삼색 천을 한 마디씩 끊어 종이대신 제당에 걸어 놓고 감사의 제를 올린다.

설악산의 경우 산삼을 캔 사람이 팔아도 금액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후에 일행들에게 사례를 한다. 산삼을 캐서 만든 돈은 땅이나 부동산을

12) 李崇寧, 『隱語考』, 『一石 李熙承先生 頌壽記念 論叢』, 1957, 25쪽.

사야 오래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산삼을 캐려면 큰 횡재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산삼은 그저 굵어죽지 않을 정도의 재복만을 준다고 한다.

설악산의 문광록씨의 경우는 20년 동안 삼구 하나, 네피, 오행 정도의 재산한 것 밖에 돈구지 못했는데, 산삼은 주로 저항령 좌측계곡, 화채봉 계곡, 북고골에서 많이 나며 비선대 위의 마등령 좌측심골, 휘문각 올라가는 찰떡고갱이, 죽음의 계곡 등에서 난다고 한다. 마등령의 심골은 그곳에서 산삼을 캐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3. 금기와 예조

심메마니의 경우 금기(禁忌)가 철저하다. 금하고 꺼리는 것은 산신신앙(山神信仰)에서 기인하는데, 산삼은 그 산의 주인격인 산신의 소유물이므로 산신이 싫어하는 바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작용이다. 산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산삼은 사람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부정(不淨)을 꺼리는 것은 일반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비린 것을 금하고 있다. 목욕재계는 물론이며 마당너구리(개)나 마당땡(닭) 고기도 먹는 것을 금한다. 초상집 출입, 해산한 집에는 친척이라도 가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피한다. 혹 경도가 있는 여자가 지은 밥을 먹어도 부정이 끼며 가는 길을 여성이 가로 질러 가면 되 돌아오고, 담비를 보아도 가지 않는다. 이외에도 뱀을 보면 재수가 없고, 뱀을 길을 건너질러 가면 다를 곳으로 옮긴다. 밤에 호랑이 울음소리나 불빛 같은 것이 보이면 일행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산신은 꿈으로 예시된다고 하는데 설악산 산신님은 여성이므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무밭에 있는 무를 뽑아가라고 지시 하던가 여자와 동침하는 꿈도 좋고 초상난 것을 꿈에 보아도 좋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조(豫兆)의 경우 그 판단은 어이마니에게 일임하므로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도 좋은 꿈으로 해몽되기도 한다. 산삼과 얽힌 지명유래로 설악산 휘문각 계

곡의 무네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산삼을 캐러 간 심메마니가 꿈에 자신의 망태기로 개를 흘려서 거의 죽게 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개가 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고 간 망태기속에 개가 목만 내놓고 있으므로 해몽하기를 “이 목(언덕)만 넘으면 산삼이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 무네미를 넘어서 봉정암을 가다가 심자리가 나왔으므로 후에 무네미를 목네미로 바꿔 부른다고 한다.

4. 설화

설악산 심메마니 설화 두 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설화는 ‘항아리 심’이라는 내용으로 산삼의 종류를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산삼의 약통 모양이 항아리처럼 생긴 것으로 꿈과 채삼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데 심메마니들의 희망이 담긴 화소(話素)이기도 하다. 둘째 설화는 ‘과계승과 산삼’이라는 주제로 집약 될 수 있는데 개과천선한 과계승이 산삼을 캐서 사찰을 세운 이야기다.

〈설화 하나, 항아리 심〉

옛날 한 늙은이가 죽게 된 모양 다 죽게 되었으니 산에 가서 풍사를 한번 껴서(꾸어서) 심이나 한 번 얻어 봐야겠다. 심 구경도 못해 본 늙은이야. 아, 그래서 정성을 들여설라무 네 뭐라고 정성을 들이느냐 하면 그저 산신님이 빌 줄도 모르고 이제 달라고 하니 그저 할 말이 없더래,

“산왕대신이 그저 항아리 심을 내 주십사, 항아리 그러나 독심을 내 주소사.”고 며칠을 빌었더니, “너 재물이 뒤에 있으니 올라가 봐라.”

그래 올라갔대. 심이 있어. 심이 있어서 췌어. 캐서 심을 너레반석 있는데 저게 와설라무네 내려 보니 속이 궁굴(비)었던 말이야. 이 놈 내줄려거든 바로 내 주지. 속이 궁굴어서 항아리 심이 썩은 심을 차니 심이 깨졌단 말

야, 바위에 깨졌단 말야. 산신님이 늘그만(늬을 무렵)에 향아리 심을 내 달라고 그랬더니 썩은 심을 내 주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고 부화가 나서 거기에 획 집어 내 던지고 집에 왔단 말야. 와보니 삼 살 사람이 살 사람에게 몽사를 해 갖고 얻어 가지고,

“노인이 간밤에 며칠 전에 향아리심 하나 얻은 게 있잖느냐.”

“하나 심 캐 본 것고 없고, 본 것도 없다.”고 하니, “왜 심을 캐고도 안 썼다고 하느냐.”고 다구치니,

“응, 나 심을 캐긴 썼소. 캐긴 썼는데, 내 부화가 나서 돌맹이에 미때렸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 가 보자.”

그래 심 살 사람하고 거기 떡 가니 심 쪼가리에다 끊어 만큼하게 해서 따깡을 이어 맞춰서,

“여기 구녕을 들여다보시오.”

해서 들여다보니 동자 스이(셋이)있더라. 동자 아이 스이 있더라. 승이 들어 앉았으니 이런 재물을 여기에 미때리고 이래 있느냔 말요. 이래 꼭 싸매 가지고설라무네 내 아무 때 당신 집에 갈 테니 어여 걱정하고 말라고. 하 그래 놓고 심 값도 안 주고 그냥 달아났지.

도둑놈한테 심 값을 놓쳤으니 우쨌나 이리고 있더니 며칠(며칠) 있으니 당나귀에 돈을 자구 실어 보낸단 말야. 아, 그래 왜 그래 돈을 받아 가지고 아주 불신 가난인데 눈 발대기 자꾸 사네. 맨 마지막 바리에 그놈의 돈이 오니 그 사람이 왔더라. 이만하면 노인 잘 먹고 지낼 끼요. 그래 한번 크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얘가지 음, 옛날 얘가지. 큰 향아리 심을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 향아리심은 향아리심인데 향아리 심은 속은 비었는데 아, 그 놈의 향아리를 보내달라고 했으니 속이 폭 썩은 놈을 내어 주니 돌맹이다기 미때려 썼단 말이야. 깨구서 심산다는 사람에게는 몽사가 나 가지구서 아무래도 니 물건이 있으니 가 사가라고 말야 쫓아 와 보니 심을 캐다가 어떻게 됐느냐. 아, 산에다가 지다 내 팽겨치고 왔단 말이야. 좋아 가 보자구 가서 이렇게 보니 돌맹이 심물이 쏟아져 노란게 있단 말야. 그만큼 향아리 심이 빈 향아리 요길 틀어 막구서 요 안을 들여 보란 말이야. 들여다보니

동자 아니 스이가 들어 았었더래. 그거 심이야. 약효란 말이야. 그래 그 심
사간 사람도 크게 되래 심 캔 영감도 크게 났단 얘기가.¹³⁾

〈설화 들, 파계승과 산삼〉

여기 저항령에 올라가면 취봉당 기도터란 데가 있어요. 거기 메를 지금
우리가 그전에 많이 다녔는데 산삼캔다고..., 신흥사에 취봉당이란 스님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 취봉당이렇게 승명이겠지요. 근데 그 양반이 아
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모양이예요. 아주 뭐, 이 너머 갈골이라고 하는데 지
금 노학동, 척산 여기를 옛날 목우재로 걸어 넘어 땡기면서, 중이 부녀자를
막 이저 농락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한 모양이예요. 그래 못되게 하니까 주
지 스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가서 죽든지”하라고.

그래 낙산사를 가니까 낙산사 주지 스님이 그걸 알구서 “이 못된 놈” 이
라고 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올데 갈데 없고 하니까 그 배낭에
쌀을 짊어 지고 인제 저항령을 넘어서 백담사로 간다고 가다가 날은 저물
고 이래니 그만 길을 잃어가지구 헤매고 이러다가 산충턱에 가니까 굴이
있어서 거기서 잔 모양이예요. 거기 보니까 굴이 있고 물이 있구 좋거든요.
그래 “에이 여기서 기도나 드린다”하고 “내 못된 짓 한 거 속죄하고 기도나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 모양이예요. 그래 기도를 착실히 드렸던지 하루 저
녁에는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구,

“너 이놈아 여기서 자빠져 자지만 말구, 서리가 내일 모래 올텐데 저 무
우를 뽑지 않고 어떡할라냐.”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 거든요. 그래 저
앞마당이라고 그래더래요. 고 취봉당 기도드리는데, 바위 바로 옆에 뽕뽕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 나와 보니까 모르는 풀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 파보니까 산삼이더래요. 그래 많이 캔 모양이예요. 그래 거

13) 필자조사, 1987. 4. 17, 양양군 강현면 상북 2리, 전달재(남, 72).

기서 캐놓고 왔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또 와가지구,

“너 이놈의 자식 욕심도 없다. 이 단지무는 내가 가지고 간다. 단지무는 내가 가지구 가니 내일 당장 나가라.”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심켄 위에 아주 진짜 무우 뽑은 자리같은게 쑥 빠진게 있는데, 거기 막상 새끼심이 많더래요. 그래 많이 캐 가지구서는 이래 가지구는 갖다 팔아 가지구는 어느 절에 내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그래서 취봉당 기도터 기도터하는데, 그런데가 저항령 가다보면 있습니다. 단지무는 모양이 단지처럼 크구 그건 옮겨다니답니다. 글 산삼은….¹⁴⁾

II.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

심메마니의 은어(隱語)는 ‘심메마니’란 어휘가 이미 은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만큼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시대추이에 따라 상당수 은어는 사장(死藏)되거나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일찍이 이송녕(李崇寧)은 산삼채취인의 언어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¹⁵⁾ 그 하나는 산맥을 타고서 광역에 분포되었다는 언어지리학적(言語地理學的) 사실(事實)과 또 하나는 신안기원설적(信仰起源說的) 발달(發達)이었다.

심메마니 은어가 결국 산삼채취인이 의식하고 있는 산신(山神)과 산악 숭배의 일편(一端)이며 신앙적 또는 원시종교적 생활에서 발달된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용례를 살피기로 한다.

14) 필자조사, 1991. 5. 4.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문광록(남, 65)

15) 李崇寧, 앞의 글, 21쪽.

1. 산삼 관련 호칭

- (1) 산삼 : 심
- (2) 산삼 채취인 : 심메마니, 심메꾼
- (3) 삼산 밭 : 떼심 밭
- (4) 옛날 산삼자리 : 구광자리
- (5) 새로운 산삼자리 : 생자리
- (6) 산삼종류¹⁶⁾
 - 천종 : 자연적으로 산에서 나서 씨가 떨어져 생긴 것.
 - 지종 : 까막까치들이 인삼 씨를 먹고 산중에 배설하여 생긴 것.
 - 인종 : 사람이 인삼 씨를 산에다 심어서 생긴 것.
 - 산양산삼 : 이미 자란 인삼을 산에다 심은 것.
 - 가삼 : 산삼이 아닌 장뇌, 인삼의 총칭.
 - 가을산삼 : 불림산, 황메.
 - 향아리 삼 : 약통모양이 향아리처럼 생긴 산삼.
 - 동자삼 : 연수를 알 수 없이 오래 된 산삼으로 아이처럼 생긴 것.
- (7) 산삼 각부 호칭
 - 산삼몸체 : 약통
 - 뿌리 : 미
 - 씨 : 딸
 - 원줄기 : 쫓대
 - 꼭지 : 뇌두
- (8) 산삼 년수(年數) 호칭
 - 초연생 : 씨달이 (씨가 붙어 있음)
 - 씨가 없으나 2년생 이상 : 내피

16) 필자조사, 1981. 4. 14.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유만석(남, 50).

- 잎이 하나인 일엽생(一葉生) : 외잎불이, 내피
- 이엽생(二葉生) : 두잎불이
- 삼엽생(三葉生) : 세잎불이
- 사엽생(四葉生) : 네잎불이
- 오엽생(五葉生) : 오행
- 이지팔엽생(二枝八葉生) : 가쿠
- 삼지십오엽생(三枝十五葉生) : 삼구
- 사지이십엽생(四枝二十葉生) : 사구
- 오지(五枝) : 오구
- 오지(五枝)에 씨가 붙은 것 : 오구 만달이
- 육지(六枝) : 육구
- 육지(六枝)에 씨가 붙은 것 : 육구 두루불이

2. 은어 용례

용례에서는 필자조사 A, 이송녕조사 B, 이길록 조사 C, 신교균 조사 D로 표기하여 상호 대조해 보기로 한다.

분류는 12가지인데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륜(人倫), 의복(衣服), 신체(身體), 동물(動物), 음식(飲食), 기구(器具), 초목(草木), 잡명사(雜名詞), 동사(動詞)의 순이다. 이밖에도 문장(文章)으로 표현된 것도 추려서 서술하고자 한다.

가. 천문(天文)

조사자 표준어	A	B	C	D
1. 안개	더퍼리	더랭이	더랭이	더랭이 덤랭이
2. 바람	더퍼리 아재비	건들게	풍이	풍이

3. 비	센다	즐펩이	즐메	즐메 즐멩이
4. 불(火)	꽃, 딸	달	달	딸
5. 태양		노래기		노래기
6. 달(月)		괭과리		
7. 눈(雪)		히기 히드기	히제비	히제비
8. 황덕불	우동불			자래불

나. 지리(地理)

9. 바위	쩍	찌기	찌기	찌기
10. 길(道)		도술깨	도술깨	도술
11. 웅덩이	상탕 허탕	술깨	즐메	
12. 산봉우리			달	고분성
13. 산비탈				배운성
14. 변소	칙간		진갯간	진갯간 진대간
15. 옛심자리	구광자리		구관자	구광자리

다. 인륜(人倫)

28. 손(手)		쥐아미		
29. 눈(眼)		부루치		
30. 피(血)		논다리		
31. 발(足)		설피		논다리
32. 다리(脚)				
32. 다리(脚)				아쟁이

라. 의복(衣服)

24. 상의	걸치미		더구레	구지비
25. 하의			추제비	
26. 발감기	감발			
27. 신발			디대	디디미 드디미

마. 신체(身體)

16. 사람	마니	마니	마니	마니
--------	----	----	----	----

17.우두머리	어이	어니마니 어이님	어인선생 어인마니	어인선생 어인마님
18.중간계급	둘째마니			삼메메마니
19.취사담당자				무름메마니
20.소년채취자	애기만 천동마니	소장마님	소동마니	소동마니 천동마니
21.동행인			원앙내	원앙내
22.여자채취자		개장마니		개장마니
23.김선생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바. 동물(動物)

33.호랑이	말	산개	산개	눈큰마니
34.곰		넙대 넙대기 넙대마니		늑개마니
35.산돼지		쿨쿨이	산재, 산적	쿨쿨마니
36.뱀	진대	진대마니	진짐승 진대마리	
37.까마귀	흑조	흑저구	흑저구	흑저구
38.소(牛)				우거우
39.쥐(鼠)		서산 서산이		
40.다람쥐		둘제미	다리미	다리미
41.개(犬)	마당너구리	마당너구리		마당너구리
42.닭(鷄)	마당꿩			

사. 음식(飲食)

43. 쌀(米)	모래	모래미	모래미	모래미
44. 술(酒)	곡차	흘림		흘리미
45. 밥(食)	고양	무림 무림이	메,우림,무림	무름이
46. 제사밥	노구메	노구메	노구메 무리메	제사무름이
47. 소금		백사		백사
48. 담배	연초	연초	연초	연초
49. 국수			면	면
50.고기			부치	육
51.돼지고기				쿨쿨이육
52.쇠고기				우겨육

53.간장	흑물	지-ㄹ		지령-진수
54.물	숨	흘림 수-ㅁ	숨	숨
55.점심	참			낮무름이
56.꿀				벌앵아리
57.고추장 (된장)				질
58.떡		펼		

아. 기구(器具)

59.산막	모듬	모듬	모디 ㅁ 모듬	모딤
60.도끼		잘메	밤눈이	잘맹이
61.낫	감재비	감재비	잠재비	감잡이
62.바가지		년추리 논추리	너추리	나추리
63.담뱃대	연초			연초대
64.술	새옹	정자	정자	우렁기
65.숟가락	울림대	울림대	울림대	울림대
66.젓가락	울림대	산재 산재까지		
67.깔개	안침			
68.지팡이	마다	마대	미대	마대
69.돈		찢렝이		
70.성냥	당황			진가지
71.불집게	심부름꾼			날집게
72.종이	소지			소지지
73.인가	막			평모듬

자. 초목(草木)

74. 딸나무	부치미	자래	달낭구	딸자래
75. 큰 나무 쓰러진 것		진때	진더리낭구	진더리낭구
76. 나무	들미 고목		자대	자대
77. 낙엽		초산이 낙진잎	허집	초산이
78. 덩불	쌌기			덩팽이
79. 햇불			달	
80. 관솔	광솔			진가지
81. 풀				초산이

차. 잡명사(雜名詞)

82. 꿈	몽사			몽
83. 한번 감	한탕		한삼	
84. 두드림	마대곰		곰	곰
85. 휴식	안치미	안침	안침	안침
86. 소리침	외장			
87. 대변				진대

카. 동사(動詞)

9. 배고프다	출출일세			햇배가 조그라든다
10. 비가 온다.	하늘이 센다.			줄맹이 드리네.
11. 돌아가자	하산 합시다			평모둠으로 내리잡시다.
12. 쉽 시다.	안침일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13. 땀나무	우동나무 쓴다.			자래를하다.
14. 까마귀 운다.	흑조 짓는다.	흑저구가 고향다	흑저구가 고향다	흑저구가 고향다
15. 내려가자	갈때일세			흑저구가 고향다. 모둠으로 내리잡시다.
16. 말하지마라.	'막개로 딱딱때림'			고무말아라.
17. 전나무로 지붕하다.			누외뜯다	누외뜯다.
18. 산삼캐는기간	한 탕 일세		한 삼보러 간다.	한 삼보러 간다.

타. 문장(文章)

88. 담배피다	그실는다	실른다 슬른다	실는다 올린다	실은다
89. 자다	찌그리다	찌그린다	찌그린다	찌그린다
90. 쉬다	안치미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91. 간다	젠다	젠다	젠다	젠다
92. 캐다	돌군다	젠다	돌군다	돌군다
93. 밥먹다	울림대로 먹세	다부린다	다부린다	다부다
94. 앓다	안침하다		주침	주침하다
95. 죽다				구실르다
96. 다른 산에 가다	목네미하다		전산	전산
97. 산삼 캔후 소나 돼지잡음			깁다	우거우 쿨쿨이 정성
98. 행방불명 되다		구식는다 구실렀다		
99. 비가 온다	하늘이 센다		곤는다 고친다	
100. 은어 쓰다	변쓴다	변말쓴다	변쓴다	변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설악산 지역에서 산삼을 채취하는 심메마니의 습속과 은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본고는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겸한 논고이므로 산간기층문화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날로 쇠퇴하고 있는 산악민 풍속의 하나로서 심메마니연구는 새롭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강원도 전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선명한 지역간 대조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논의한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과 은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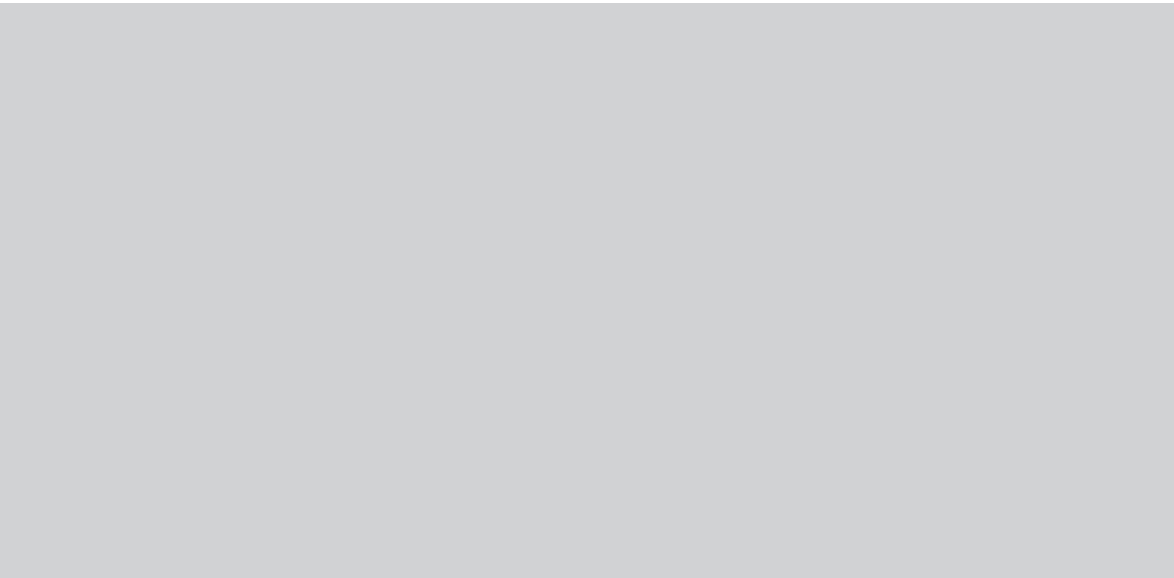
첫째, 설악산은 심메마니의 주 활동무대이며 산삼의 보고(寶庫)였으나 지금은 그 자취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지역 채삼인 습속연구의 마지막 작업일 수 있으며 강원도 전역 심메마니 본격고찰의 시발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은 산악신앙, 산신신앙에 의존하여 토착성이 강하며 오대산 지역과도 부분적 차이가 나고 있다.

셋째, 금기와 예조, 풍사 등에 의존한 채삼풍속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수관념(奇數觀念)과 신언주의(慎言主義)가 강하여 입산부터 하산까지 우두머리의 일관된 지휘체계에 따른다.

다섯째, 은어사용(隱語使用)에 있어 독자성이 엿보이고 불교적(佛敎的) 색채(色彩)가 설화와 은어에 내포되어 있다. 끝으로 언어학적 고찰은 적당한 연구자에게 미룰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심메마니 용어집(用語集)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자료집 출간이 학계공통과제로 제기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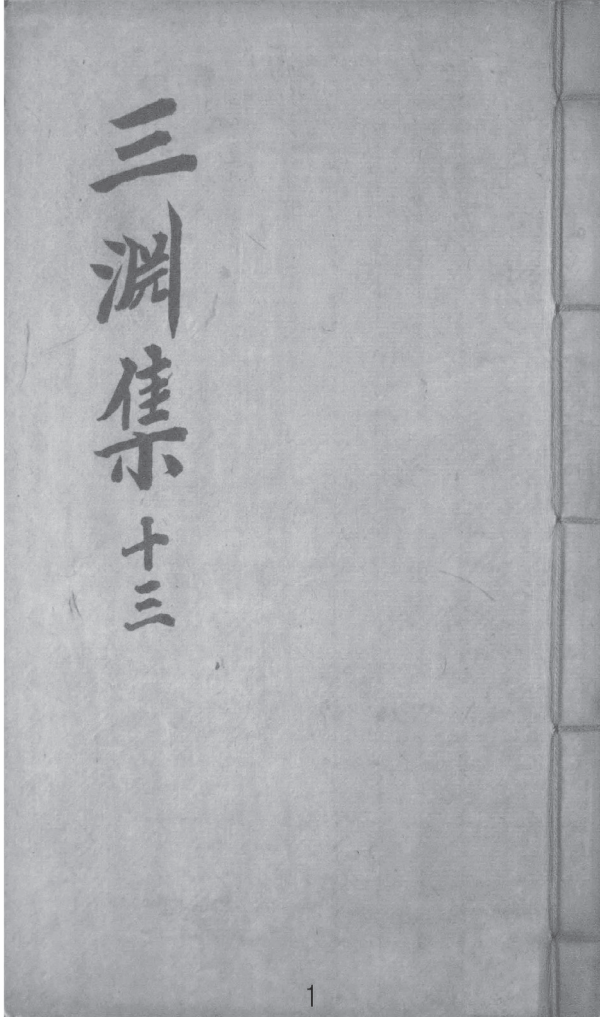


洞洞中元無分明路逕澗左右都是巖石大者磐陀
 穹窿小者縱橫窳利往往無着足處入洞絕少登輿
 便衣草鞋跳溪澗峻稍過危處輒拭汗定喘連以生
 葛粉糜食調澗沃喉乍到水簾洞僧言自玄龜至
 此為四十里自西歲菴前山路處至此亦可二十里
 量其遠未必至是而崎嶇不可殫記所謂頭陀鶴
 入山後水石峯之奇不可殫記所謂頭陀鶴
 巖廣石槽淵皆偶有稱號故記之其外此類甚多
 漫然無名雖欲記不可得自分路處峯勢石色稍稍
 覺異至水簾四壁押天自水底至山頂似用一箇大

영인본-조선시대 설악산 기행원문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2.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¹⁾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한古朝 46-가528), 「설악일기(雪岳日記)」

二十四日朝飯葛院製秣清淮暮至水原奴家宿燈

下省或問誠意章

二十五日曉發至彌勒堂日未出秣馬果川到家日

纔沒矣

雪岳日記 乙酉

八月二十四日晴將往隣蹄朝食後拜辭家廟及伯

氏歷違仲氏于東門午後徑由石串見大有作別

暮到金村哭墓

二十五日晴拜辭先墓起向石室遍謁諸瑩取道文

洞駐馬與玄祥 一作李濼 作別秣馬鵝湖暮到康溪養

謙在馬園廬蕪漫不堪着眼惟案山松翠森秀可
喜夜宿草堂溪聲滿聽不至眊睡夜有風雨

二十六日終日雨往吊李叟于逍遙谷午飯披蓑而
返中路頗沾濕

二十七日晴向夕俶裝踰梨峴宿金忠義愛山家將
以借馬也適其往赴社會坐待良久始見來醉而
返明燈叙舊意款款也勸我以燒酒辭之牢甚則
換取白酒以進強飲二盃而罷

二十八日晴鷄鳴治行蓐食待曙而發騾背瘡爛不
堪騎騎金忠義馬以行具附騾背而行大霧不辨

路踰松峙歷迷源都不分曉誤入獐地名迷路旋
 即復路行四五里又迷行向津路遇行人指示不
 遠而復迤右踰鬱業峴頗峻急峴盡路稍夷輒逢
 浹波下流緣遷東北行右踰一峴乃幾思峴也崑
 磊多石不可騎下馬行數百步荒原幽藪間小溪
 淙琤田塍交錯夾路有池臺䟽鑿痕可知為鄭司
 藝舊業也先考嘗為京畿都事時歷訪鄭公見其
 池臺之美曲幽妙似非人世雅言所及疊疊不
 厭挽語中所謂龍溪一洞在今日真成千古攬轡
 彷徨不覺有梓澤丘墟之感過此而野平江豁路

傍緣事在在茂秀亦有好村落多在西岸無何涉
 江灘深不及馬腹灘名即博議暗也涉後導遷而
 東有翠岩可據下有遍舟載柴而西下回軋亂石
 間迅若飛鳧而逝望之杳然陟一高阜即佳亭子
 秣馬少留主人名李以信人品頗好擘畫路程曲
 折頗詳暢自梨峙至此衆云三十里而實則四十
 里也前進十里曰楸谷過此山氣明媚白麓翠松
 在在皆然蓋有具家墓山焉觀其風氣允宜人之
 居矣而以田土論之則瘦軟太甚行四五里死可
 掛鎌處踰一小峴曰挿目一作峴下峴曲曲回阻

令人意督單行實有長弓之怕也沙路紆轉馬蹄
 不歷一石稍轉而為九萬地野色莽然恰與迷作
 迷源爭澗狹水右邊下有頑峰屹峙若奴一作男
 金剛即八峰也東入一谷踰野謂地巖峴欲向屈
 其村而患無嚮導有一牽牛者指路頗詳將越峴
 少坐班草秣馬以生殺休養馬力而後始登登焉
 其高可與天磨車峴相伯仲下峴有暝色一路紆
 回信馬而行晡靄中紅樹素石景色異常有瀑清
 駛赴江如馬涉溪登原有犬吠聲始到所謂屈其
 村自佳亭至此六十里

二十九日晴早飯後散步平阜江水在其下左有溪
 沅會之涉溪有岩高起十餘丈上可着亭稍歌側
 為欠西岸巉岩屹然作對相距一牛鳴有村老鄭
 起先者隨至岩上談話頗款移登西岩勢若劔脊
 凜不可久臨歸臥休憊丁敏輩供蕎麥麵以當夕
 飯
 晦日早起借得村馬以載橐祭峰于隨來東行十餘
 里三次涉江灘水及馬腹寒凜不可堪祭峰以河
 魚痛落後屢顧懸懸竟不至使墨世牽騎且叱馱
 路頗坦夷過洪川邑內十餘里秣馬與日村村漢

皆稱品官拒人甚牢僅得一斗屋以休憩店主快
意見待遂贈一筆行踰馬嶺路甚平驟背雖瘡自
忘疲頓也到泉甘驛問舊識李承雲則病不相接
移就隣舍乃承雲姪家也越房踈冷多風僅得經
夜俄有一漢出款云是主人之兄而人事款暢勸
以入歇內房而不從焉

九月初一日晴朝送墨世於獬衙使傳書得騎卜以
未終日憊痛殊死惊緒

初二日墨世傳獬衙書以馬一匹及二官人來為送
屈其馬作書付墨世還送行踰健伊嶺四十里到

馬奴驛訪金興業家寄宿燃松明話至夜深渴甚
 思水主人餽一梨甘爽多水頓瘳渴味
 初三日早起喫白粥而發騾背瘡甚托主人以調治
 行緣缺遷越者儀津到旃衙與主倅兄叙話食後
 隨主倅兄出坐江邊觀放鷹鳥
 初四日晴觀射帷
 初五日晴隨主倅兄往觀龍淵放鷹捕魚就岩角危
 峭處設席飽食夕有雨意急馳還
 初九日晴食後緣遷行十五里秣馬于圓通朴吏家
 乃春發婦翁家也受菜麵點心得馬輸橐行入暗

谷越三崩嶺盡水出翠壁白石洒落洗心迫暮不
徜徉可嘆馳過藍橋到葛驛微月掛林抄矣宿春
炭家

初十日朝食到石門板屋修粧頗愜意可以過冬登

弄月臺周覽形勢使春發塗室

十二日晴往處板屋見碧雲寺僧擔佛入谷村人皆

奔波使春發加土板上

十三日晴入曲淵暫憩池世男家往投碧雲寺觀東

菴新構處地高明頗愜素尚

十四日晴晚有風閑游溪邊跳越溪南坐岩上東望

五歲菴後諸峰迥出雲表興寄悠遠五歲僧雪捲
來見

十五日晴風將向五歲菴使一僧携枕具而往獨先
沿溪而東觀宋堯卿所占屋基溪潭之幽奇峰巒
之森秀殆過碧雲而面勢端的則有遜焉到俞泓
窟迤入水簾洞乃宋堯佐宿處其奇勝不可盡述
還到俞泓窟捨溪東入土岡遽迤令人足酸霜葉
填磧尤妨步履艱踰一嶺蹣跚坐葉而下至五歲
菴諸峰環衛森若鬼神板屋生白雲與雪捲終夜談
禪曉月步小庭尤覺惺然

十六日風別雪捻步上後岡直上十里始至嶺上內
 外峰巒一覽无餘下瞰外山萬戟攢列一一干霄
 而上宛似黃山巔循嶺北上又四五里斜從二素
 岩蹂踏短栢稍稍下嶺又逢磊礪艱步十餘里至
 普門庵平者萬峰森列庵東峰缺海色萬里實天
 下之奇觀也庵空无僧靜坐前楹取落葉煎湯澆
 飯即上香爐臺即庵之南偏眺望尤奇沿澗而下
 度一略約則瀑落萬仞不可睨視凜凜移步魂悸
 膽掉到極危處斜掛一條朽松廣纔數尺一跌則
 不可取矣過此登登降降左右皆萬仞絕壑此所

十謂馬脊岩也嘗聞華山有蒼龍崩危險死雙未知
 比比如何耳艱行十許里至食堂岩岩石平滑可
 坐左右峰巒森秀者甚多其中金剛窟最奇傍有
 丹巒甚佳仰挹俯嗽神襟為之洒落若論其勝美
 具會則曲淵中亦少其匹但觀止一曲不能層現
 疊出為未暢此為上食堂刻飛仙臺三字下食堂
 勝致頗劣亦刻臥仙臺行十里到神興寺處地野
 陬南有權金城土王城隱隱環衛
 十七日晴將向洛山寒溪僧告歸與神興僧步出洞
 門觀土王城瀑布飛流廣巒勢甚奇壯若就其北

岡作一觀臺則不惟上乘風斯下雖廬山亦未必
過之矣涉大川到降仙驛有金世俊者悶其徒步
之難借一騎馬即馳向洛山歷見金剛一夕飯與
剛一步到洛山散步梨花臺腦襟豁然夜觀月出
不清快曉起見日出又不利曙色腫臃中出步廣
庭鯨音宏亮與海濤相應守更僧上殿唱梵令人
魂清

十八日晴金剛一借馬東馳十許里到雙湖訪崔斯

文斗明

一作道

講話疊疊入夜始就枕

十九日晴蒞向襄陽觀河趙臺海天兩際軒豁呈露

岸側詩岩奇詭萬狀前有一石峰屹然有相揖勢
尤奇秣馬洞山一作仙歷介麻浦到香湖宿李進士
未數家

二十日晴蓐食到新村訪辛進士聖洙並轡過連谷
沙月到北坪歷辛聖潤家到鏡湖訪沈生負世棠
一作世不遇沿湖而步上鏡浦亭辛魯清及澤之
到亭上與論物色澤之盛稱甌山之勝登之果快
勝較亭上之觀殆數倍也夜宿辛聖夏家乃澤之
之兄也夜君五襍被來話乃聯枕
二十一日晴與澤之並馬向丘山歷覽梧竹軒基行

穿州府歷訪金萬謙乃癸丑同榜也過乾金野度
 訪道橋鳶魚臺至丘山前有永歸岩遠在百餘步
 不與院缺帶泉石亦不佳午食向松潭山路極難
 冒昏到松潭辛魯清在焉齋任李天植作人頗佳
 聞其孝行卓絕缺
 二十四日與君五將訪缺並馬歷缺谷過白雲遷有
 泉石頗佳遇微雨忙向兔谷林壑缺峻坂得平丘
 迤西入小谷度青鶴岩缺
 二十五日兩晚晴猶深霖欲向九龍淵而以無霽意
 且為休養足力不動終日臥溫室數喚沙彌問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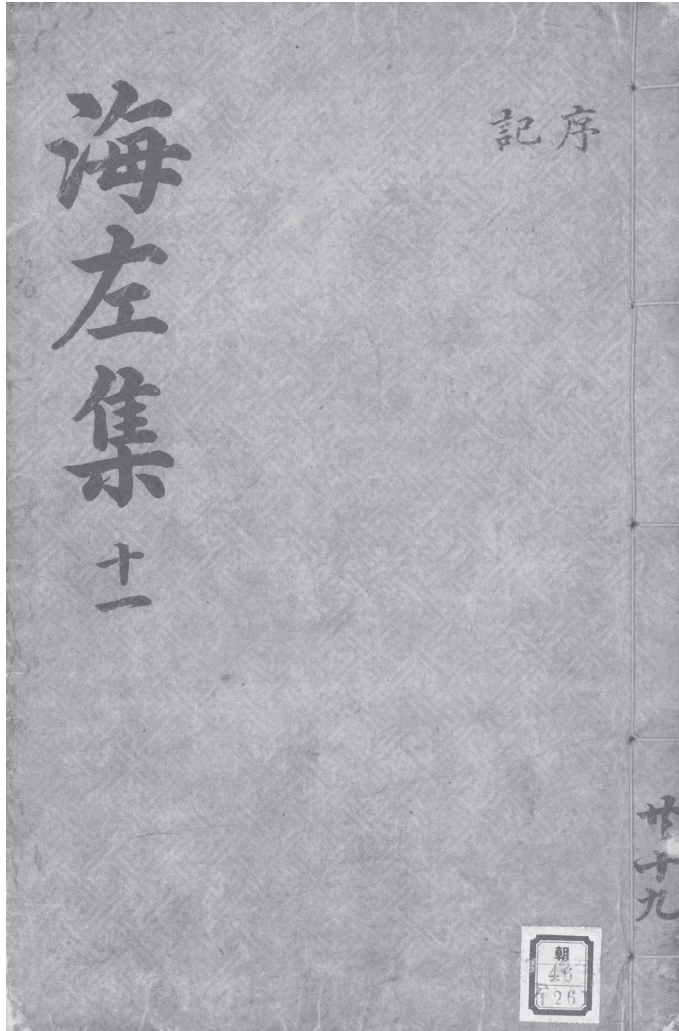
氣夜間雲折見星旋復晦翳

二十六日朝雨冒雨騎馬而出洞口兩衲隨焉歷昨日所經村家南踰一嶺即小栢峴踰峴有平郊幽暢可居可知為栗谷所記嶺下平郊也僧輩謂長者基沿溪行三里又有一坪亦名長者基亦云有菴基記所謂板屋者隱約在是也無何捨馬遇觀音遷中開巨湖洶湍沈黑南邊一作北皆絕崖行緣南崖數百步許凜凜匍匐而行中間兩處仄滑數丈幾足二分垂外余牽甬甃過顧見匍匐恂目狀始自生怖岩勢缺歌石色醜黑比諸食堂襄陽大

有等級過此岩巒益幽奇死何爲息堂岩峭巒四
 圍森巖若神西北特窗萃者可知爲轟雲峰也鏡
 潭在岩前水頗澄淨而幅圓不廣岩上刻秘仙岩
 鏡潭天游洞八字旁有尹魯西題名余觀君五神
 情似難並遊九龍淵勸令休坐岩上曰得如栗谷
 足矣余與燎師攀緣抱回負回等岩凡四涉水而
 九龍淵口九淵相連一瀑下輒有一淵東西緣巒
 而晚視淵瀑層見貫珠相連巧妙無比若論局勢
 之宏雄不及楓岳與支離谷即寒遠矣歸到食堂
 君五坐石上使僧炊飲以待去來只一炊頃矣兩

客兩僧列坐攤飯其味甚淵永是時雨歇天氣清
 美沿溪徜徉至長者基得所謂漲雲潭兩涯高懸
 湍流迅奔可為洞中泉石之上乘僧言李仲培來
 遊時亦按栗谷記文而搜叢此潭云返寺日未落
 僧輩皆賀涉險善返夜睡甚濃脚力不至甚酸
 二十七日出山至曲淵下馬憩憩過兔谷與君五公
 路至新村訪辛進士夔乃聖洙甫叔父也聖洙亦
 來話夕至香湖李進士準備人馬俾送君五家騎
 牽暮得小艇泛香湖舟中小酌海色湖光向夕愈
 佳比初歷加勝

2.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¹⁾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M古1-1998-225), 「설악기(雪岳記)」

海左先生文集卷之二十二
之不遇而山海之幸乃患吉之不幸也然思吉介然
自守不以外至得喪累其心而益勉其在我者以翠
松亭記屬余廣其義蓋自托於歲寒後凋之節嚮之
幸不幸之說誠淺之爲知患吉而患吉之賢於人遠
故樂爲之記如此

雪嶽記

戊戌秋余赴襄陽任北顧雪嶽巉巉雲際甚壯而迫
吏事不克往遊焉翌年三月約祥雲丞張君顯慶士
膺州之士人蔡君載夏同發戚姪申匡道女婿俞孟
煥家兒若衡從辛丑宿神興寺環寺而爲天吼達摩

土王諸峰皆雪嶽外麓也壬寅命寺僧弘運者導肩
輿北由飛仙洞入峰態水聲已覺爽人神魄仰視絕
壁削立數百尋捨輿而登壁皆石級一級一喘顧士
膺猶在下級也謝不能從行登馬脊嶺忽大風作霧
雨窈冥四塞弘運告是爲中雪嶽也日晴則見嶽之
全體云薄暮入五歲庵竒峰四擁森然欲搏人而中
開土穴窈然受庵梅月堂金公時習嘗遜于此庵有
二真寫公儒釋狀余爲低徊悲之公自號五歲童故
庵名癸卯踰左麓而下折而東循大壑而上嶺勢視
馬脊加峻絙而前後推者相附麗十里而後登獅子

峰絕頂是爲上雪嶽而塞天地皆山也若鵠翔若劍
 立若齒蓆者皆峰若雲若釜若盞者皆谷山皆石
 無土壤深青若積鏤色獅子之東稍隩衍有庵名鳳
 頂傳高僧鳳頂常住云由獅子下緣崖而南崖窳厓
 容趾趾所循爲積葉爲崩石爲僵木凌兢不可度而
 左右山皆竒峰迭出林木上水自後嶺來布谷而下
 谷皆石晶瑩若雪而水被之石勢之起伏凹凸廣狹
 而水形焉大畧爲瀑者十數而雙瀑益竒爲潭爲泚
 爲漫流者不勝計而稱水簾者益竒若是者竟日而
 入永矢庵庵卽金三淵昌翁所名嘗隱于此云峰壑

幽奇有土可種多芳林茂樹終夜聞杜鵑聲甲辰渡
 水而南行谷中谷水皆木石槎枿不受足稍上而石
 盡白忽變紫赤盤陀水面左邊石壁紺碧水歧瀉其
 中泱泱鳴前有嶺甚峻伏輿而登循左麓而下百步
 前對石壁幾數十尋色蒼潔瀑從巔飛下玲瓏如白
 蛻風乍掣則中斷爲烟雪飄灑滿空餘沫時時吹人
 衣令從者吹篴與瀑聲相應答瀏亮一壑是爲寒溪
 瀑也余謂弘運曰復有此否曰無之矣過楓嶽九龍
 瀑遠甚矣東南林壑絕美東爲五色嶺有靈泉宜瘠
 積多水石望之幽怪而日暮不可窮踰嶺還抵百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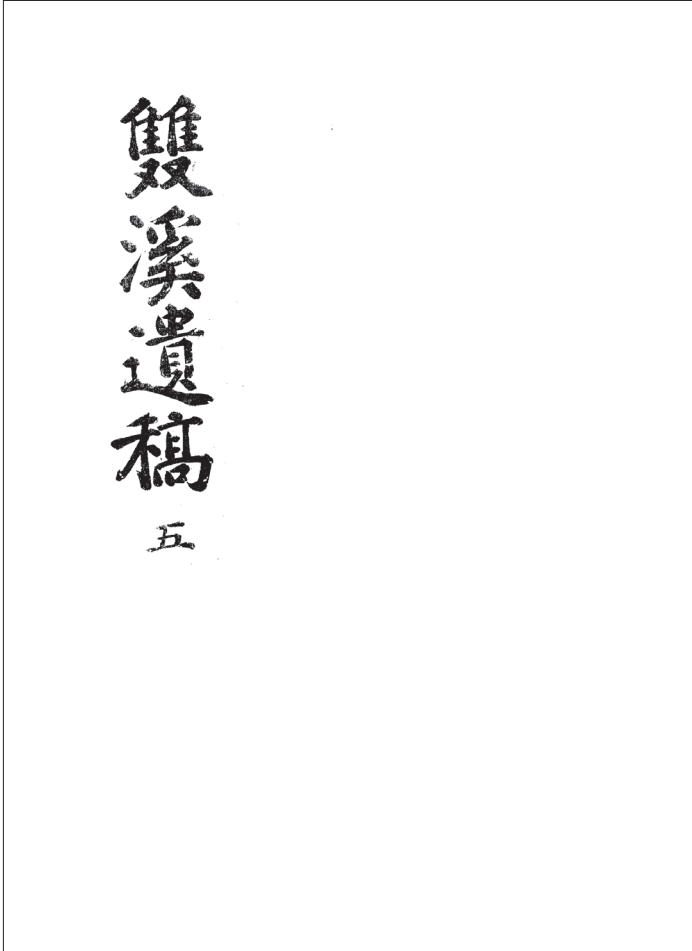
濟州府志卷之三
三十一
寺宿乙巳北出之循飛仙洞後嶺而下嶺懸急皆錯
石多竅必失足則輒僵仆而南指馬脊諸峰歷歷雲
際不知何以能致我於其上也宿神興丙午還雪嶽
據麟襄二州而麟得四之三獅子峰之東爲晴峰視
獅子差高而所得止東海西南北之爲雪嶽無加得
於獅子故不果登獅子之南爲雙瀑水簾西爲五歲
又其西爲永矢又其西爲百潭遠海涵其北楓嶽青
出若螺髻寒溪瀑在西南自新興至五歲四十里五
歲至獅子四十里獅子至永矢四十里永矢至寒溪
三十里寒溪至百潭三十里百潭至神興四十里環

雪嶽而可行者凡二百有二十里可輿者凡四十里

借菴記

李君聖威名其寢處之所曰借菴屬余爲記余惟非
其有而暫寓之謂之借子之菴因吾區而木石吾所
辦以庇吾百年之軀是果從誰借歟聖威道爾而應
曰物未始有不待借而有之者也天地之大而借之
造化山川草木虫魚鳥獸之蕃而借之天地士借之
大夫大夫借之諸侯諸侯借之天子而貴借而有也
百乘之家借之千乘千乘之家借之萬乘而富借而
有也吾之菴奚獨無借哉區借之地木石借之山工

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¹⁾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계유고(雙溪遺稿)』, (古3648-62-57-1-5),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雜著

雪嶽往還日記

癸酉四月十三日與再從弟玄之祖源發楊口縣衙
 踰豆毛嶺渡馬路驛前江中火于驛所臨發時麟蹄
 支應始到未到縣十里渡葛路江踰葛路峴嶺盡而
 縣始見山中開野大川繞出縣前卽雪嶽寒溪合流
 而下云直抵東軒與主倅金成仲話移時洪川前倅
 宋翼欽爲訪雪嶽亦來到共問山路遠近遊觀後先
 主倅一一細指仍發藍輿傳令夕食後出宿將官廳
 是日終日大風船上馬上皆不穩十四日日出八東

雙溪先生詩話

卷八十一

雜著

二十四

軒宋洪川已來坐謂欲先向寒溪歷雪嶽轉出嶺東
 余則既無嶺東之意又聞寒溪路迆以直趨玄龜定
 計宋洪川先起余與主倖同推殺獄推案繁冗騰書
 甚遲故結辭起草訖即發使該吏淨書俟山行出來
 受押路出縣北松林林盡處有小架坐石彌勒其下
 稍迤上有亭卽所謂合江亭恐分日力過而不登渡
 加音津踰參嶺秣馬於嶺下村店以肩輿緣溪五里
 許川石往往絕佳馬行二十餘里始望見玄龜寺寺
 僧四人以輿待於川邊到寺無甚可觀寺甚貧殘僧
 徒亦鮮少新朔法堂無瓦覆以木是日又終日風霾

政極愁絕一老僧前言曰此山從來無久無風亦無
 一連五六日吹近日之風未必非明日之幸也夕食
 後散步寺庭望見西南一帶山火絡繹如列萬炬亦
 可觀宿玄龜寺聞襄陽府使李聖櫜入山已三日明
 日將自神興還官云十五日早食登輿齋輕糧還送
 麟蹄刀尺揀落行中不繫人隨輿者隨陪金翠光工
 房朴枝青通引任翠彬吸唱翠星後陪末男老味刀
 尺莫同也經頭陀淵鶴巖廣石洞水石皆可觀而僧
 徒以爲入山後在在如此不必停輿踰葛峴稍見平
 陸有五六人家小憇川邊樹陰一老人扶杖來見問

其年九十有一有子年亦近七十云問何養而致壽
 如此對以自少勤力耕作朝夕菜食而已不知其他
 以風邑不佳勸令入息笑曰自少不知避風而不曾
 爲病况年既至此觸風病死亦無可惜何避之有經
 槽淵淵如槽樣而甚深濶到溪隱寺舊址有礎砌石
 及桃李雜花僧言溪隱廢而玄龜始建溪隱玄龜之
 義問之無曉者初以觀閉門庵宿五歲菴翌日登鳳
 頂宿鳳頂庵又翌日從十二瀑水簾洞而下分排路
 程更思之山中早晚風雨不可知或失鳳頂之登則
 雖遍搜諸勝不成觀雪嶽故捨五歲菴路直取水簾

洞洞中元無分明路選澗左右都是巖石大者磐陀
 穹窿小者縱橫廉利往往無着足處入洞絕少登輿
 便衣草鞋跳溪爬峻稍過危處輒拭汗定喘連以生
 葛粉糜食調澗水沃喉午到水簾洞僧言自玄龜至
 此爲四十里自五歲菴前分路處至此亦可二十里
 量其遠未必至是而崎嶇艱辛殆甚於平道百里行
 入山後水石峯巒之奇勝處不可殫記所謂頭陀鶴
 巖廣石槽淵皆是偶有稱號故記之其外此類甚多
 漫然無名雖欲記不可得自分路處峯勢石色稍稍
 覺異至水簾四壁押天自水底至山頂似用一箇大

石斲成腰以上絕不見縫罅樹林皆在腰下而疎疎
 不甚蒙茂環列如屏障尖崑如鋒鋦高孤壯特奇詭
 恠巧狀態不一又有一崗邐迤隱映於洞口之外望
 見彷彿如金剛之衆香石色在峯者黯白淡青如艾
 色在水者淨白水亦渟匯淵湛上下累十層大略皆
 然上下層之際皆有大白石橫截盤礴承上接下水
 從石上散布而下幾似斷流而颯颯常有風雨聲川
 邊有廣石可坐數十人廣石上又有高大石數塊樓
 然而俯可避暴雨烈陽鋪席坐其下設鍋炊飯玄之
 縛筆杖頭題名壁上飯訖將起玄龜僧四名送襄陽

倅踰神興裏飯追到促飯同發沂上十二瀑瀑水不
 懸不卧而馳逐盤渦各一其態峯壁如水簾而步步
 幻面愈出愈奇玄之叫聲不絕耳後通引吸唱董亦
 無不拍手噴舌獨僧徒恬然無變色到雙瀑乃十二
 瀑之盡處壁勢取懸絕而久旱水少無噴薄勃鬱之
 勢亦自裊娜可喜自水簾到雙瀑尤絕險路絕處輒
 有僵木繼之俯窺空隙窈然無底戰掉不可過前者
 挈腕後者捧腰爲眼不計身殊覺一笑僧言水多時
 石滑逕沒居僧亦或遇漂溺之患近幸久不雨耳到
 峴久立歇脚回視所經茫不可辨但見累累在下

皆是向之側弁仰望而不可攀者也午後連以步行
 氣竭力乏而日影漸匿四顧無托抵死前進峯巒到
 此尤雄拔秀特而不暇遊目諦視直到御峯下稍有
 土逕始就輿懸輿而上百步不啻九折擔輿僧喘喘
 欲絕到鳳頂日猶餘尺許槩低處多障蔽初到者謂
 已夕也頂上戴石狀如累碁危甚欲墮鳳頂之名得
 於此聞襄陽太守到此恐石壓促下諸僧哄然庵在
 頂下結構極堅妙廢久而窓壁猶鮮楚楚可喜有一
 僧癯形弊衣迎禮輿頭問孤絕如此何爲獨處對以
 偶然過登愛不能去孤絕是本身獨處亦何妨云憇

小軒汲庵東石泉解渴味極清冽爽氣徹骨僧言水
 簾十二瀑之源皆發於此絕頂出泉其富如此良可
 異也飢甚促飯上塔臺俯見萬壘千丈踊躍飛奔各
 自呈形現相於臺下如槍戟鉞燾之環衛將壇雖長
 短踈密參錯不齊而位置氣勢極其森肅南一面皆
 是午間所歷諸峯而大半隱沒不見西面則遠而洞
 視玄龜洞口外衆山近而盡得五歲庵以後峯巒西
 北則大峯數十矗矗列立其外二十四峯縹緲妍秀
 又其外白蕩蕩地云是襄杆大海而霧塞不見東北
 卽鳳頂正東一岡高大迤長卽所謂清峯塔臺爲山

之最高而清峯尤高登之則東盡大洋西南丘山一
 舉無遺每坐目力之窮而止距此可三十里而峯常
 擲風樹木短苦且今尚積雪不可登云塔在臺中央
 而不甚高不知何代所創塔前巨巖有穴古傳海水
 至此穴是繫舟處曾有人得螺蚌甲於臺傍可爲徵
 云想繫舟此穴時三韓當盡入魚龍窟見且傳者誰
 也是日自朝風勢頗減午後氣候極清羨至塔臺風
 復作猶不如昨再昨僧言此臺未嘗無風今日可謂
 平穩觀日沒欲畱待月上而從者皆病余亦憊甚還
 宿菴之洞房僧輩糧絕顧問行橐亦枵然終日伏安

危於此輩而無以濟其困甚覺埋沒姑作米帖與之
饋以一壺燒酒十六日早食復登塔臺曉靄欲散紅
日初昇峯巒洞壑精彩一變昨夕之森邃而窈窕者
皆晃朗如新磨劍海霧猶未盡收而島嶼帆檣隱約
可辨但未見碧色西向極目有一抹雲煙橫屯天末
僧言金剛在其下無雲則毗盧可指余於十年前入
金剛而春雲未消毗盧九龍之勝皆失登攀今可贖
鴈門之跡矣此時神氣甚清快頓忘昨日七顛八仆
之危誦九死南荒吾不恨茲遊奇絕冠平生之句將
向五歲庵而逕出臺西直下峻脊崩沙墜石一蹉跌

則滾入萬丈深谷悸不能前乃脫藍輿索絆腰肚使
 一人從後挽之又使一人在前攀住肩腋始敢下而
 自昨日晚後兩脚浮酸艱於運用寸寸休息至十許
 里方就輿其間別無可觀可觀者皆是塔臺上所已
 俯臨指點而面勢稍有移換耳有所謂大藏經峯者
 極高大而從下至顛皆石片巖積如書架往往破落
 可取以排房堦澗壑之陰深處間有冰雪沓築水流
 其下路出其上而猶不解路逢宋洪川停輿問寒溪
 消息答以昨抵溪上壁勢誠奇異而水淺可欠入此
 山姑未見奇特處但見其危險異常余笑曰從此以

往當漸見奇特而危險亦當益甚耳至伽倻窟洞頗
 開廣峯巒不如水簾而水勢石色可與相埒坐水傍
 盤石移時截流而西踰四五峻嶺到五歲菴岡巒重
 重環抱中起一麓極韞藉開朗舊有梅月堂遺蹟湖
 南僧雪淨鳩材建菴土木纒訖方設架始繪事菴名
 取五歲童子之義云雪淨者年少貌俊與之語袞袞
 可聽數三老僧列坐壁下亦皆敦龐清古粗解文墨
 不似玄龜中所對雪淨進勸善券曰太守之到此者
 莫不有助公獨無意耶余笑曰汝雖托重金公而却
 坐觀音菩薩於正堂金公影子反藏夾室賓主倒置

汝將使余助觀音影堂之役耶淨曰天下之尊莫大
 於佛爲僧者不可跬步忽忘金公清節誠可敬而爲
 屋不主佛則僧徒誰肯負一石曳一木且小僧自尊
 觀音使君自助金公庸何傷作米帖與之且問仍住
 此菴否淨曰浮屠之法元無戀着况躬自營建仍復
 留住則是利之也早晚落成後不知浮雲踪跡漂向
 何方耳午飯卽發萬景臺閉門庵距此各二十里而
 一行皆疲頓蹢躅且聞其觀不出於水簾鳳頂之範
 圍遂略之此後連從喬林宿莽中穿出而稍有逕路
 可免徒步到昨日分路處下輿立澗頭悵望水簾洞

久之而去大抵鳳頂有二路左一路清峭奇拔一水
 一石絕少尋常而全體是巖壁偏側殆非人境右一
 路雄偉敦厚草木暢茂可置寺刹亭臺而奇勝則遜
 於左到永矢庵遺墟徘徊繞碑碑卽縣監李廣矩所
 豎監司洪鳳祚識其後三淵居士曾居此庵云菴址
 平穩開廣眼界亦明媚可愛居士久於此山遺蹟所
 留不止此菴峯巒水石之稱多其所命不能悉記少
 憩葛峴下村前樹陰日未入還到玄龜問安官人來
 待得衙中安信十七日聞加音津傍有捷路由此則
 自玄龜距楊口縣可百二十里云走書麟蹄倅告以

徑還且要送推案於圓通店待肩輿於加音嶺日出
後發玄龜諸僧相送於洞門甚覺依午前到圓通
驛點心本官答書及刑吏推案皆來待着押緘封付
之臨發邑人來到得衙信及家中平信以肩輿踰加
音嶺秣馬本縣下東村時久旱所經兩麥萎縮不得
發穗水田亦多龜坼民皆焦然有憂邑日未入還縣

七言雙韻辨

古人韻法今不可詳而易辭及洪範樂記中一段皆
是韻語不但詩有韻也三百篇或一韻雙韻如卷耳
首章只外句有韻其下三章句句皆韻天保第五章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인쇄 2016년 12월 21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지은이 장정룡
발행인 박무웅
편집인 연선예
발행처 속초문화원 주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155
전화 (033) 632-1231 팩스 (033) 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
펴낸곳 디자인미디어

ISBN 979-11-959856-0-9

비매품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와 속초시 문화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洞洞中元無分明路逕澗左右都是巖石大者磐陀
 穹窿小者縱橫廉利往往無着足處入洞絕少登輿
 便衣草鞋跳滾爬峻稍過危處輒拭汗定喘連以生
 葛粉糜食調澗水沃喉午到水簾洞僧言自玄龜至
 此為四十里自五歲菴前分路處至此亦可二十里
 量其遠未必至是而崎嶇艱辛甚平道百里行
 入山後水石峯巒之奇勝處不所謂頭陀鶴
 巖廣石槽淵皆是偶有稱號故外此類甚多
 漫然無名雖欲記不可得自分處勢石色稍稍
 覺異至水簾四壁押天自水底至山頂似用一箇大

①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 설악산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비매품



03380



9 791195 985609

ISBN 979-11-959856-0-9